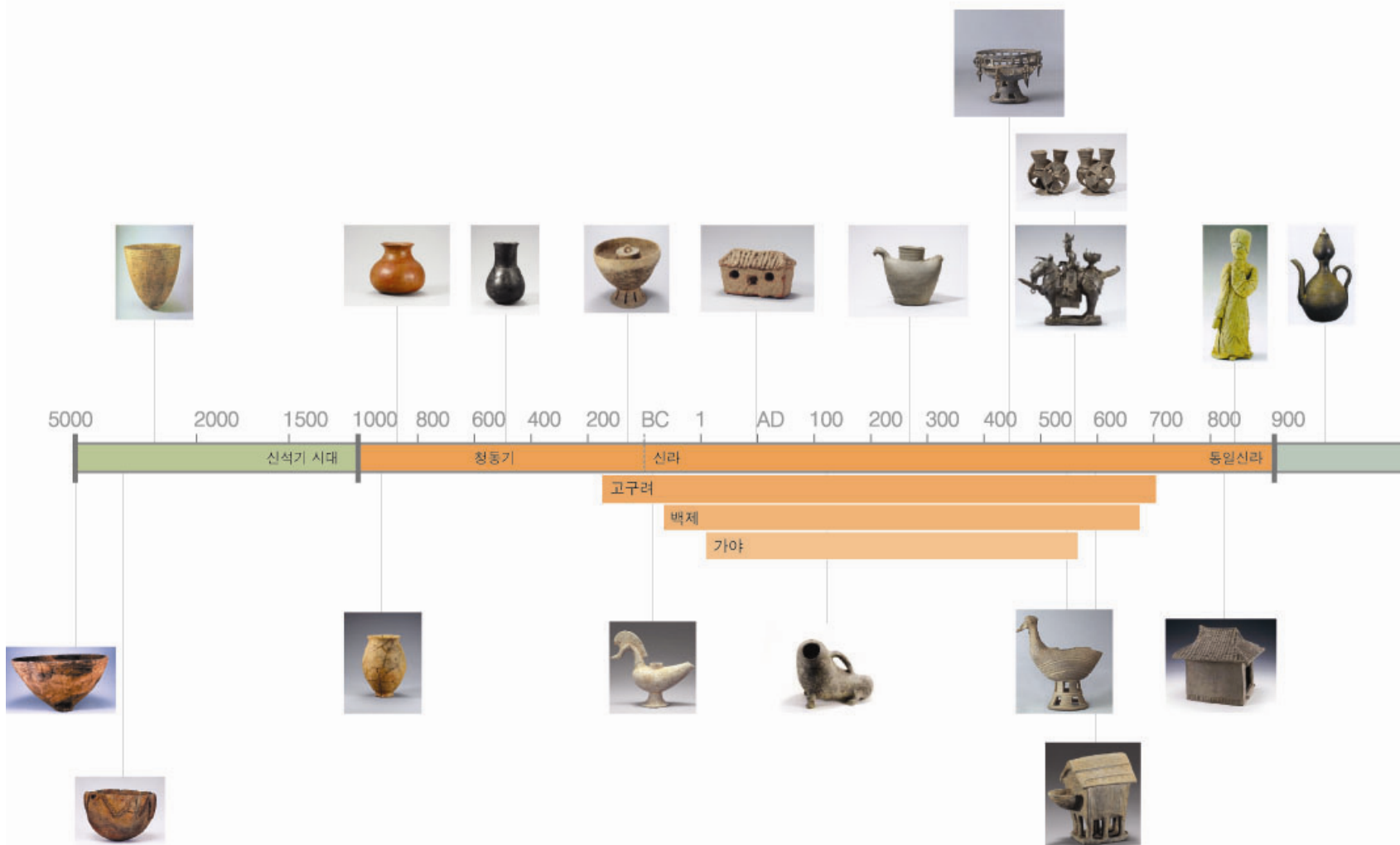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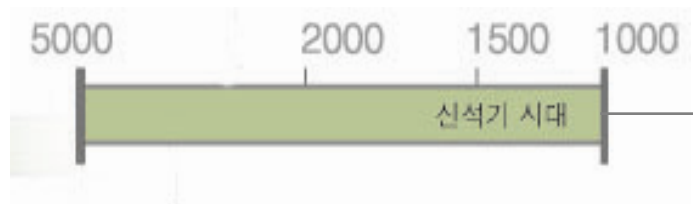
한국 디자인 DNA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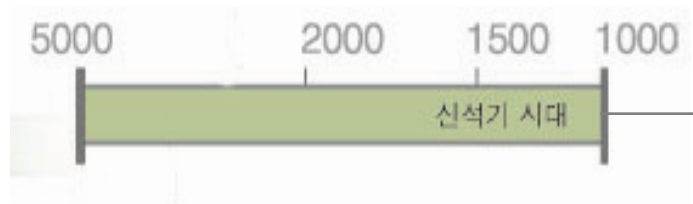
— 도자 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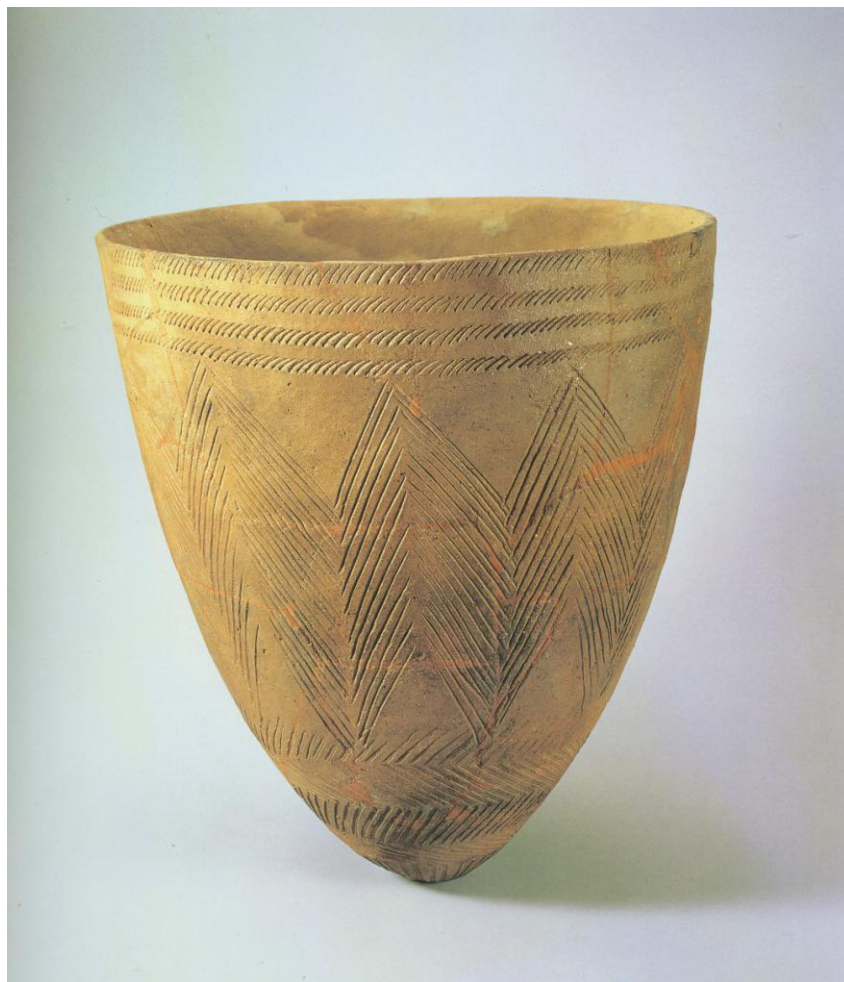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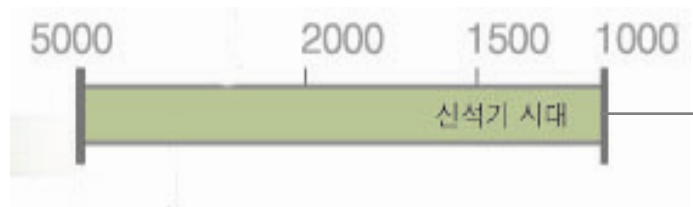
연 구 원 : 강석영, 김미경, 김주연, 최성재, 최윤정

날 짜 : 2011. 2. 10.









1000 800 600 400 200 BC

청동기



1000 800 600 400 200 BC

청동기



1000 800 600 400 200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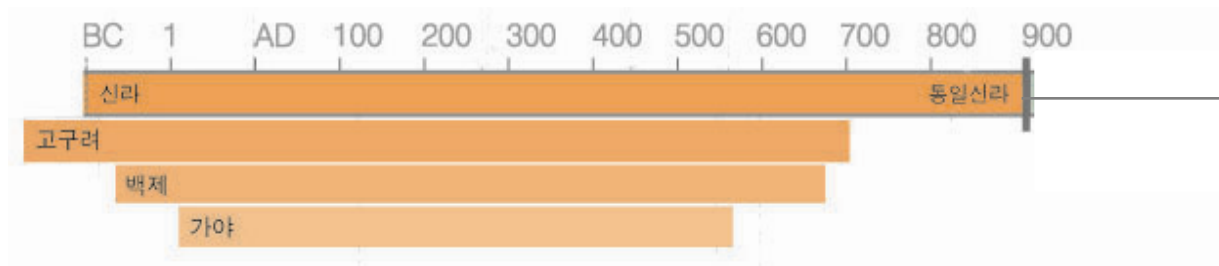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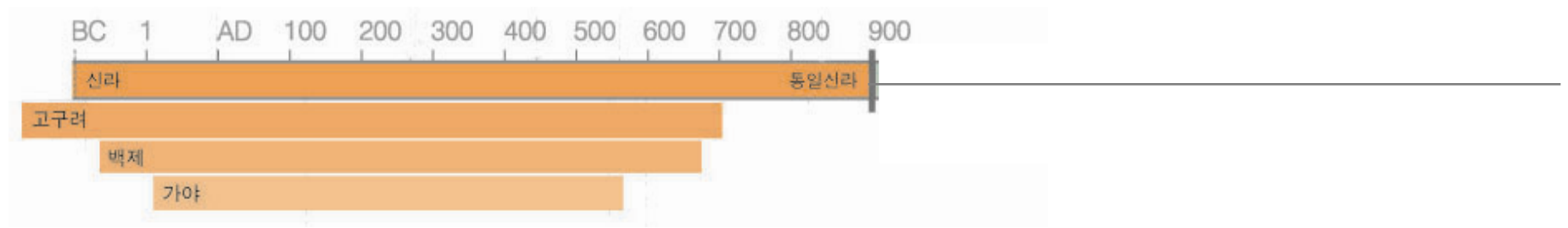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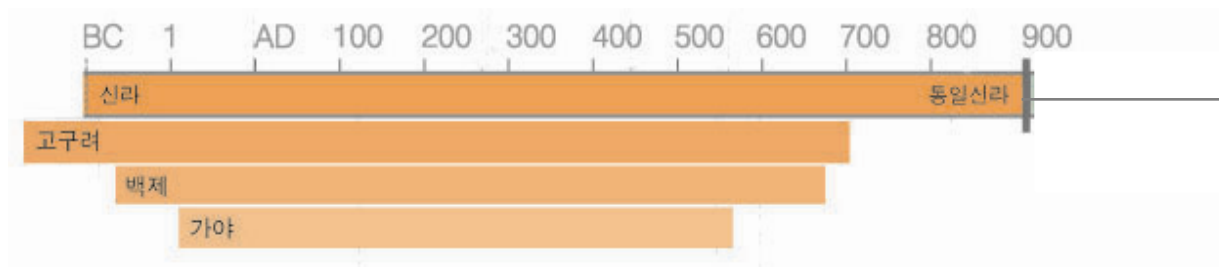
1000 800 600 400 200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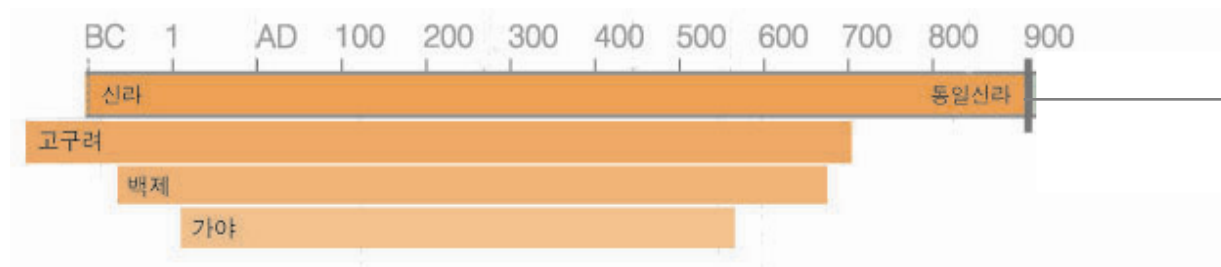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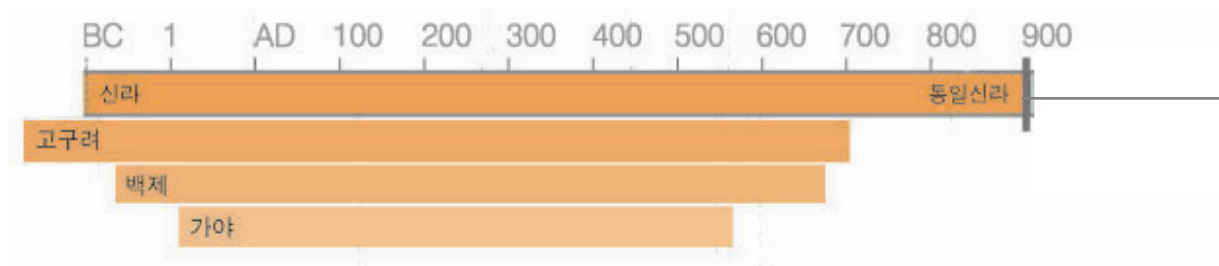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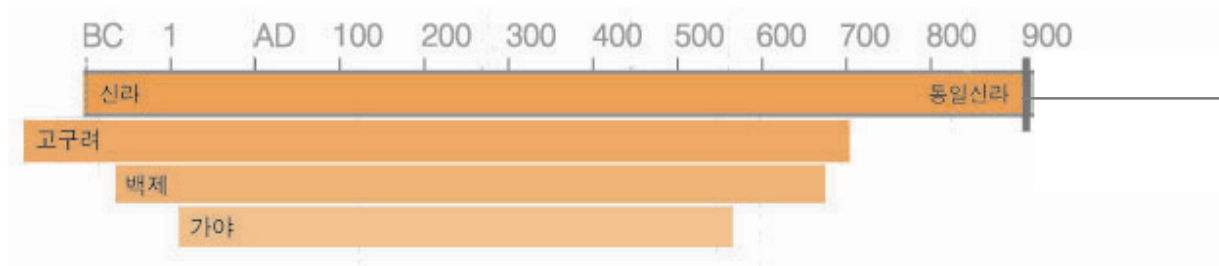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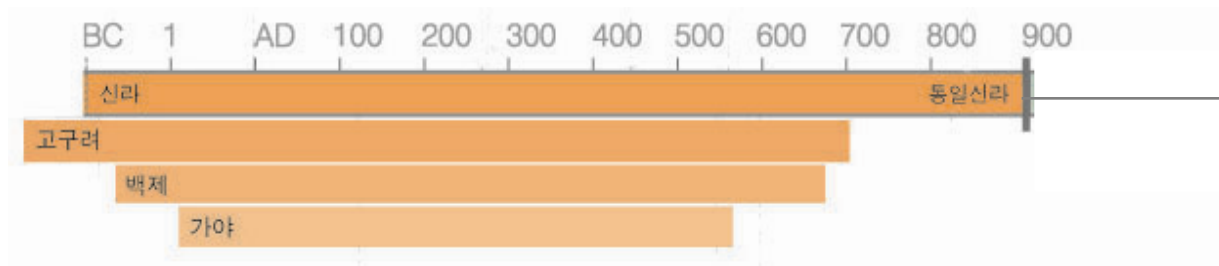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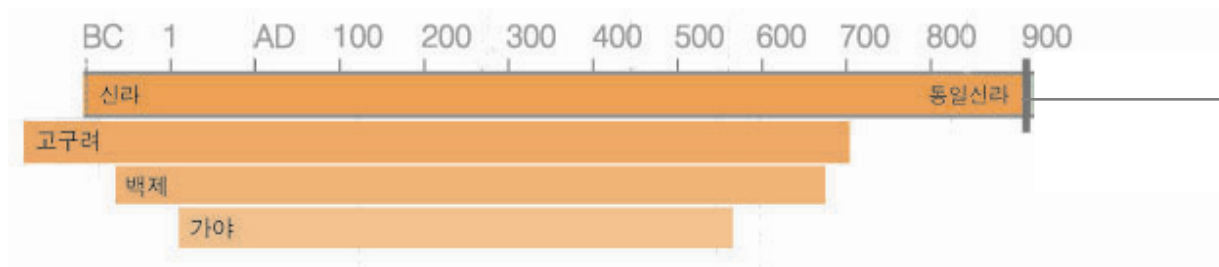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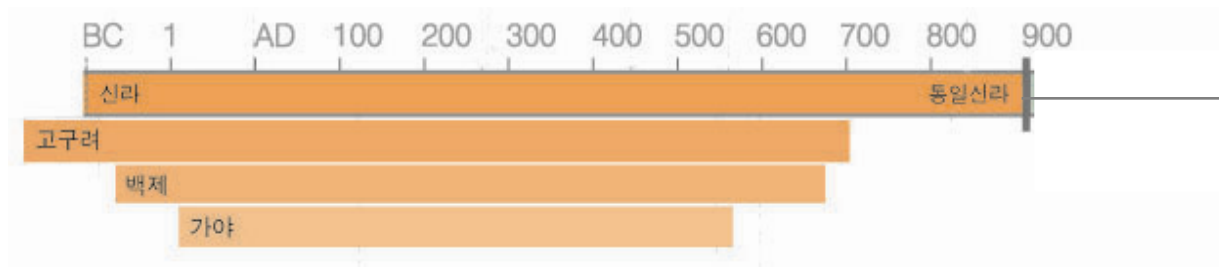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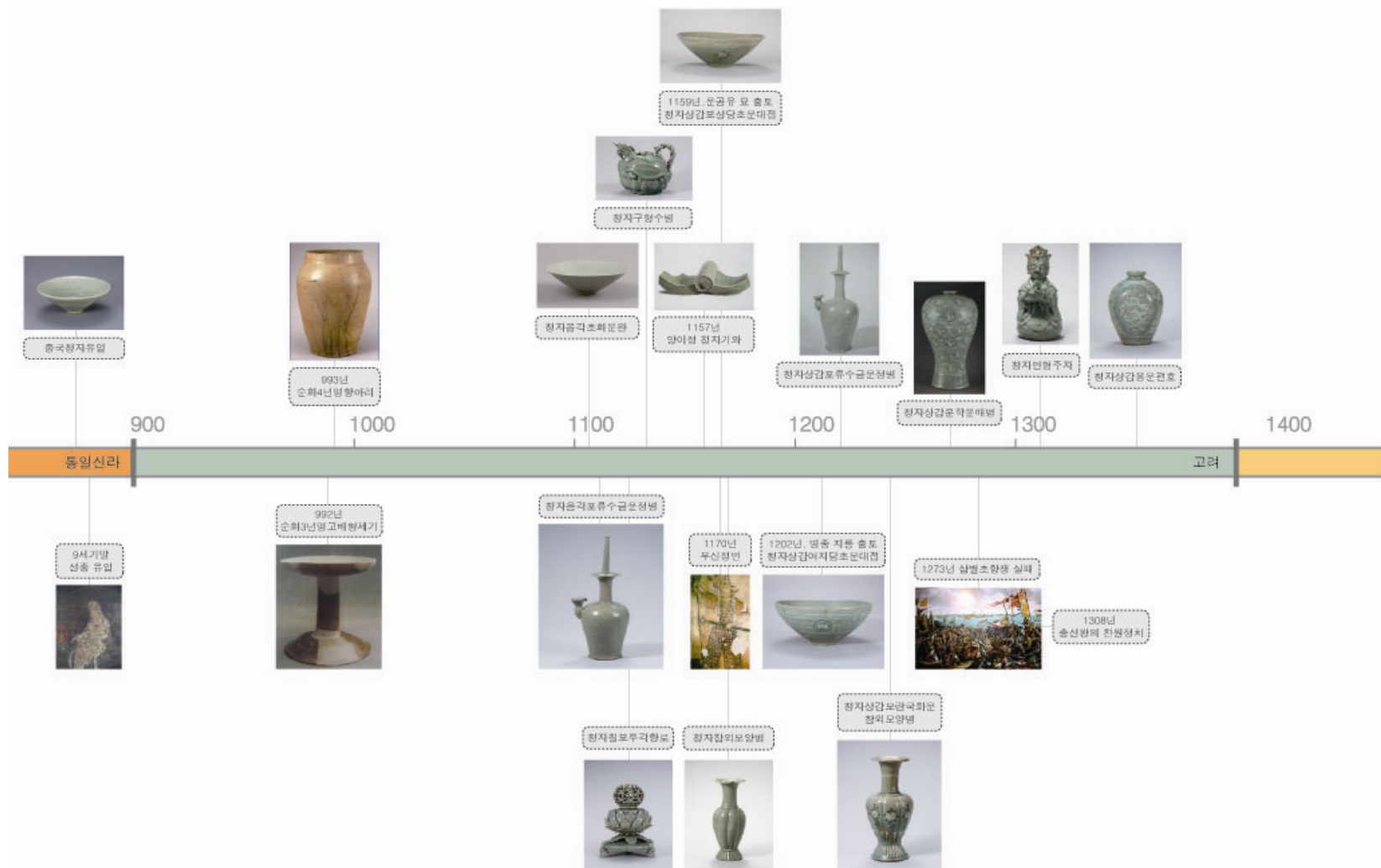












1000

1100

1200

1300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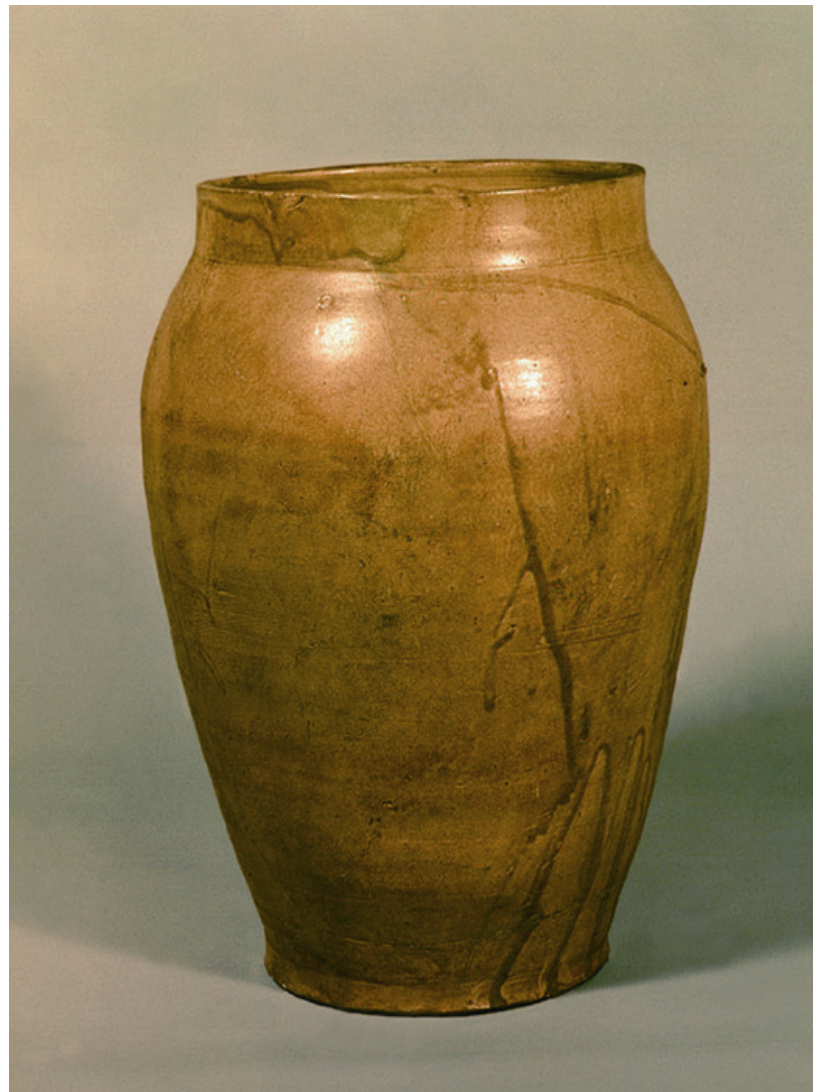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1100

1200

1300

고려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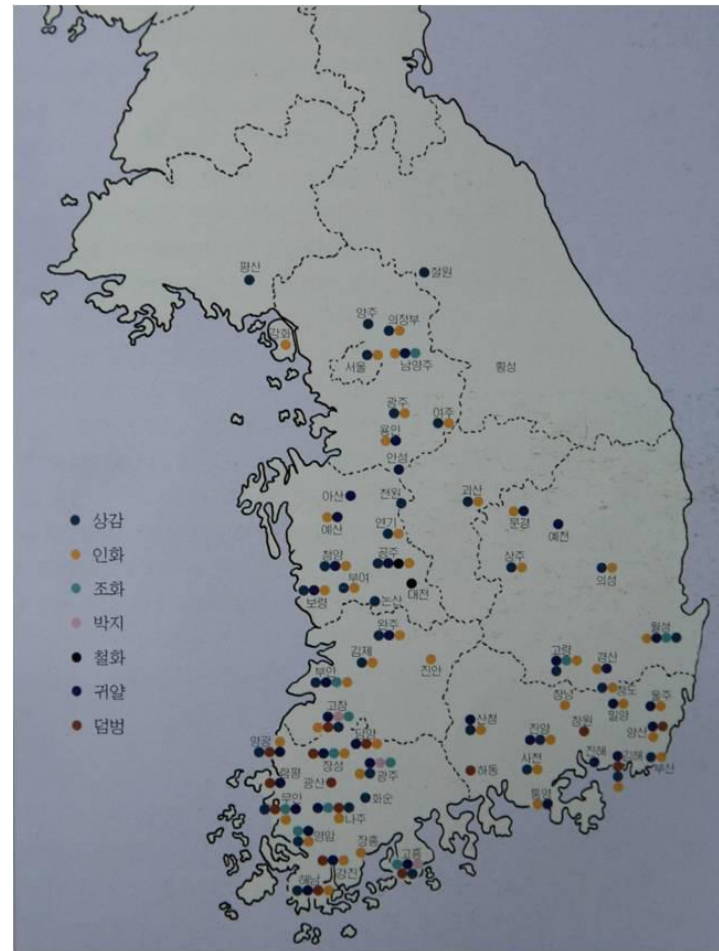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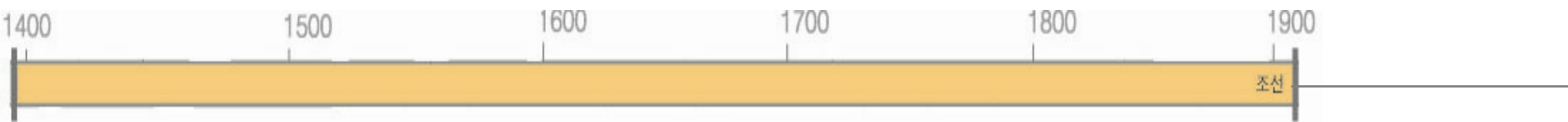
1100

1200

1300

고려





조선시대 분청사기가마 분포도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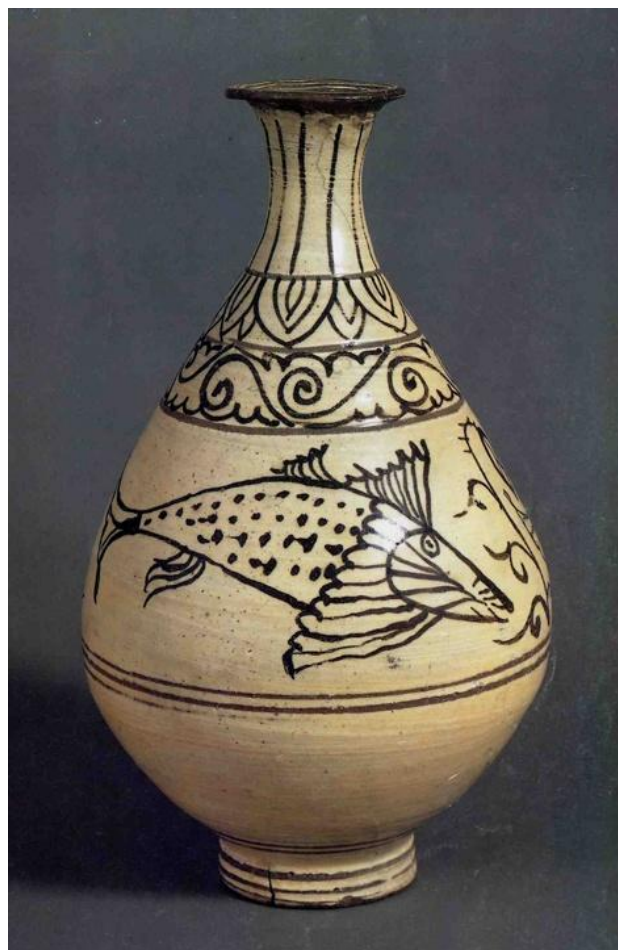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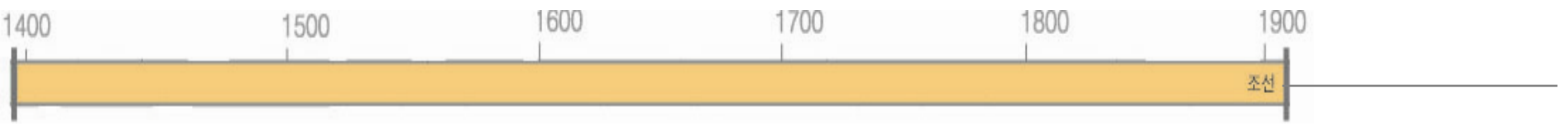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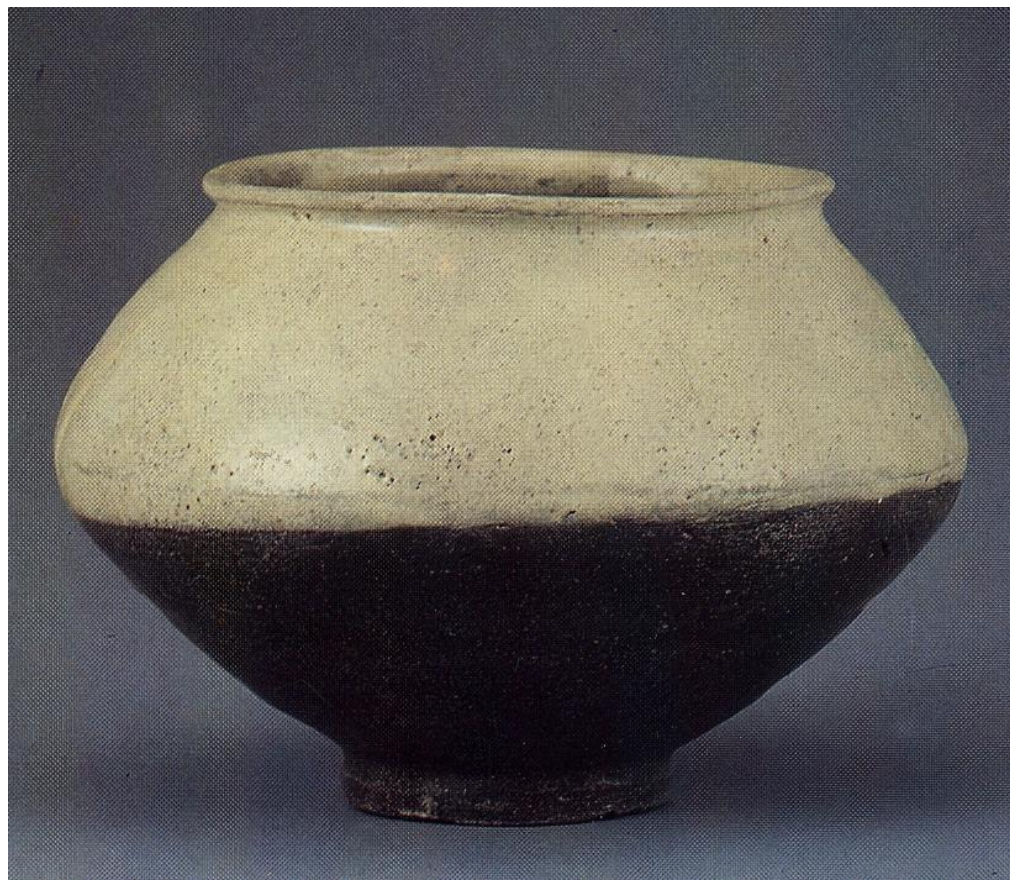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선



1400

1500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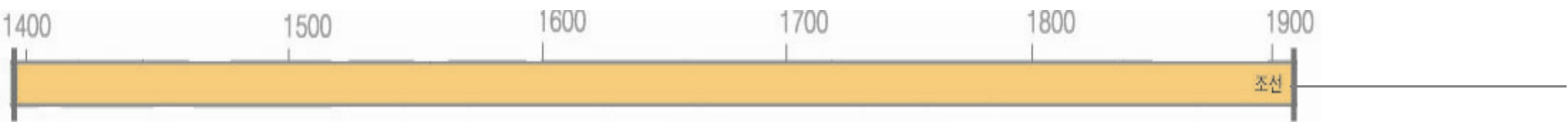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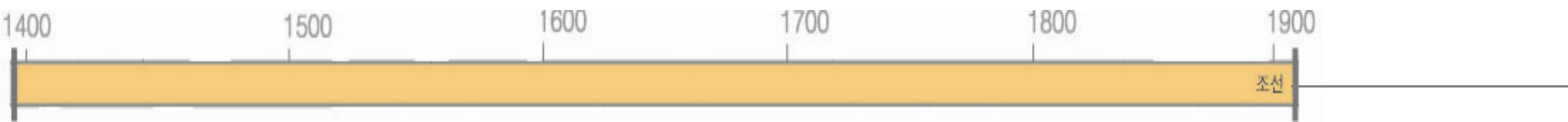
1800

1900

조선







1400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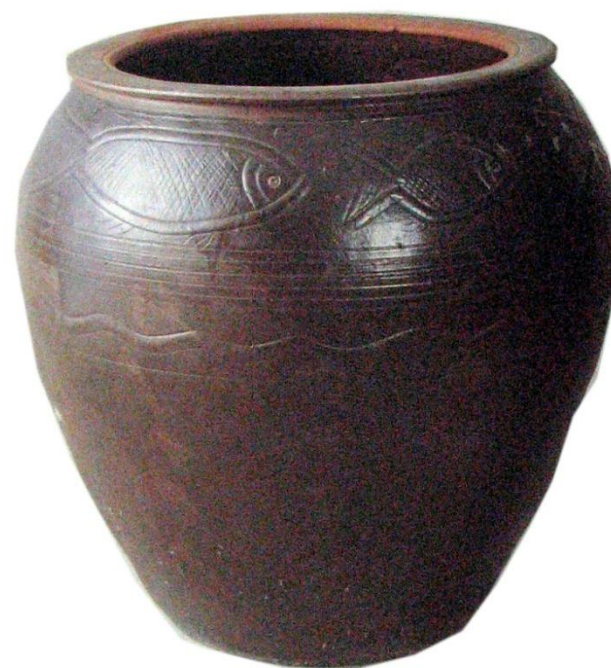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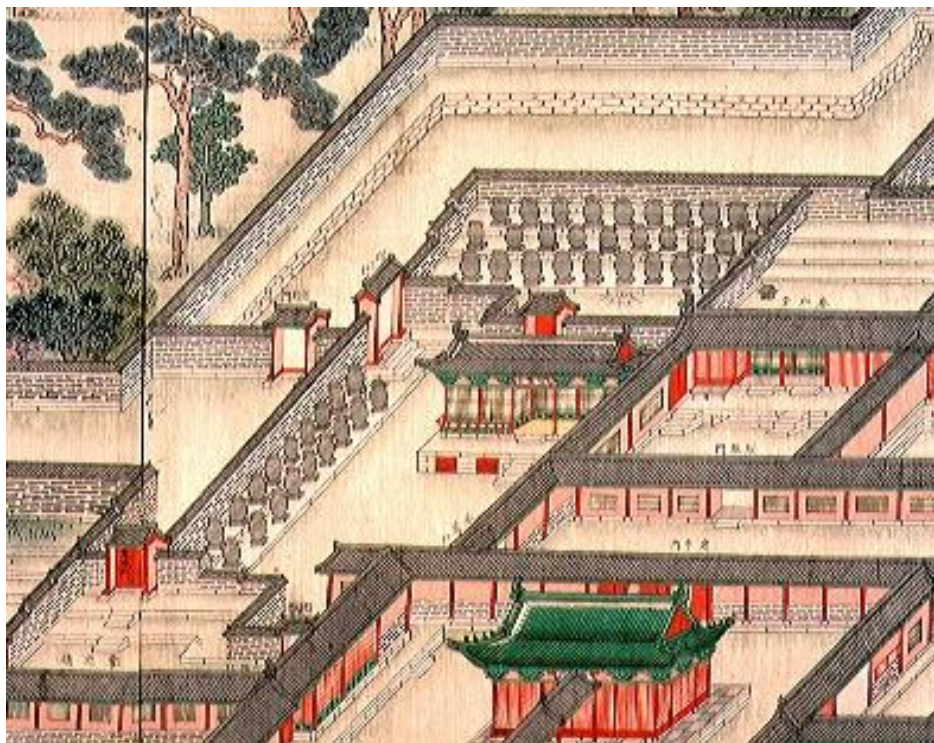
1600

1700

1800

1900

조선



감 사 합 니 다



2011 한국디자인DNA 세미나 목가구 DNA

2011.02.10

박영규 / 용인대학교

CONTENTS

01 한국 목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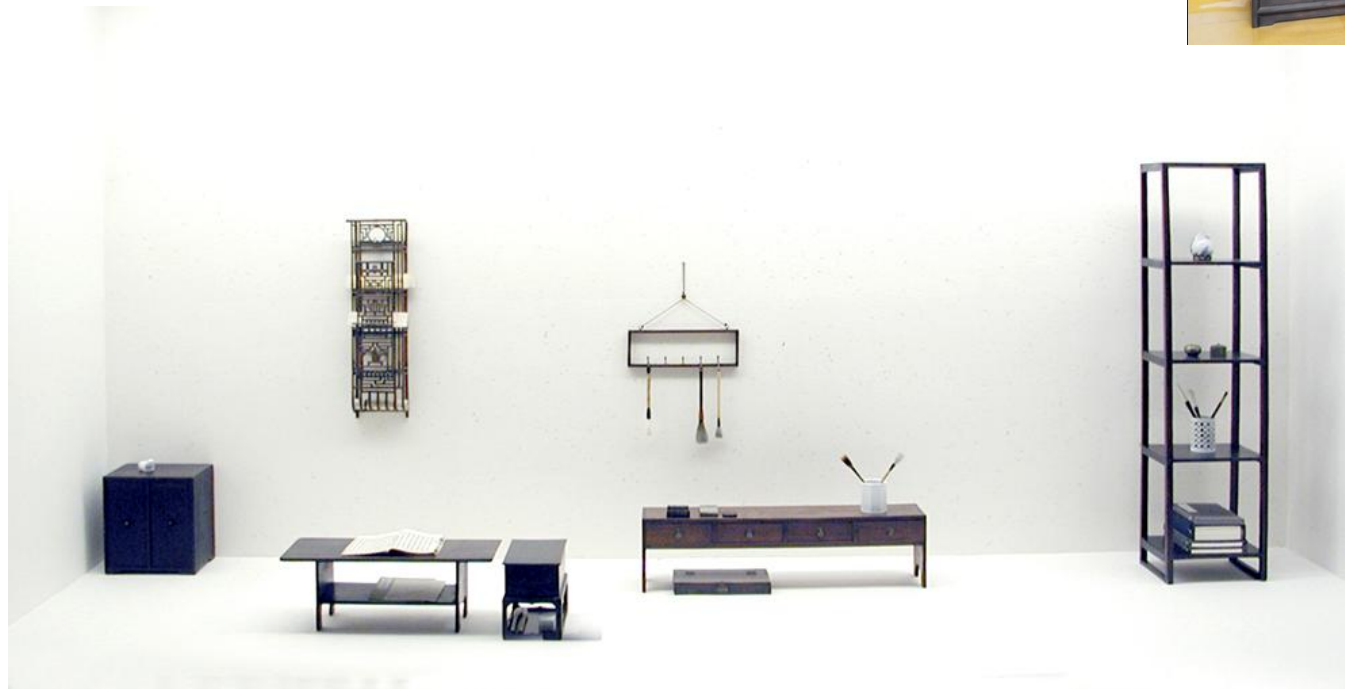
- 가. 지형적 특성
- 나. 기후적 특성
- 다. 주택구조의 특성

02 생활문화와 목가구

- 가. 선비문화와 사랑방가구
- 나. 규방문화와 안방가구
- 다. 주방문화와 부엌가구

03 대표디자인

- 가. 사랑방가구
- 나. 안방가구
- 다. 부엌가구



사랑방 가구배치

| 01 한국 목가구 특성

 1) 다양한 수종

- ✓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나무의 종류가 다양
- ✓ 가구재로 적재적소에 선택 사용

 2) 산맥과 강으로 지형이 나뉨

- ✓ 지방마다 독특한 언어가 발달하고
개성이 강한 생활문화권을 형성
- ✓ 지방색이 강한 개성이 뚜렷한 가구 발달
반달이 – 박천, 평양, 개성, 강화, 밀양, 진주, 고령, 제주 등
소반 – 해주반, 나주반, 충주반, 강원반, 통영반 등
장과 농 – 경기장, 보성장, 통영장, 전주장 등



1) 사계절

- ✓ 나이트가 아름다운 자연 나뭇결 형성
인위적인 조각이나 칠 대신 나뭇결을 살린
자연적인 순수한 아름다움
- ✓ 수축팽창에 대한 구조적인 복안
전면을 골재로 분할하여 짜임과 이음기법으로써
머름칸, 쥐벽칸, 복판 등 좁은 면들로 재구성
- ✓ 부판제작
무늬가 좋은 판재를 얇게 켜서 수축팽창이 적은
오동나무나 소나무 판재에 결을 엇갈려 붙인 후
골재에 끼워 수축팽창의 변화를 감당
작은 판재들로도 아름다운 목리를 구할 수 있고
가구의 하중을 줄이는데 효과적

 1) 유교적 관념에서 남녀유별의 이념

- ✓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남성 공간**
선비들의 인격을 수행하고 학문을 닦는 정신적인 면이 강조된
검소하고 안정된 공간
문방생활용품이 주류
- ✓ **안채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공간**
가정생활의 중심이며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온화하고 여성의 취향을 살린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
여성 및 가정생활용품이 주류

 2) 온돌난방 시스템

- ✓ 천정이 낮고 폭이 좁은 아담한 공간
- ✓ 평좌생활과 눈높이에 알맞은 크기의 가구 형성
- ✓ 벽면에 가구 배치

| 02 생활문화와 목가구

1) 선비문화와 사랑방가구



사랑방가구배치 1

2) 규방문화와 안방가구



사랑방가구배치 2

3) 주방문화와 부엌가구

부엌가구배치



| 03 대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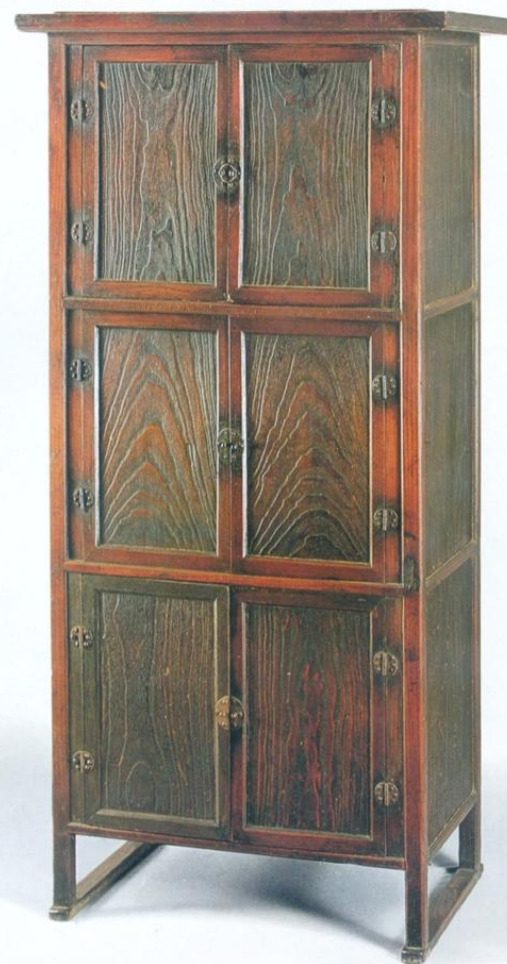
 사랑방가구 대표디자인 선정기준

- ✓ 한국의 역사성, 전통성과 한국적 미의식이 잘 반영된 가구
- ✓ 한국 목가구의 특성이 돋보이는 가구
- ✓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선비정신이 반영된
단순, 검소, 쾌적한 비례 등을 잘 갖춘 가구
- ✓ 적절한 목재 선택과 짜맞춤, 금속장식 활용 등
제작기법이 한국적 규격에 잘 적용된 가구
- ✓ 현대적 안목을 적용해도 뛰어난 디자인
미래의 한국적 가구에도 활용될 가능성

1) 책장

- ✓ 책을 넣고 꺼내기 편리한 구조와 기능
- ✓ 종이 재질 보관을 위한 오동판재
- ✓ 결이 좋은 오동판재를 낙동법으로써 자연미 연출
- ✓ 자연 목리를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감
- ✓ 무거운 책들을 넣어두기 위한
단단한 참죽나무로 된 굵은 기둥과 견고한 짜임
- ✓ 간결한 무쇠장식은 중후함 강조
- ✓ 선비용품으로서 쾌적, 검소, 묵직함을 표출.

18세기, 높이 134cm, 크기 72.6 x 4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 책장



반달이책장



이층장



낙동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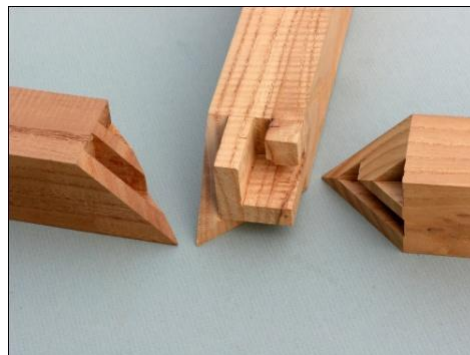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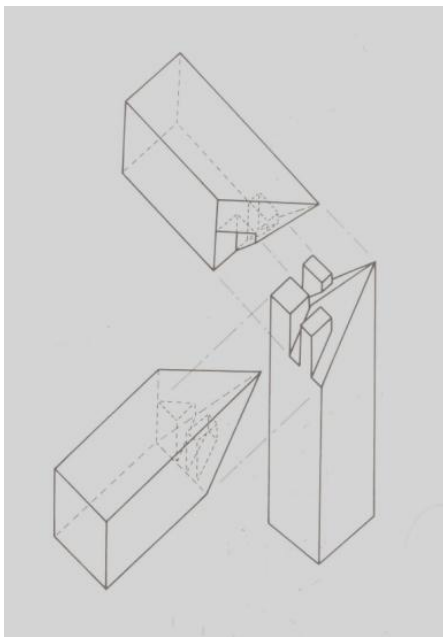
2) 삼층탁자

- ✓ 서책을 쌓아 정돈하는 용도 외에 여백을 살려 문방용품 장식
- ✓ 하단에는 기물들을 넣어두는 실용적 가구
- ✓ 간결한 선, 쾌적한 면분할과 비례미
- ✓ 자연 먹감나뭇결의 아름다움
- ✓ 소박하고 순수한 조선시대 목가구

19세기, 높이 138, 58x3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삼층탁자



숨은 연귀촉짜임



사층사방탁자



사층탁자

3) 장문갑

19세기, 높이 36.8, 22.5 x 14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 연적, 필통, 향꽃이 등 문방생활용품을 얹어 장식하는 간결한 구조의 사랑방가구
- ✓ 쾌적한 공간과 높직한 다리
- ✓ 공간을 너르게 보이게 하여 한층 효과적
- ✓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는 검소한 사랑방 분위기에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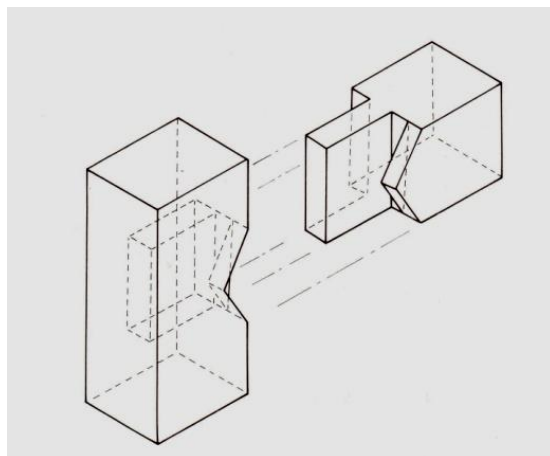
3) 문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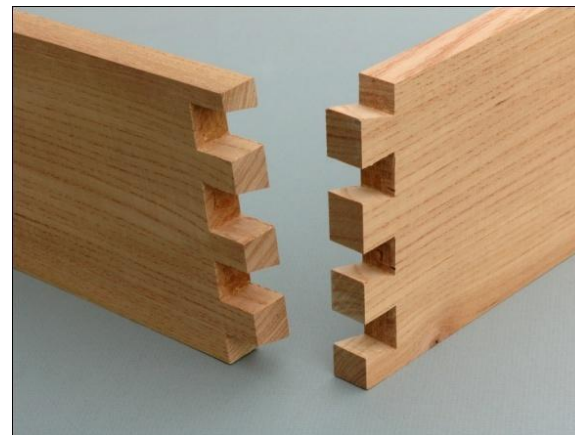
문갑



문갑



연귀촉짜임



사계물림

4) 서안

- ✓ 글을 읽거나 쓰기 위한 문방가구
주인과 내객來客 또는 연장자의 위치를
지켜주는 사랑방의 중추적인 가구
- ✓ 한 판의 긴 서랍 전면에
두 개의 동자로 삼등분 - 균제미
- ✓ 동자와 판각, 쇠목에 두 줄의 쌍사선
안상형 풍혈의 유연한 곡선
- ✓ 서랍 복판의 작고 단아한 주석장식은
가능한 금속장식을 배제하려는
검소하고 소박한 선비의 취향.



19세기, 높이 26, 60x2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 서안



서안



서안



서탁

경상
21

 안방가구 대표디자인 선정기준

- ✓ 한국의 역사성, 전통성과 한국적 미의식이 잘 반영된 가구
- ✓ 한국 목가구의 특성이 돋보이는 가구
- ✓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여성의 취향이 반영된 안정되고 화사함이 갖추어진 가구
- ✓ 적절한 목재 선택과 짜맞춤, 금속장식 활용 등 제작기법이 한국적 규격에 잘 적용된 가구
- ✓ 현대적 안목을 적용해도 뛰어난 디자인
미래의 한국적 가구에도 활용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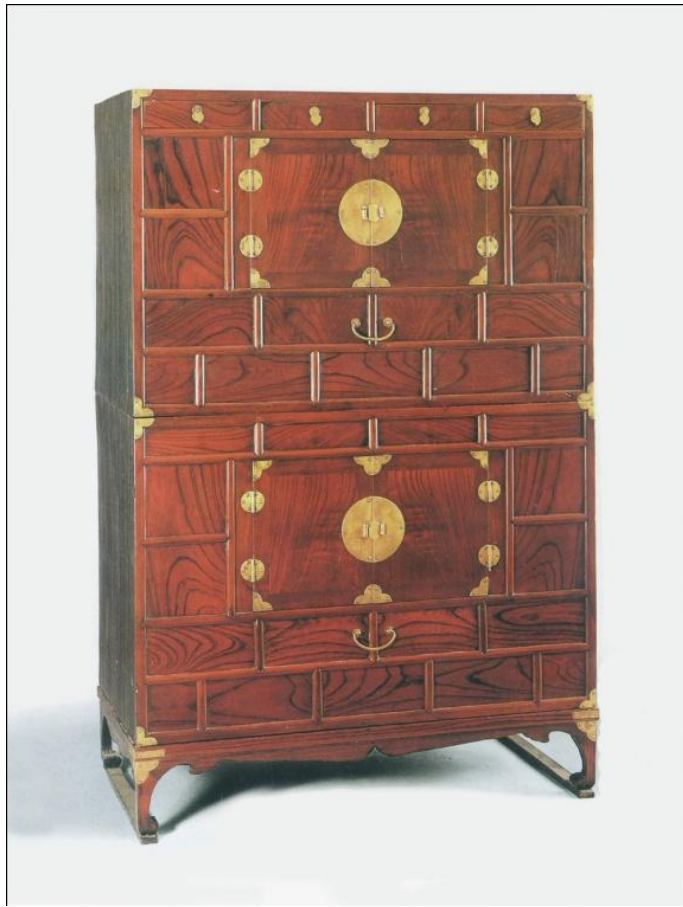
1) 삼층장

- ✓ 높이에 비해 가로 폭이 좁으며
전면의 쾌적한 면 분할과 어울려
건강한 공예미
- ✓ 아름다운 느티나무 판재의 순수한 물결이
강조되어 부드러움과 화사한 멋 연출
- ✓ 화사한 경첩과 자물쇠 앞바탕 장식들이
여닫이문판에 집중적으로 부착되어
단아한 멋



19세기, 높이 169, 95x48cm, 리움소장

1) 삼층장



이충농



이충농

2) 문갑

19세기, 높이 34, 25x85.7cm
숙명여대박물관 소장



- ✓ 전면은 자연적인 먹이 들어 있는 먹감나무 판재를 좌우 대칭하여 추상화를 그린 듯 한 효과
- ✓ 인위적인 정교한 조각보다는 순수한 자연 목리를 살리려는 한국 목가구의 특성을 잘 반영

3) 좌경

- ✓ 자연적 목리의 먹감나무 판재로 부드럽고 순수함
- ✓ 화사한 백동장식이 여성의 취향을 잘 반영
- ✓ 거울 주변의 단순한 변자와 실패형 경첩, 거털잡이장식 등 경상도 지방산 특징



19세기, 높이 26, 15.3x20.5cm,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3) 좌경



좌경



나전좌경

 부엌가구 대표디자인 선정기준

- ✓ 한국의 역사성, 전통성과 한국적 미의식이 잘 반영된 가구
- ✓ 한국 목가구의 특성이 돋보이는 가구
- ✓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부엌가구의 쾌적한 비례와 건강하고 튼튼함이 갖추어진 가구
- ✓ 적절한 목재 선택과 짜맞춤, 금속장식 활용 등 제작기법이 한국적 규격에 잘 적용된 가구
- ✓ 현대적 안목을 적용해도 뛰어난 디자인
미래의 한국적 가구에도 활용될 가능성

1) 호족반

- ✓ 사용하기 편리한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견실한 구조의 짜임
-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기본형
높고 길게 뻗은 호족이 날렵함, 자신감
- ✓ 은행나무에 옷칠



19세기, 높이 37.1, 경 52.5cm, 개인 소장

1) 호족반



호족반



구족반



구족반



궁중수라상



호족반



호족목판

2) 해주반

- ✓ 천판은 능형으로 깊게 파내어 부드러운 모습의 변죽을 형성.
- ✓ 판각은 약간 외반 되게 밖으로 뺀어 하중을 많이 받고 시각적 안정감
- ✓ 卍字, 모란, 꽃과 나비, 파초, 문자 등 다양한 투각무늬 가볍고 경쾌함
- ✓ 양 판각과 상판 사이를 고정시키는 초엽형운각은 단아한 멋



19세기, 높이 30, 46x37cm, 개인 소장

2) 해주반



나주반



통영반



강원반

3) 이층찬장

- ✓ 무거운 유기나 자기 그릇의 하중을 충분히 감당하고
음식 냄새로 인한 쥐나 좀이 쏘기 쉬움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가 필요
- ✓ 전형적인 이층찬장의 면 분할 형식과 구조
- ✓ 여닫이문 중간에 중대를 설치하여 좌우의 가로동자와 일직선의
단순한 화면 구성
- ✓ 습기에 강하고 단단한 소나무의 굵은 골재와
무늬가 높은 느티나무 판재를 함께 사용
묵직하고 건강한 미



19세기, 높이 136.5, 111x5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이층찬장



온양민속박물관 대청



삼층찬장

4) 이층찬탁

- ✓ 그릇을 쌓는 찬탁, 음식을 넣는 찬장
부엌의 중추적 역할
- ✓ 소나무의 굵은 기둥과 두꺼운 판재 - 신뢰성
- ✓ 중간층의 미닫이문은 골재 분할 없이
나뭇결이 고운 참죽나무 판재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구성된 탁자에 부드러움과 장식효과
- ✓ 천판과 아래 층널에
풍혈을 달아 시각적인 안정
- ✓ 굵은 선, 각 층의 면분할, 자연 목리 등이
쾌적하고 단순하며
건강한 한국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표출



19세기, 높이 153, 92.4x36.8cm,
개인 소장

| 감사합니다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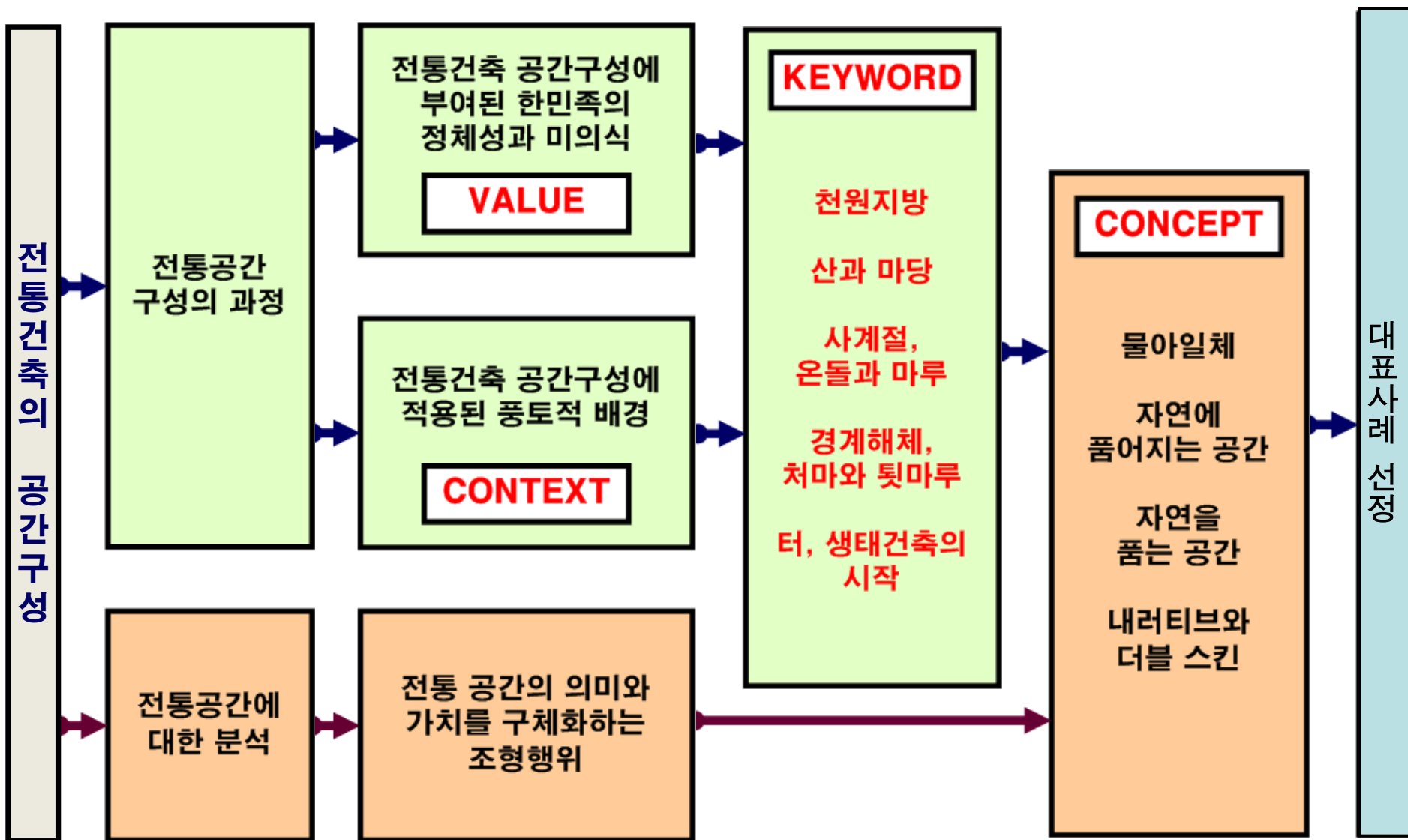




연구 개요

1.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구성은 동서양은 물론이고 한중일 삼국의 공통성과 차이를 다채로운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그 다양한 면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그 동안의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적인 관점의 새로운 화두로 재생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2.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분석을 통해 현재보다는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는 동시에, 범세계적인 가치가 내재됨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최종적으로는 한국디자인 특성 개념 도출하여, **전통공간에 담긴 한국인의 DNA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증**하고, 이 기준으로는 전통공간 구성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의 창조적 사고방식과 함께,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추천**하여, 전통건축공간이 현대디자인에 발현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요소들을 실례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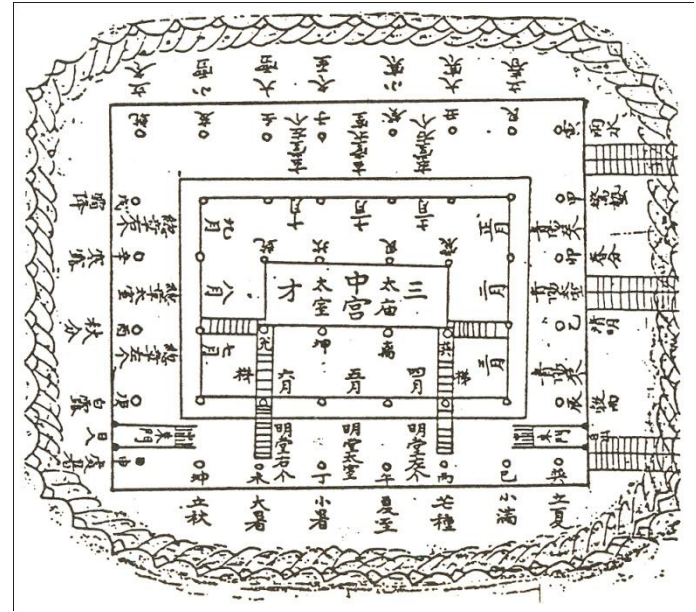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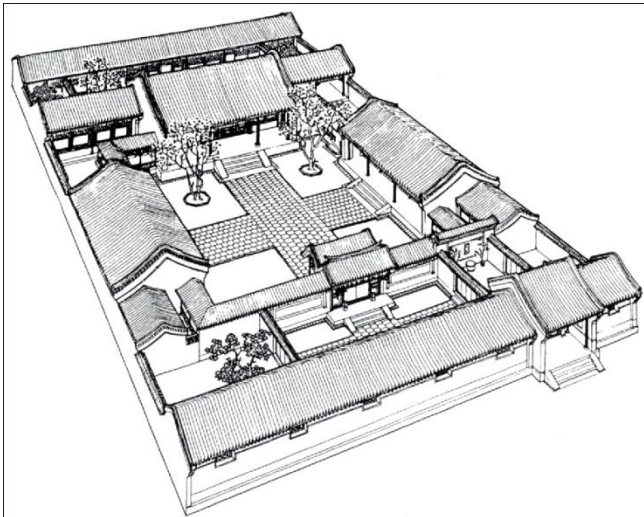
전통건축 공간구성의 기초연구

천원지방 (天圓地方)

1. 동양철학에서 하늘은 양(陽)이며, 땅은 음(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티브로서, 천원지방이라는 사자성어 자체가 **음양오행설**과 **팔괘의 기본원리 표방**
2. 작게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재와 부재들, 크게는 건물과 건물들, 궁극적으로는 건축물들과 자연과로 이어지는 **조화**라는 화두로 천원지방 사상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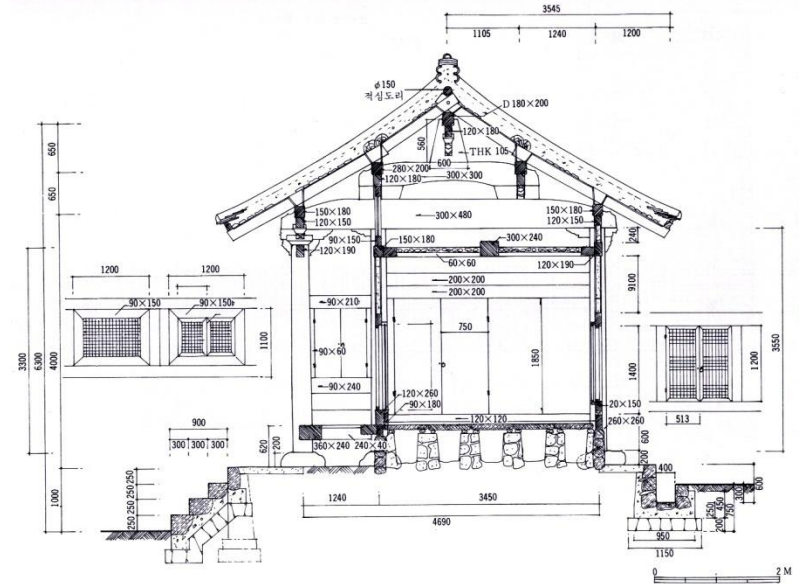
1. 마당은 한국 전통건축의 외부공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2.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므로 대부분의 집들이 평지 보다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기에, 마당의 넓이가 제한됨
3. 이에 회랑과 담으로 경계를 나누지 않고, 자연 경사로 형성된 여러 개의 마당들에 의해 영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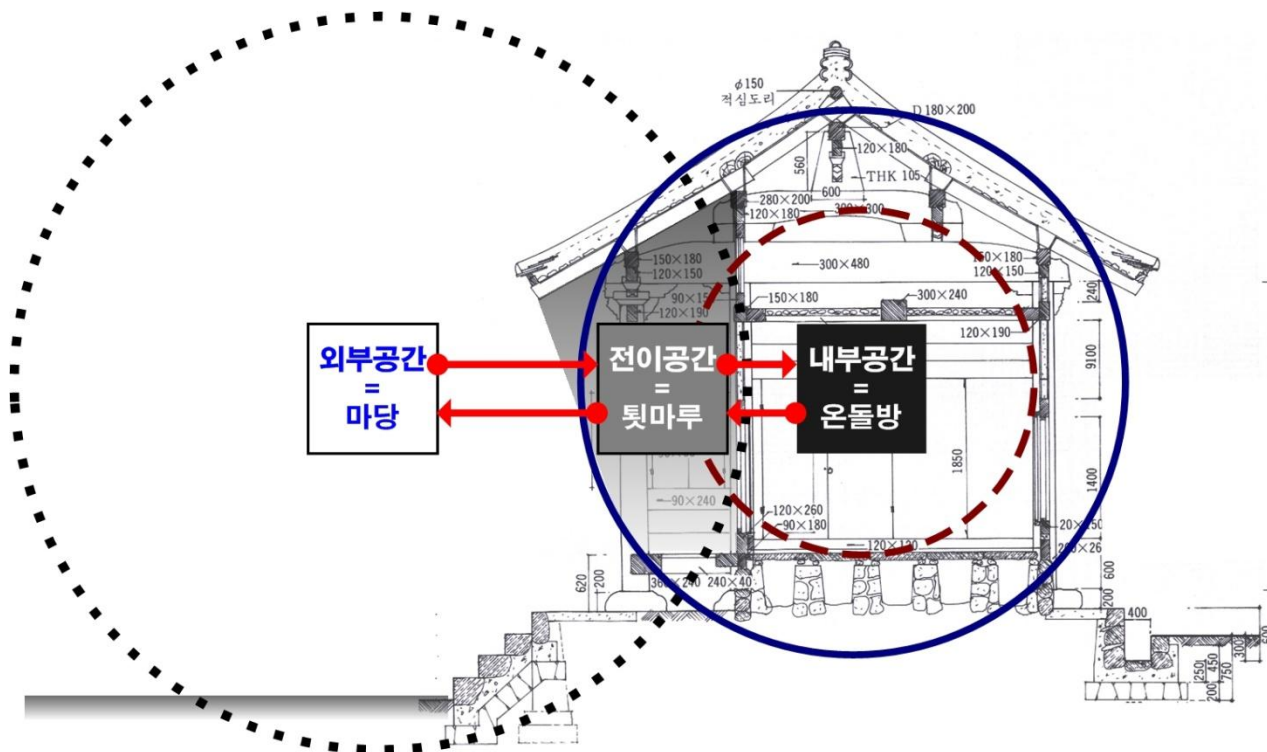
사계절(四季節), 온돌과 마루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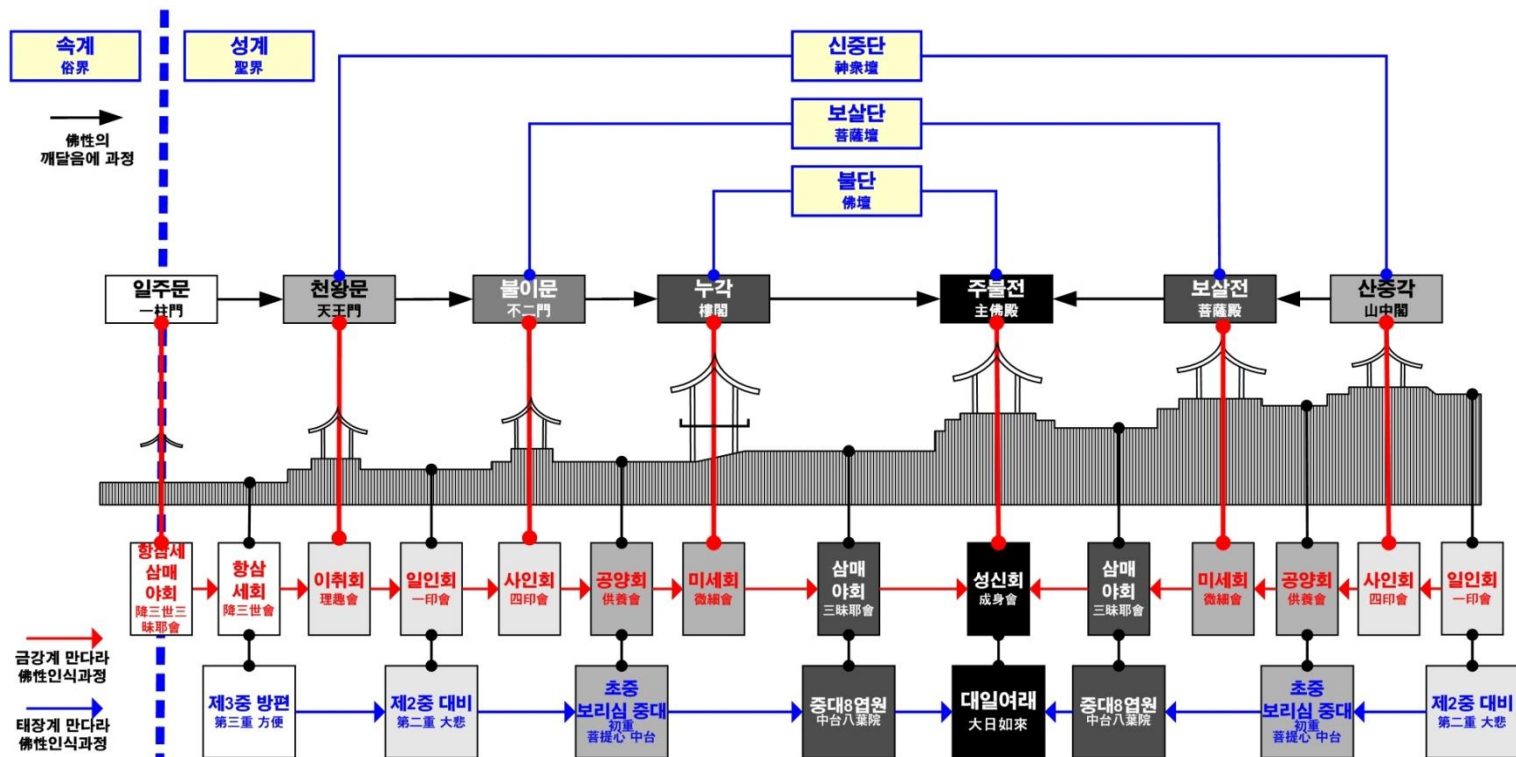
1.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로 인해 **마루와 온돌이 한국 전통건축의 내부공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2. 신분상으로 상층이 사용하며 온난기후를 대표하는 마루와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하층민의 온돌이 **같은 높이로 구성된 내부공간은 한국의 전통건축이 일본과 중국의 그것과 차별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3. 온돌은 구들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나 폭에 한계를 가지고, 마루는 각 방을 이어주는 동선이 존재하는 곳이면서도 그 공간 자체의 쓰임새가 있음



1. 현대 건축가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경계해체의 개념은 **한국 전통건축의 처마와 툇마루**에서 찾을 수 있음
2. 온돌은 외부공간인 마당과 내부공간인 온돌방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툇마루는 외부도 내부도 아닌 중간영역의 공간으로 **현대건축의 전이공간에 해당**
3. 처마 역시 외부라고 하기에는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고, 내부로 보기에는 전면이 열려있기에 툇마루가 가진 전이공간의 성격을 강화



1. 현대건축 이론 중 생태건축의 중요 개념 중에는 자연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이 주요 개념
2. 한국 전통건축에서는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제일 처음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좋은 땅을 찾는 방법으로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론을 성립
3. **한국의 산지가람** 역시 복잡다단한 불교의 교리를 실제 공간인 산과 결합시킴으로써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대표적인 한국 전통건축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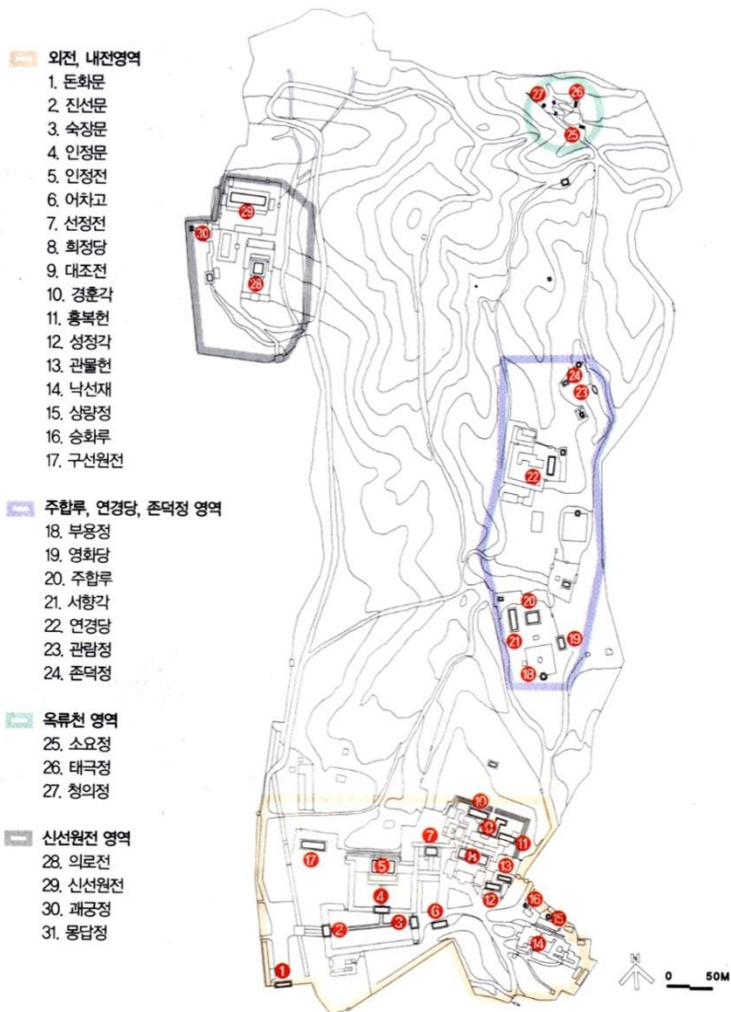


대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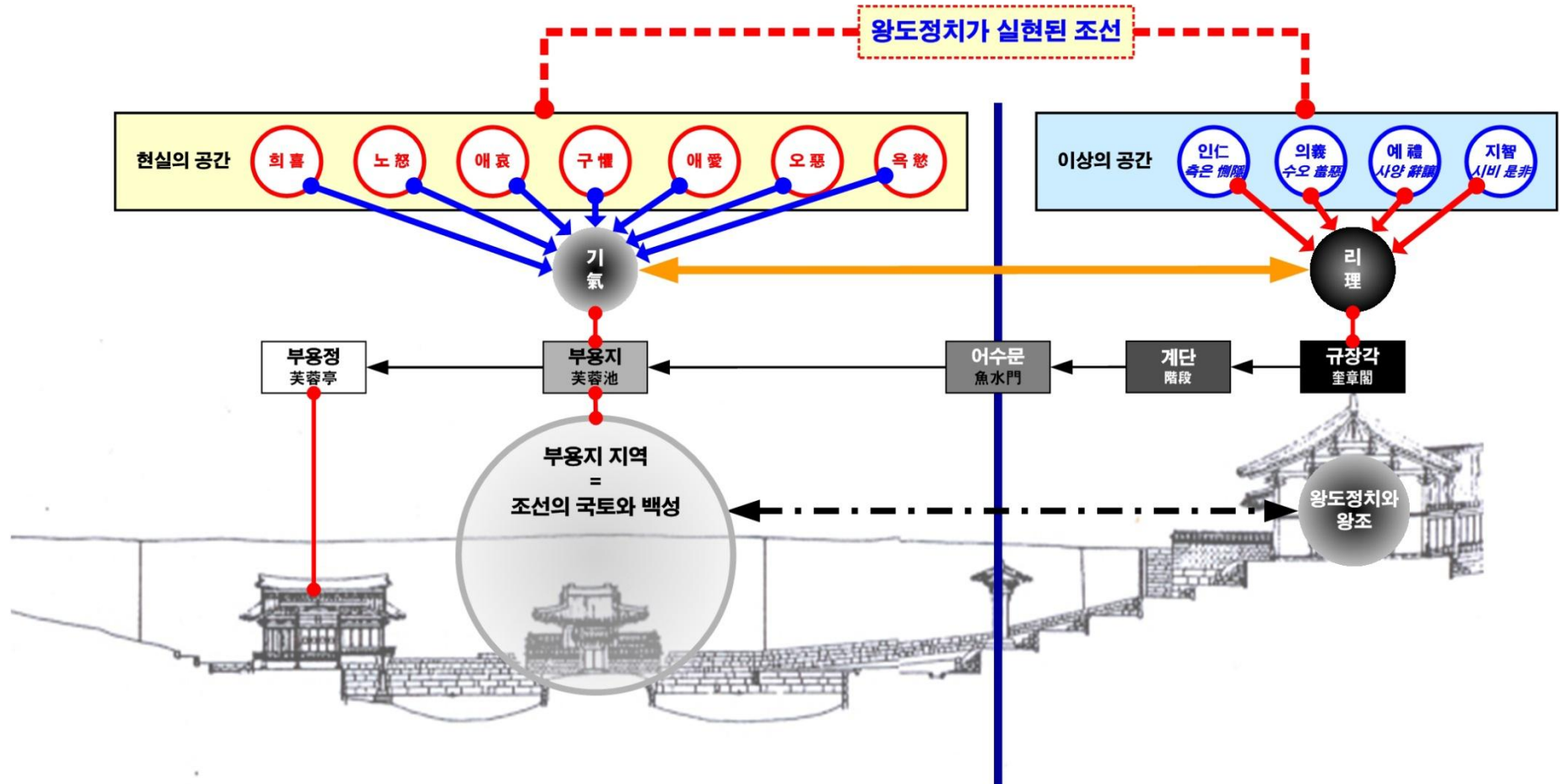
1. 연구 분석에서 도출된 한국 전통건축 공간의 다섯 가지 키워드인 **천원지방.마당.온돌과 마루.툃마루.터**는 형이하학적인 물질계와 형이상학적인 정신계를 하나로 만든 물아일체의 지혜가 담긴 건축공간 기법
2. 이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두루 갖춘 한국 전통건축 공간의 대표적 디자인 선정에 있어서는 흔한 궁궐과 사찰, 민가 등의 구분보다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때 내부와 외부공간을 나누어 분석한 원점으로 피드백하여, 지세와 기후, 토양 등을 포함한 **자연에 품어지는 외부공간과 자연을 품는 내부공간으로 나누어 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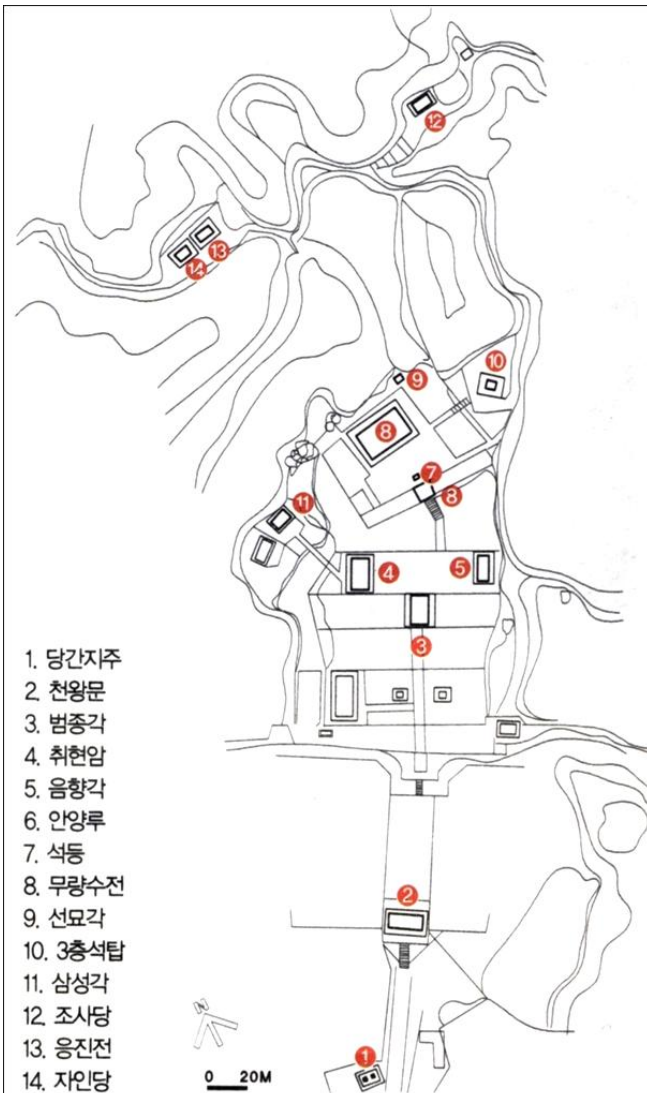
창덕궁 - 터, 마당, 천원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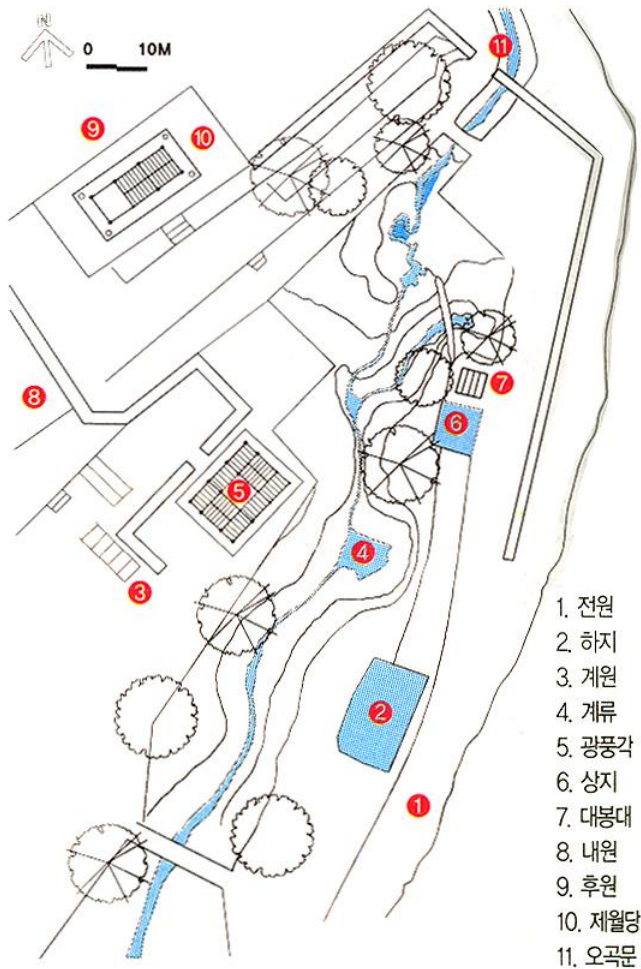
창덕궁 - 터, 마당, 천원지방



부석사 - 마당, 터, 툃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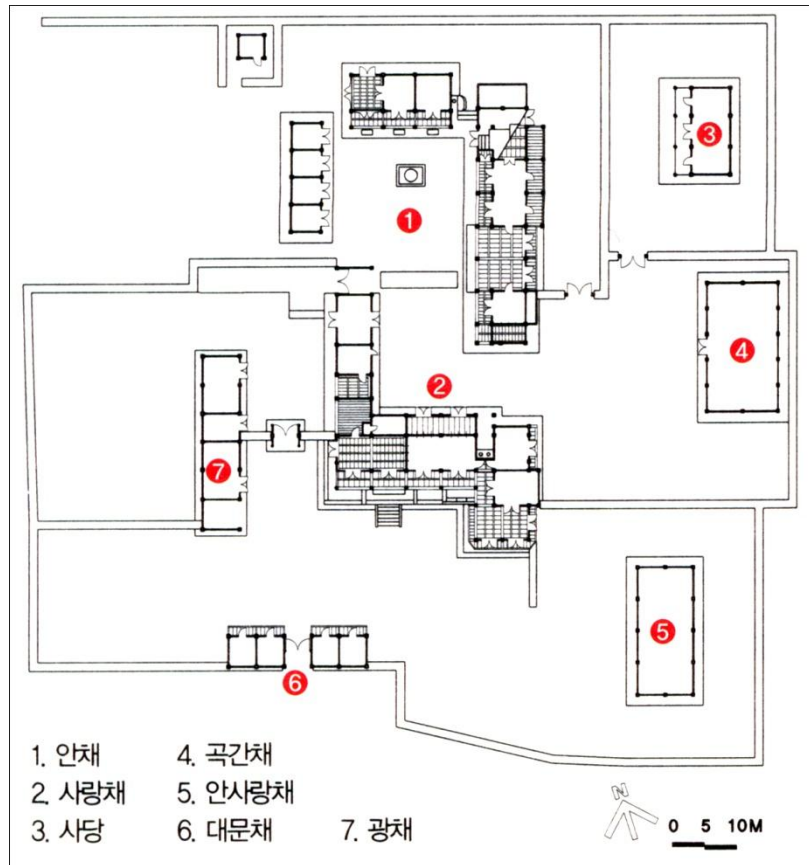


소쇄원 - 마당, 온돌과 마루, 툇마루



자연을 품는 내부공간

함산 정병호 가옥 - 온돌과 마루, 툇마루, 마당



전통건축의 미의식과 현대공간 연구

대표 전통 건축

김 개 천

국민대 조형대학 교수

유가의 조형사상과 미의식

天人合一

질서와 동화

美와 善의 통일

포괄적 전체성

도, 불가의 조형사상과 미의식

無爲而無不爲
무형상의 형상
혼재된 무경계
속박이 없는 자유
시, 공간의 초월

유,도,불가의 조형사상과 미의식의 총합

天人合一

질서와 동화

美와 善의 통일

한계 없는 전체적 형식

無爲而無不爲

무형상의 형상

시, 공간의 초월

대표 전통 건축

조선시대 국보건축

종묘 국보 227호

경회루 국보 224호

진남관 국보 304호



受妻
無言謝
當發却
為口實又
若有人強要

摩不至祥

尋一康此是維

中其閑門竟二

偶與寫出情

不意之則也三年

為之世亦得知
那以好之也
題

題

景山見
不可有二仙
為道
敬筆口



종묘



天人合一 : 인간과 신 그리고 자연이 동일시 되는 구조
질서와 동화 : 저절로 얻어진 듯한 완벽하고 단순한 심원
美와 善의 통일 : 제례는 내포된 교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
한계 없는 전체적 형식 : 무한을 바라보게 하는 외부 없는 내부
無爲而無不爲 : 건물은 단순한 일 획 같이 투명하고 없는 것처럼 있다
무형상의 형상 : 아무 것도 없는, 인위를 떠난 무(無)의 형식
시, 공간의 초월성 : 경계가 있는 동시에 없으며 모호한 동시에 분명함









경회루



天人合一 : 천지(天地)의 원리를 펼치는 천중(天中)의 공간

질서와 동화 : 하늘과 건축이 합일 된 듯, 우주적 순수의 장엄함과 텅 비어 있음의 화려한 대비

美와 善의 통일 : 세 겹으로 된 직선의 평면 틀로서 비워서 만상을 담아낸 맑고 깊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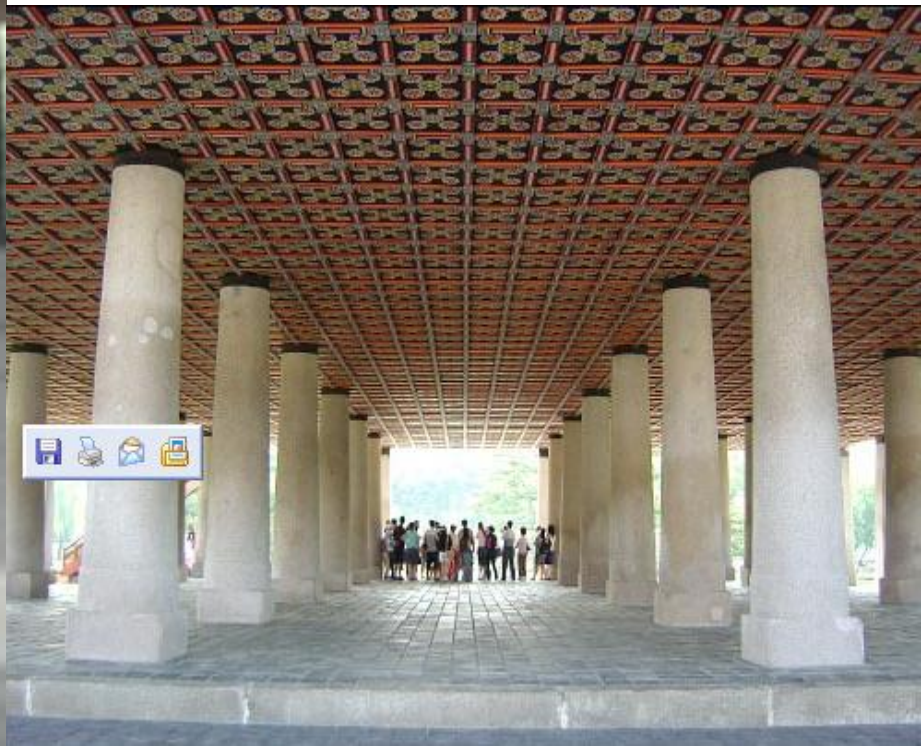
한계 없는 전체적 형식 : 혼연일체의 조화를 이루는 우주가 되어 다시 우주를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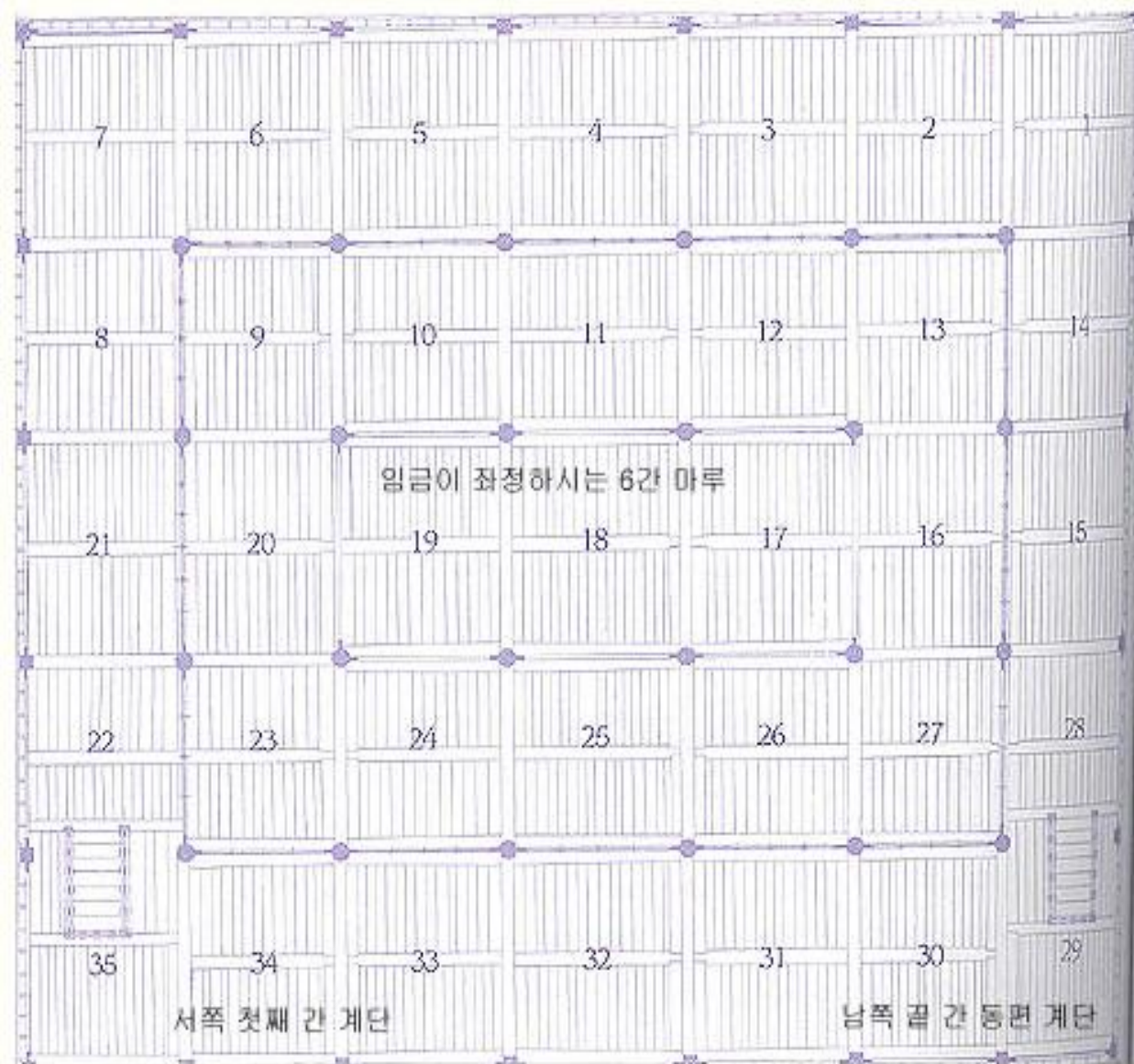
無爲而無不爲 : 말없이 묵묵한 통명(通明)의 건축, 알 수 없는 세계

무형상의 형상 : 점과 선 그리고 허공으로 만들어진 우주를 비추는 환영

시, 공간의 초월성 : 전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워, 육중하고 고요히 떠 있는 듯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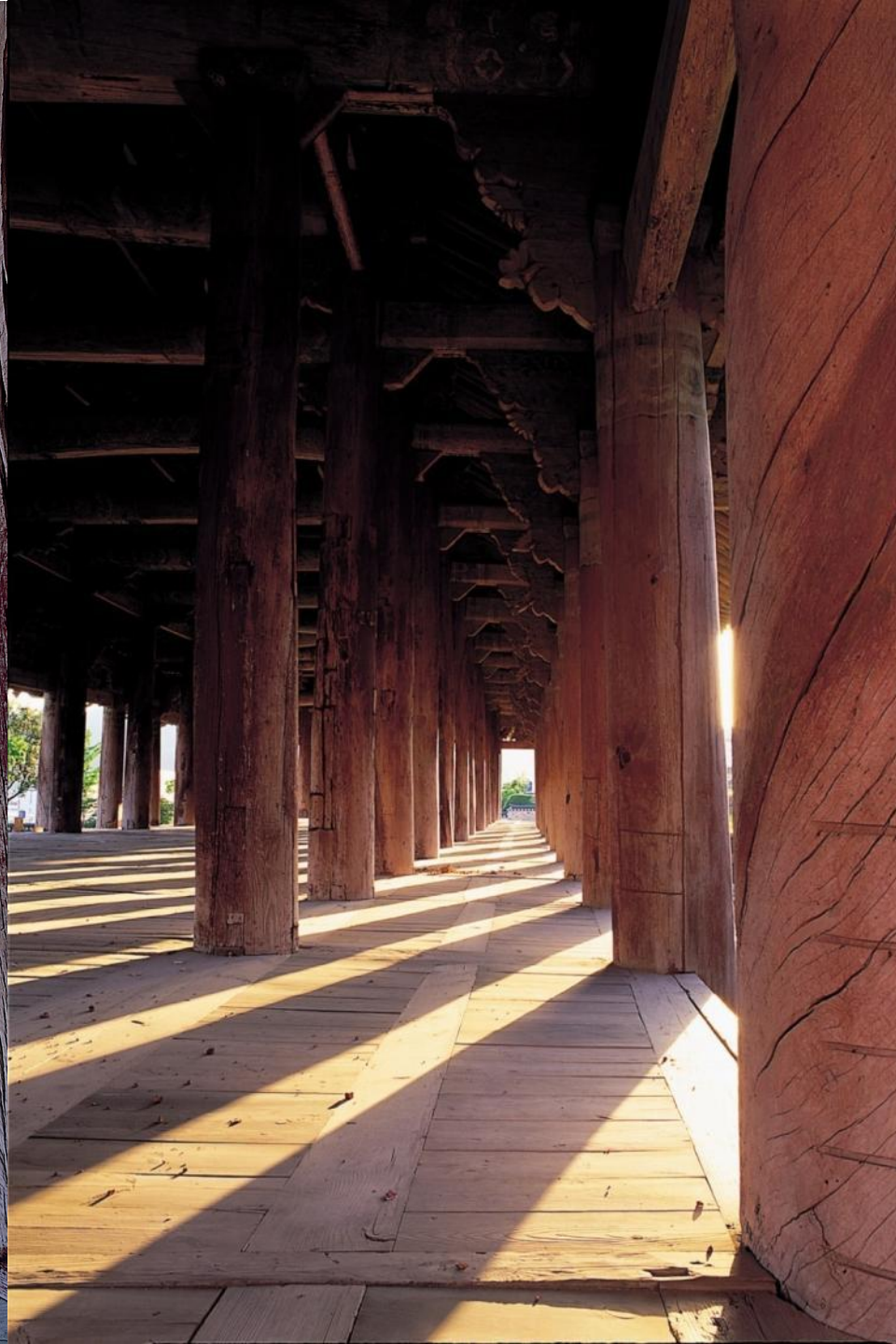
진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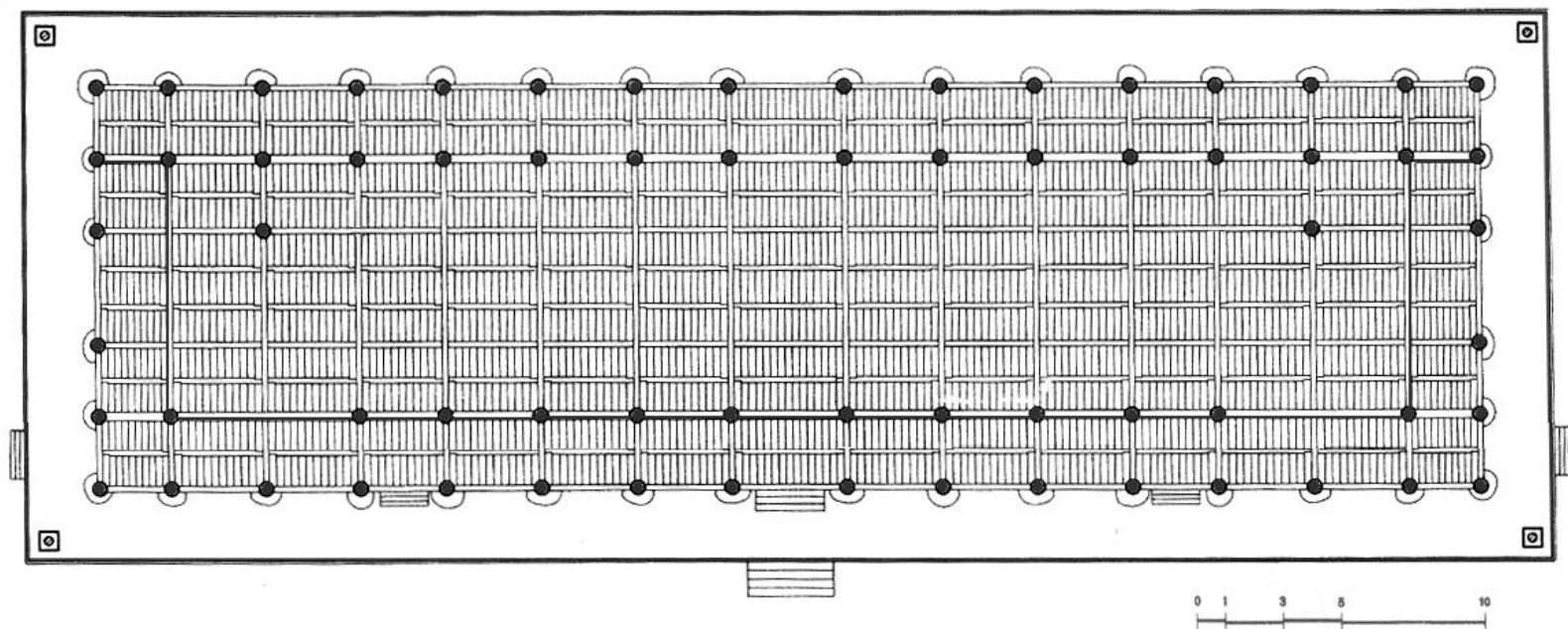
天人合一 : 인간이 천지와 참의(參議)하는 창조 이전의 창조
질서와 동화 : 자연스러운 경지의 인위적 행위, 완전한 행위
한계 없는 전체적 형식 : 유연하고 탄력적이기에 구속하고 한정 짓지 않는 자연과 같은 경지
無爲而無不爲 : 거의 없는 듯한 상태로 거의 가득 찬 상태, 충만함인 동시에 비어있음
무형상의 형상 : 기동만으로 차 있는 무(無)를 이룩한 유(有), 만 칸의 거대한 허공
시, 공간의 초월성 : 질량과 간극을 초월한 관대한 단순함이 만들어낸 우주 같은 건축













세계 속의 찬란한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온돌과 마루

.....

2011.2.10.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차 례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온돌과 마루의 배경요소

III. 온돌의 개념 및 원리

IV. 디자인 특성

V. 대표사례

I .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 20세기 선진화를 위한 급격한 경제발전은 서구화된 현대사회와 문화를 급속하게 발전 시켰다. 점차로 우리 전통문화는 전통이 아닌 인습처럼 급격히 배척되었다.
- ❁ 21세기 서구식 경제와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문화를 계승하여 세계화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전통문화의 수용에 대한 필요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유형분류, 분류에 따른 Data Base구축, 특성도출 등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디자인DNA 발굴·구축의 연구 사업으로 수십 년 연구되어지고 축적되어온 전통문화를 체계적 분류와 자료화, 그리고 활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특히 전통건축에서 온돌과 마루의 분야로, 온돌과 마루의 역사, 전개와 발전, 그리고 현대의 응용에 이르는 연구를 통해 우리 주거문화 구성요소의 중심요소인 온돌과 마루의 디자인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 ❁ 온돌과 마루와 생활문화의 상관관계, 그리고 온돌과 마루에 담겨진 과학적, 기술적 원리 발굴 연구를 통한 디자인 특성 개념을 기준으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한국디자인DNA를 구축한다.

II. 온돌과 마루의 배경요소

1. 풍토적 배경



투루판의 위구르인들의 쪽구들



가야의 가형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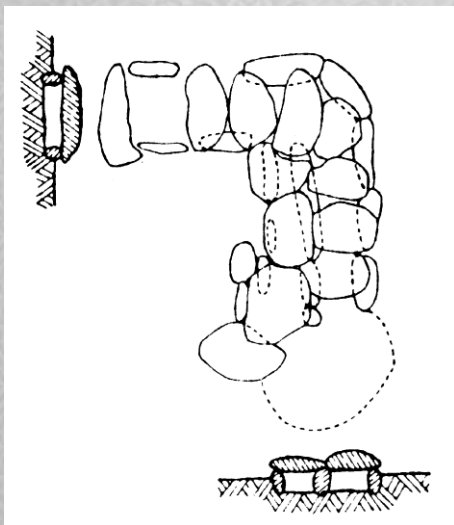


부여 부소산성 내 움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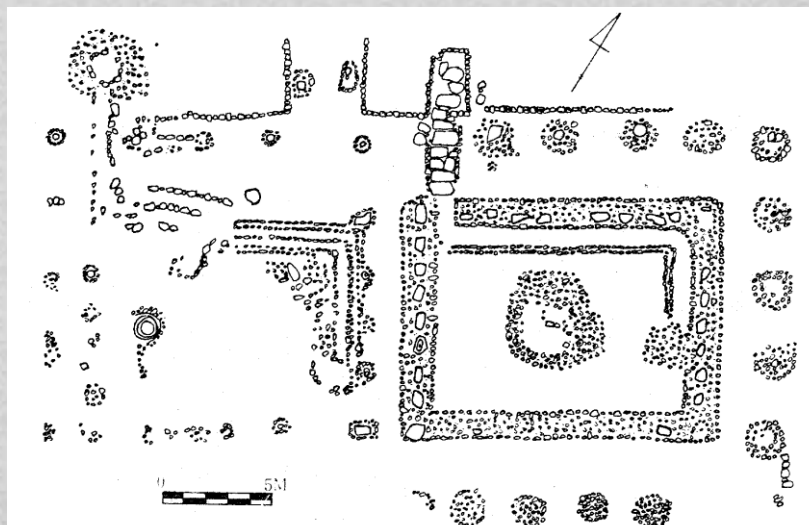


온돌고래(회암사지)

2. 시대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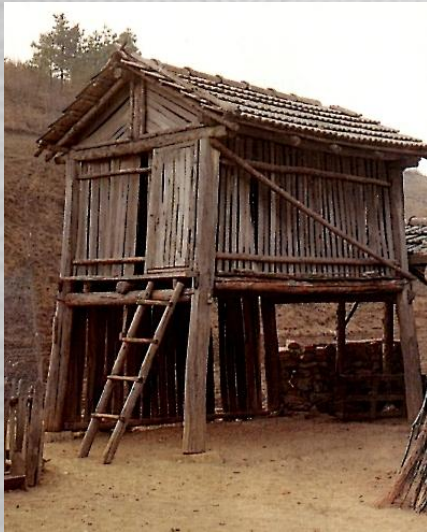
북창 대평리 주거지
의 ㄱ자형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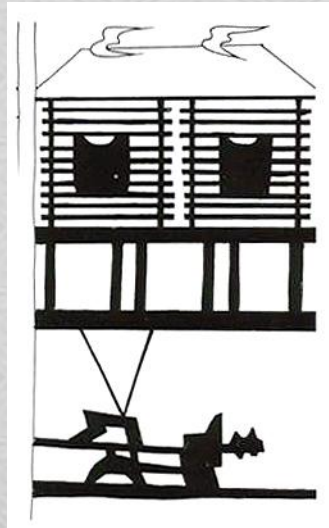
집안 동대자 유적지 평면



안악 제3호분
부엌간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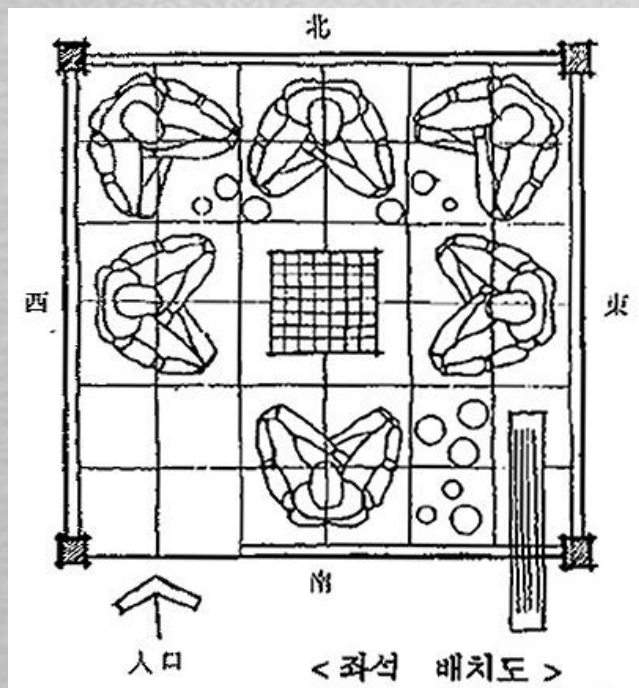
만주지방
주택의 부경



마선구
제1호분 벽화



고구려 벽화고분의 상 모습



사륜정기 추정 배치도



홍국사 대웅전 내부 마루



맹사성 고택 정면

3. 문화적 배경



예안이씨 충효당의 쌍수당



옥천향교 명륜당

Ⅲ. 온돌과 마루의 개념과 원리

1. 생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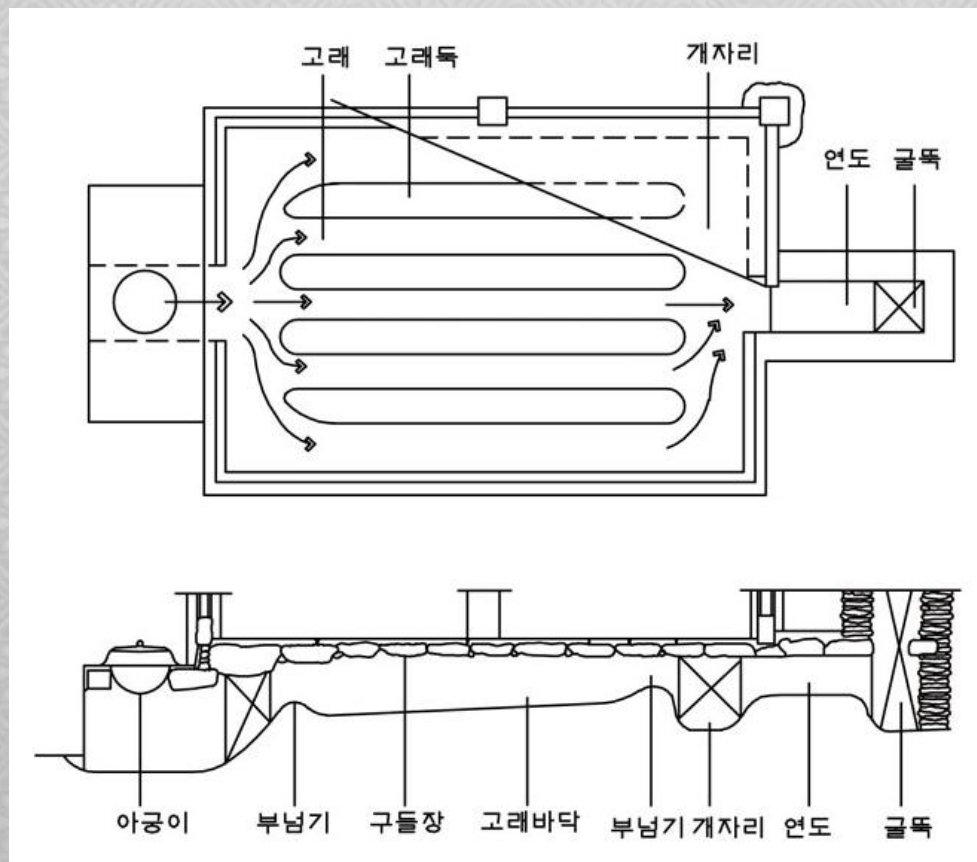


양동마을 무침당의 틈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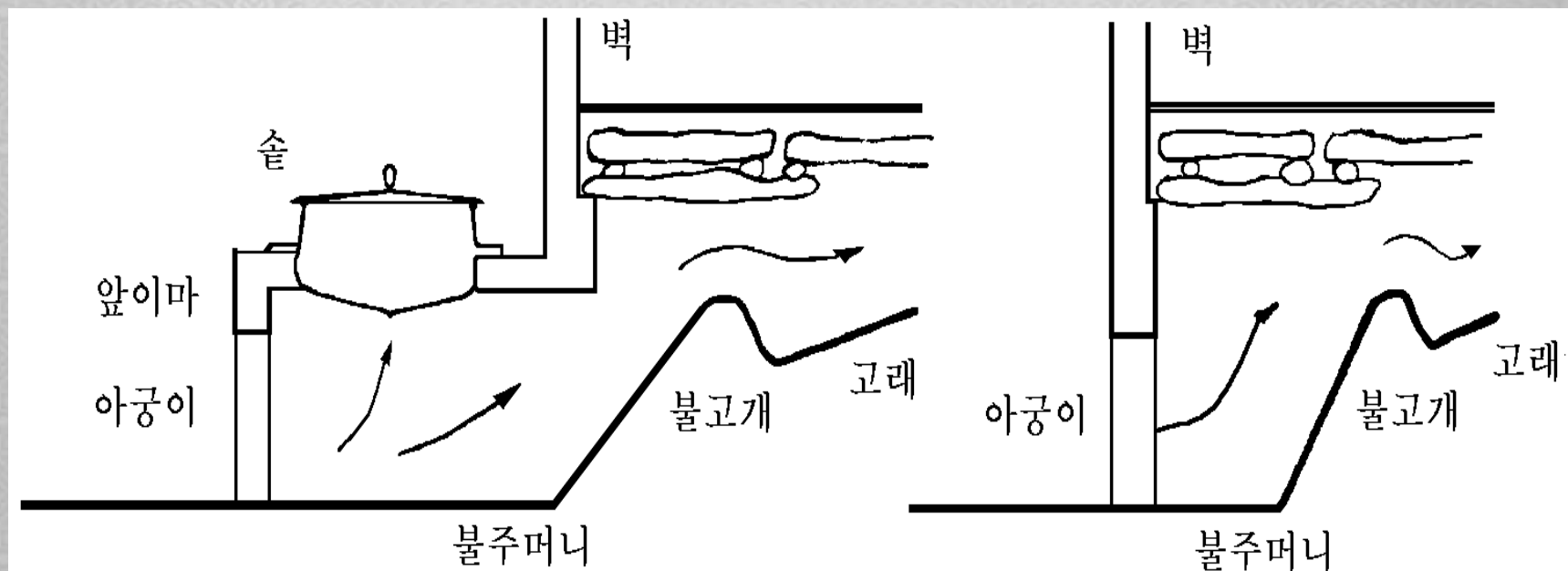


운현궁 부엌

2. 과학, 기술적 원리



온들의 기본 구조



부뚜막식 아궁이와 함실식 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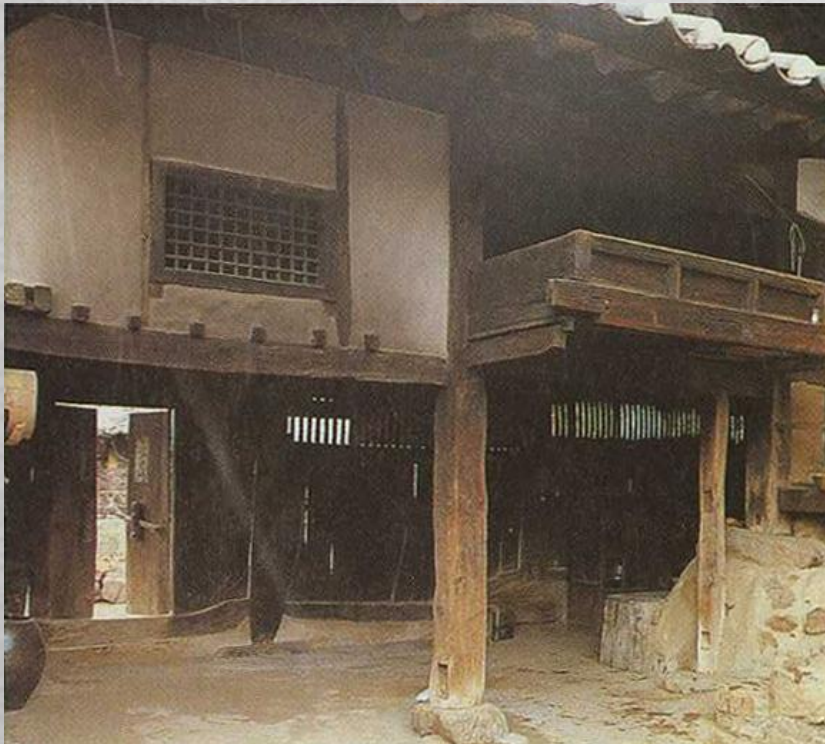


정주간



정여창고택 안채 대청

3. 고유성



추사고택 부뚜막 위 다락의 귀틀



추사고택 부뚜막
위 다락의 귀틀

IV. 디자인 특성

1. 위계(Hierarchy)의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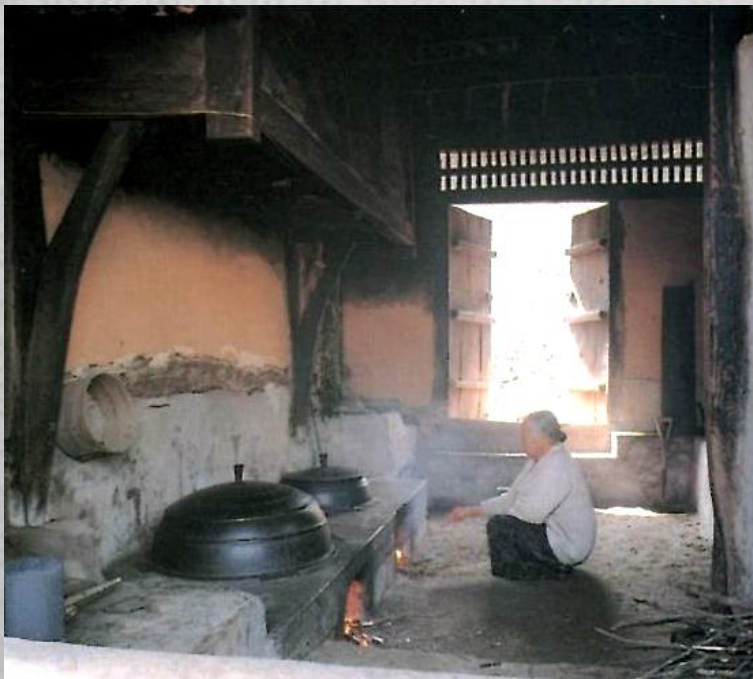


양동마을 관가정의 안채 대청



홍국사 대웅전

2. 생명의 연속성(Continuity)



불 지피는 부뚜막



윤종고택 안방과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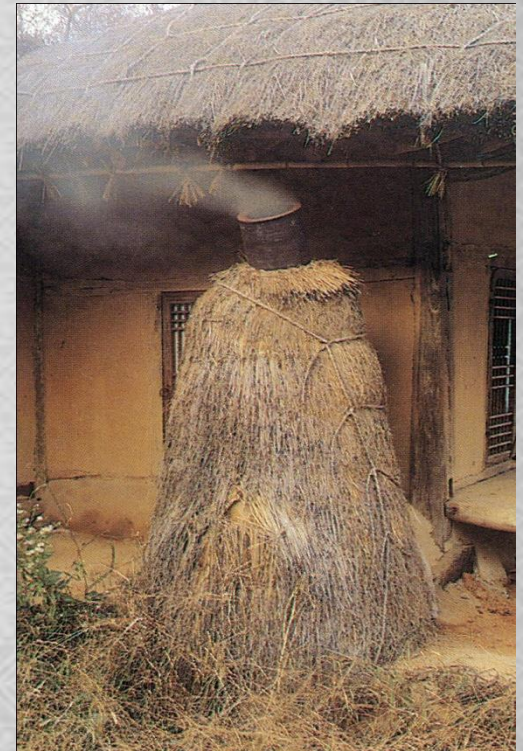
3. 자연과 인공의 생태적 어울림(Ecological Harmony)



윤선도고택의 굴뚝



어명기가옥의 굴뚝



민가의 이영장식 굴뚝

4. 정(靜)과 동(動)의 상징성(Symbolism)



창덕궁 후원 부용정



부용정의 평난간(좌)과 계자난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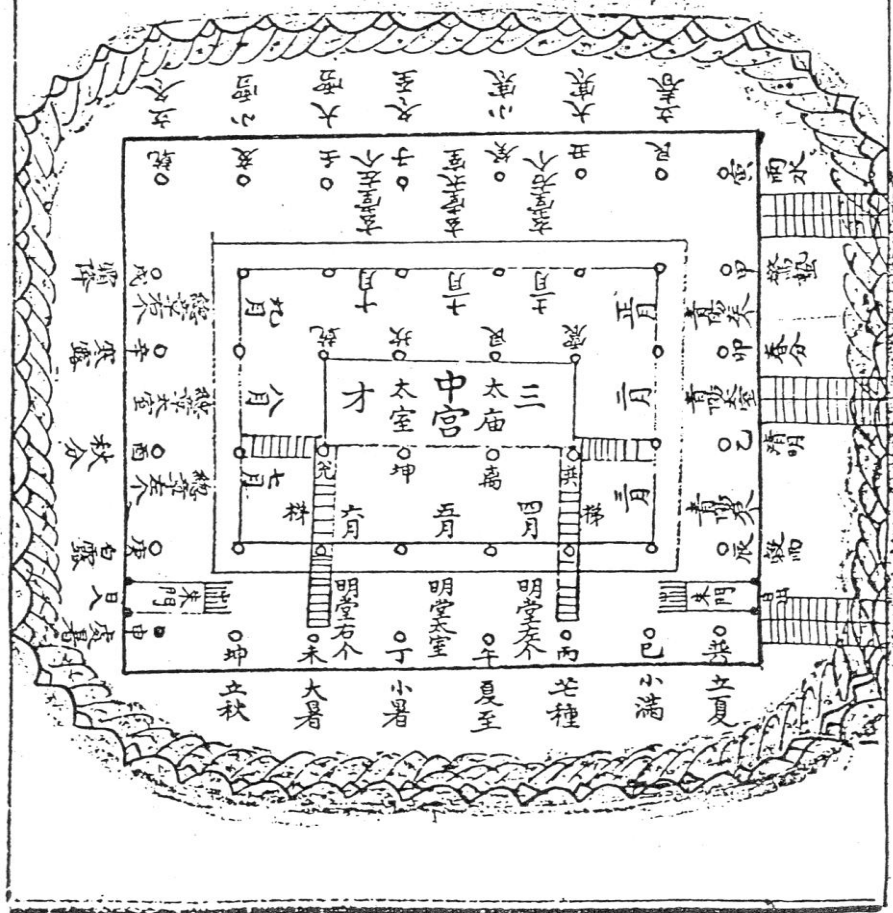
V. 대표사례

1. 36궁의 마루에 우주를 담다 : 경회루(慶會樓)



경회루의 내부공간과 낙양각

慶會樓三十六宮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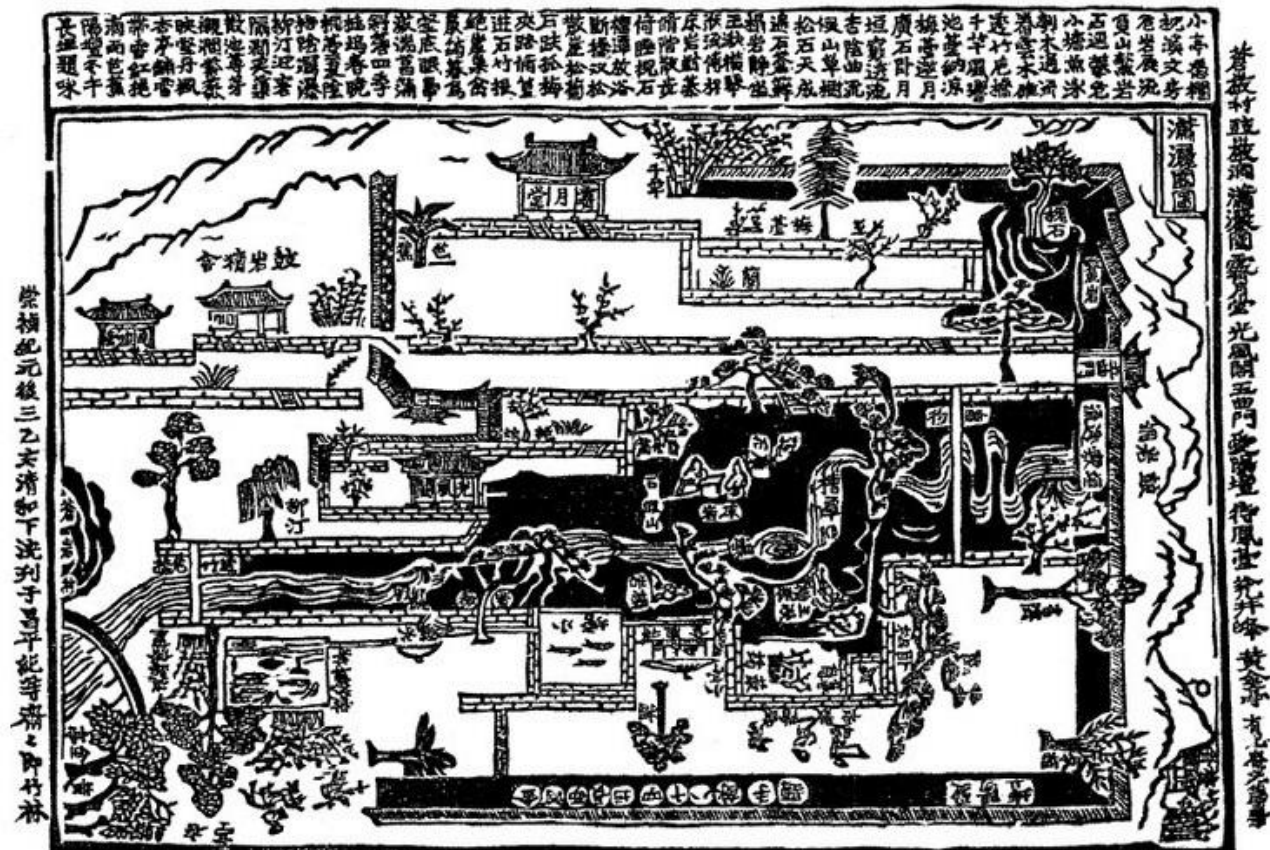


경회루 36궁지도

2. 49일의 열기를 품다 : 아자방(亞字房)



3. 풍류와 강학을 논하다 : 담양 소쇄원(瀟灑園)



소쇄원도



삼간사허의 광풍각



제월당의 강학공간



감사합니다.

책임연구원 김상태 교수
연구보조원 이세진



전국읍의파이떡 부 아편과작인

김지희·조효수·송미영·유선희·김정아·박가영·김민자



복식과 색채



오방색

연구자. 김지희
자연염색박물관 관장

연구분야. 복식과 색채

모시



한산세모시 韓山細縐

Mosi (Ramie Fabric from Hansan Region) | 30 × 2264cm

모시는 무덥고 눅눅한 여름철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쪽염

문헌연구

1. 한국 사상의 원류와 특성

동이족과 단군사상

공자, 맹자, 주자사상

유학, 실학

불교, 도교, 신유학, 및 현대의 기독교

퇴계와 율곡사상



무이 구곡 지도 (울산 대곡박물관 발간)

2. 한국의 회화, 공예, 디자인의 사상과 미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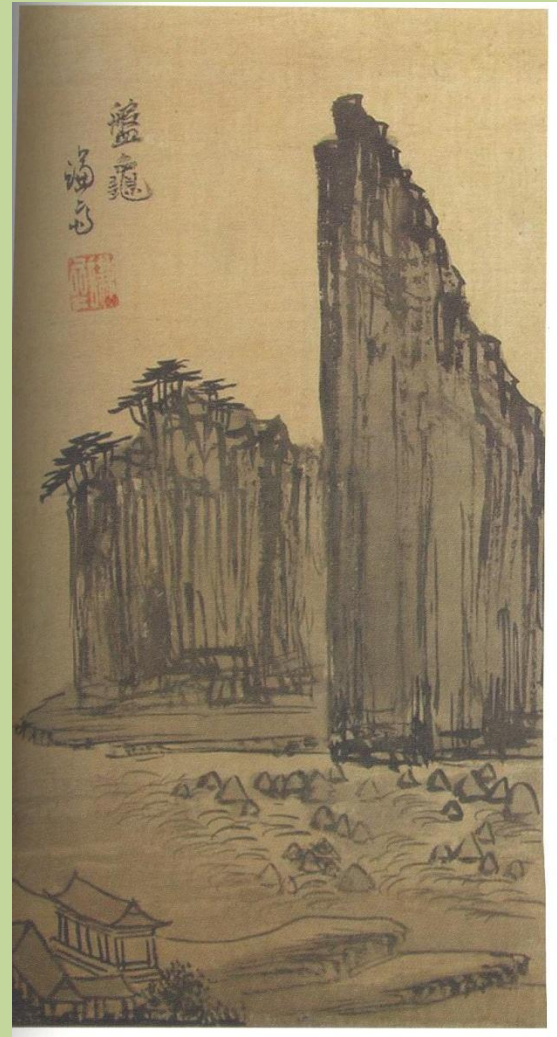
조선 선비에게서 나타난 예술세계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심사정

관아재 조영석의 회화

한국 역학과 공예, 디자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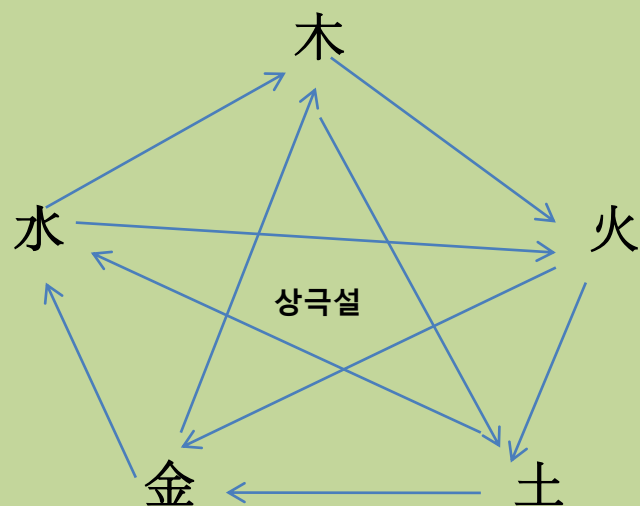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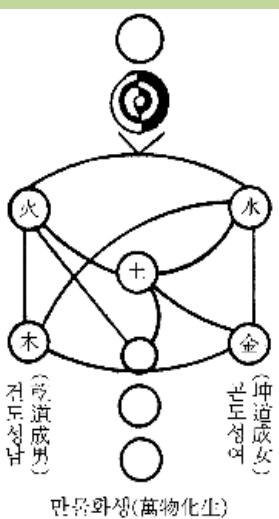


반구도 (겸재정선. 옥소 문중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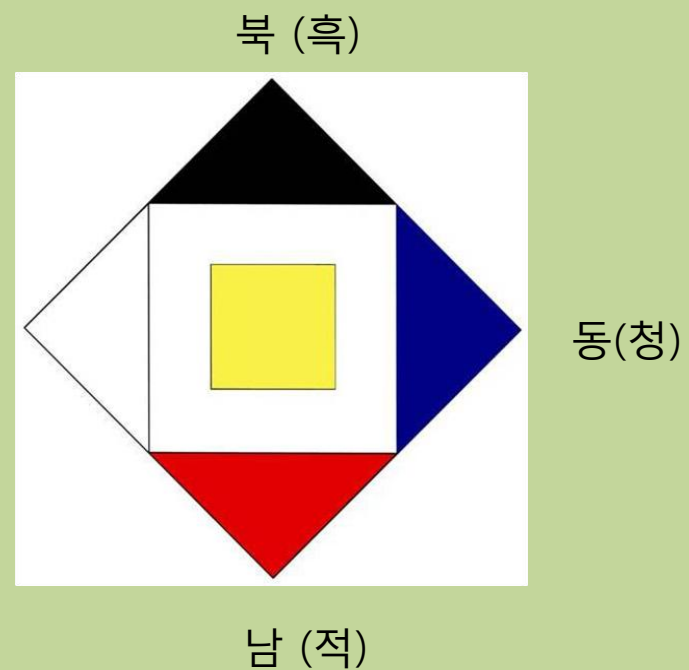
3. 복식의 색채전통 염색의 고문헌적 연구

규합총서, 동의보감, 임원경제지, 천공개물,
본초강목, 산림경제지, 경술지, 거가필용,
고금비원, 상방정예, 경국대전, 고려도경,
만기요람, 계림지, 연려실기술, 조선조실록, 연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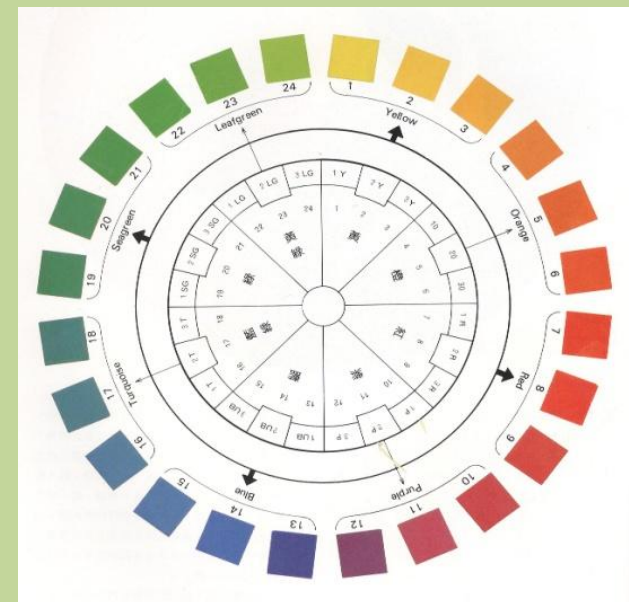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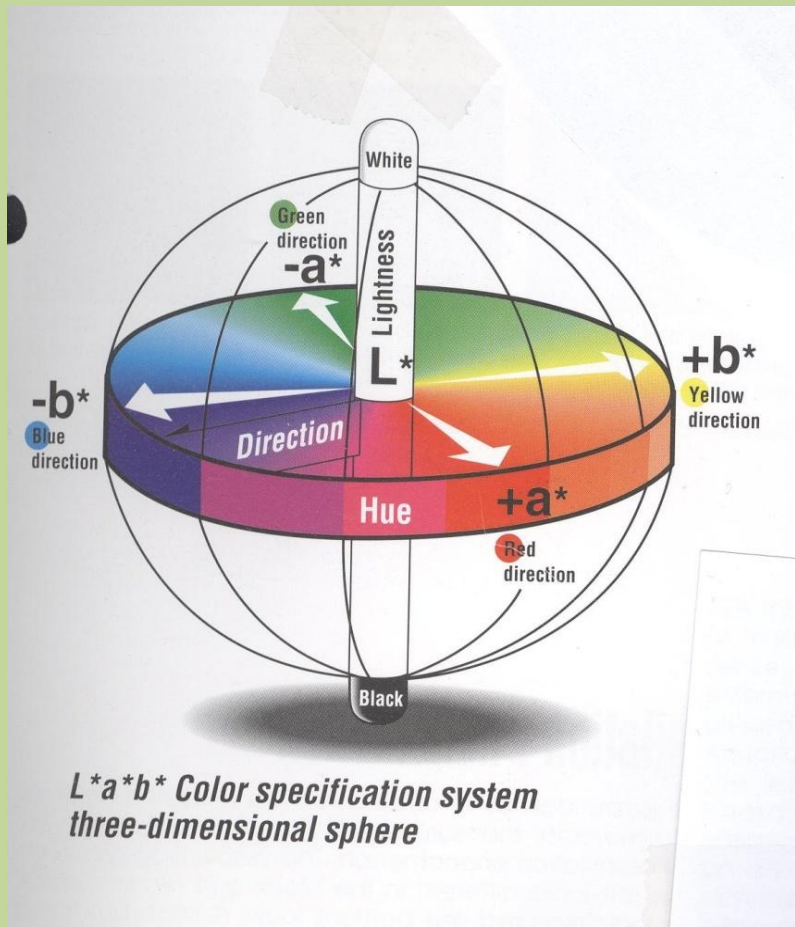
4. 음양오행 사상과 오방, 오간색



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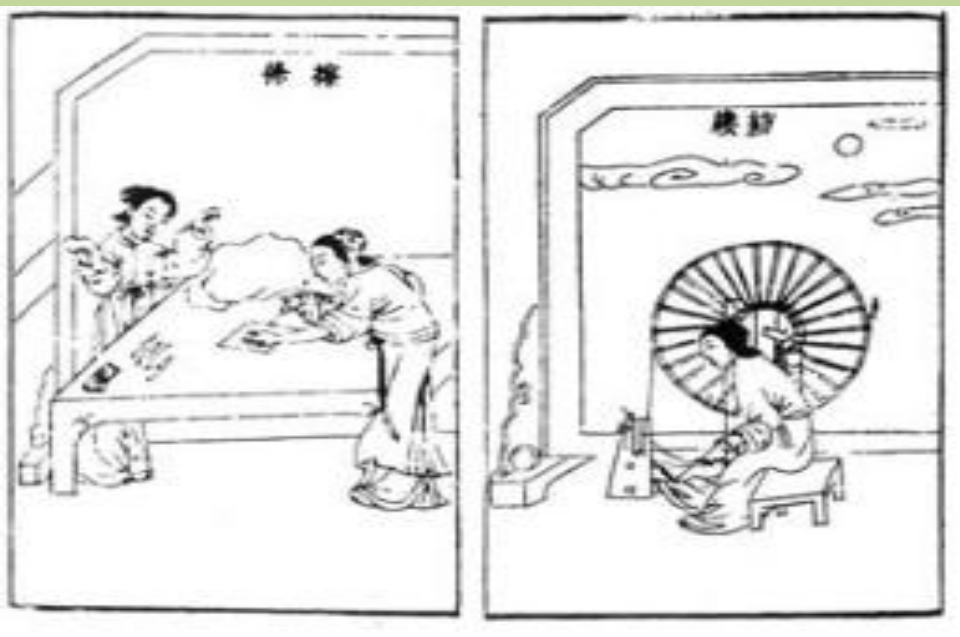


Cf. 서양의 색채개념/입체적 색 감각



전통옷감 및 염색발생과 시대적 맥락

상고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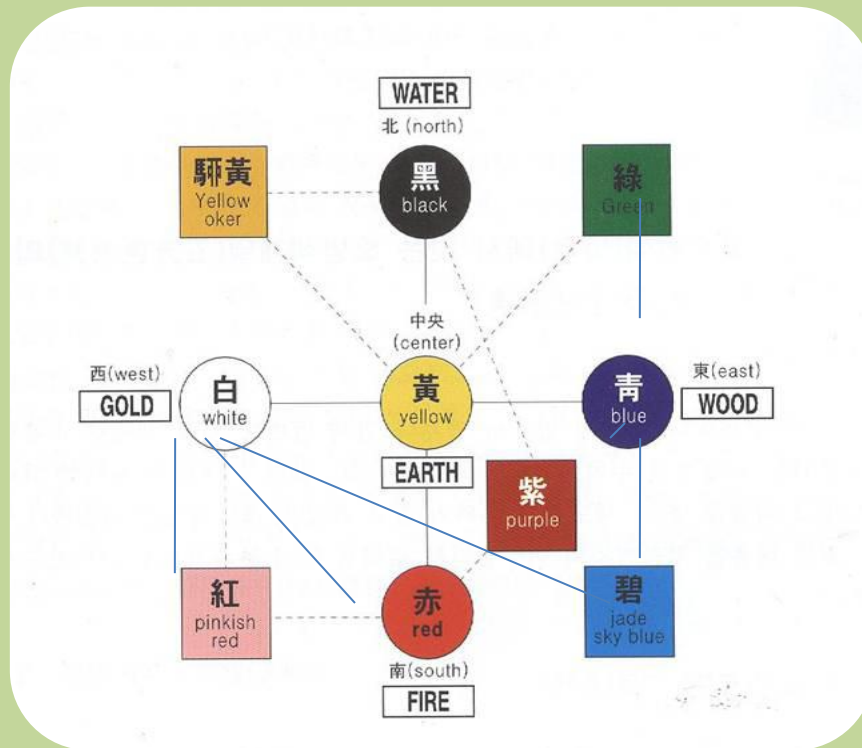


전통옷감을 사용한 친환경요인 및 생활 속의 미의식과 조형성

베틀과 베짜기/중요 무형 문화재 128호 (샛골나이) 무명



한국 전통 염색에서 찾는 오방색, 오간색 계열과 색채문화



청색계열/ 청, 벽, 녹



적색계열/ 적, 홍, 주, 비(緋), 강(絳)



황색계열과 흑색계열



전통염색 도구



소쿠리 (Wicker basket)
지름 60.0 × 높이 8.0cm

본래는 식료품을 담거나 물로 씻은 식물을 담는 데 사용하였으나, 작은 망벌과 모양·크기를 달리하여 과자나 카인을 담는 데도 사용한다.

재료는 보통 황태를 사용하는데, 대의 두께에 따라 2~3키로 원재 조각이 사용된다. 호강을 쳐서와 격과 날로 할 주 끝에는 작은 나무나 대목을 대고 소쿠리의 물을 한 겹과 같은 굵기의 대로 마무리한다. 염색에서는 쪽잎과 오미자 등 염색의 여과에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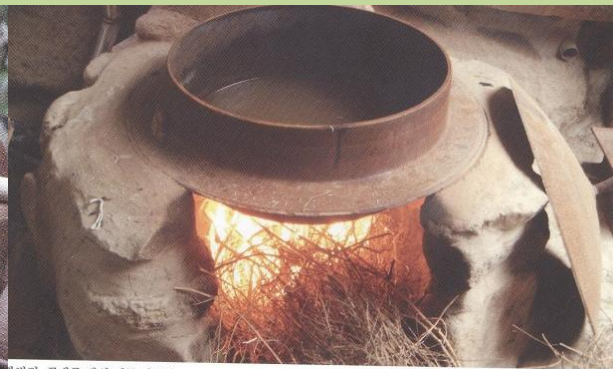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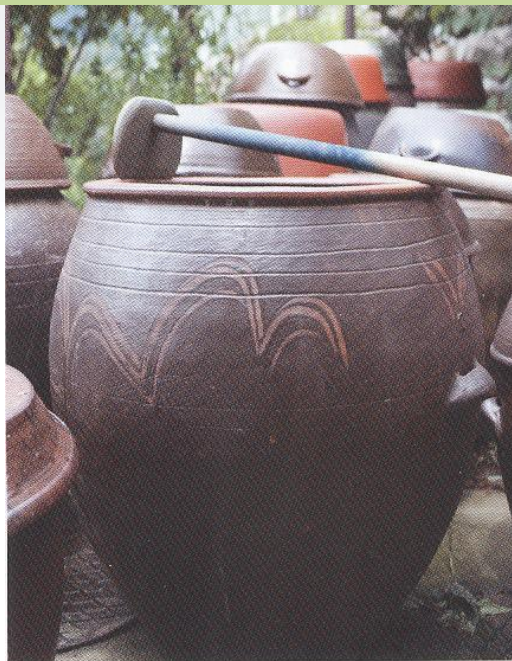
채반 (Wicker tray)
지름 56.5 × 높이 5.0cm

염색을 빚간 채리나 바드나부·대나무 파리의 가는 나무 윗도, 등이 길이 겹이 번들 둥글넓적한 채 그릇으로 음식물 장만할 때 빈대떡·전·등을 담거나 호박·가거·고구마, 산나물이나 해산물·어류 등을 말한다. 특히 길장 때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를 씻어 담아 물기를 빼기도 하고, 이와 가지 말뚝을 얹어 닦아 두기도 한다. 염색에서는 쪽 잎질 시 쪽잎 받치개로 사용하고 염색 건조용으로 사용한다.



맷방석 (Round straw mat)
길이 82.5 × 높이 15.0cm

원으로 한 자리 모양인 솔이 있는 원형 방석으로 밭이나 보리를 말리는 도구로 염색시에는 홍역 또는 염색을 건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쪽잎을 깔았다가 고일 염색이나 쪽 누룩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밭밧질, 콩대를 태워 재를 만든다.



소래기 (Round pottery bowl)
바닥지름 31.5 × 입지름 49.5 × 높이 18.5cm

굽이 없는 평저 모양으로 넓고 깊이가 약간 있는 용기 그릇. 채소를 담거나 녹말을 가라앉히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서울 지방에서는 장독이나 황아리의 뚜껑으로 쓰였다. 본래 장독 형아리 뚜껑은 목지가 달린 것을 사용하였으나 백요 압도가 없게 되어 후에 소래기를 강목 부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염색에서는 다양한 염색과 내염제를 놓는 용기로 사용된다.



늘배기 (Round and large pottery bowl)
바닥지름 47.5 × 입지름 58.5 × 높이 9.5cm

여가리가 둥글고 넓적하게 빚어진 용기 그릇. 흔히 곡식이나 채소를 씻거나 절임, 채, 나물을 삶아 물러거나 찌름 그릇으로 사용했다. 염색에서는 씻을 내리기 받침을 그릇이나 쪽잎에 중앙과 내리기 용기로, 염색을 불릴 때 또는 염색 용하는 데 가마솥에 넣어 끓이기 전까지 코르크 염색 용기에 사용한다.



자배기(버지기) (Large deep vessel)
바닥지름 37.5 × 입지름 47.5 × 높이 25.3cm

남에게 보다 조금 깊고 여가리가 얇아진 큰 그릇. 염색에서는 내리갈 때 씻을 내리기, 쪽잎이나 홍의 열 때 시 겹을 내리기, 전통적으로 다량으로 된 염색 시 사용한다. 용하는 데 가마솥에 넣어 끓이기 전까지 코르크 염색 용기에 사용한다.



손잡이 4개달린 시루
지름 31.5 × 높이 18.5cm



삼발 (tripod)
길이 70.0cm



당그레 (Rake)
길이 120.5cm



계절에 따른 염재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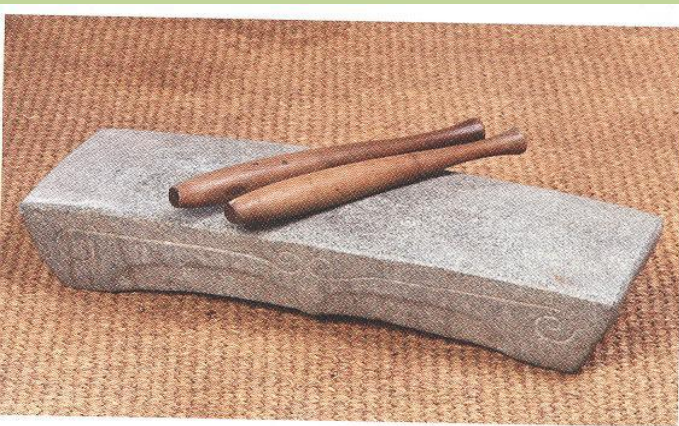
전통염색의 추출과 염색과정



색 추출>마전후 염색하기>연지 만들기>1차염색>2차염색

마무리 과정의 다듬질

다듬이질과 홍두깨질



다듬이질과 홍두깨질



오방색 계열의 색명과 염재를 나타낸 계열색명

<표. 3>오방색 계열의 색명과 염재를 나타낸 색명

오방 (五方)	오정색 (五正色)	오간색 (五間色)	계열색명 (系列色名)
동(東)	청(靑)	벽(碧) 녹(綠)	청계(靑系): 창(蒼), 람(藍), 아청(鴉靑), 청현(靑玄) 벽계(碧系): 치색(翠色), 옥색(玉色) 녹계(綠系): 연두(軟豆), 유청(柳靑), 창황(蒼黃), 흑유색(黑柳色)
서(西)	백(白)		유백색(乳白色), 소색(素色), 설백색(雪白色), 지색(紙色)
중앙(中央)	황(黃)	류황(駟黃)	황(雌黃), 송화색(松花色), 심황(深黃) 및 울금, 치자색(梔子色), 괴화색(槐花色), 황련색(黃蓮色)
남(南)	주(朱) 적(赤)	홍(紅) 자(紫)	홍계(紅系): 천(茜), 비색(緋色), 대홍(大紅), 훈색(纁色), 주(朱), 진홍(眞紅) 자색계(紫色系): 홍남(紅藍), 자(紫)
북(北)	흑(黑) 현(玄)		오(烏), 조(早), 흑(黑), 회색(灰色), 구색(鳩色), 치색(緇色)

복식과 색채의 특성 개념

생(生) ; 색채문화의 생성

기(氣) ; 조화로운 기운

순(純) ; 순수와 상생

연(然) ; 자연을 입다

용(用) ; 쓰임의 아름다움



전문대학 마케팅

활옷 길상무늬



연구자. 조효숙
경원대학교 교수

연구분야. 직물과 문양

보배무늬



사양화무늬



남자복식



갓(흑림)

연구자.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조교수

연구분야. 남자복식

머





철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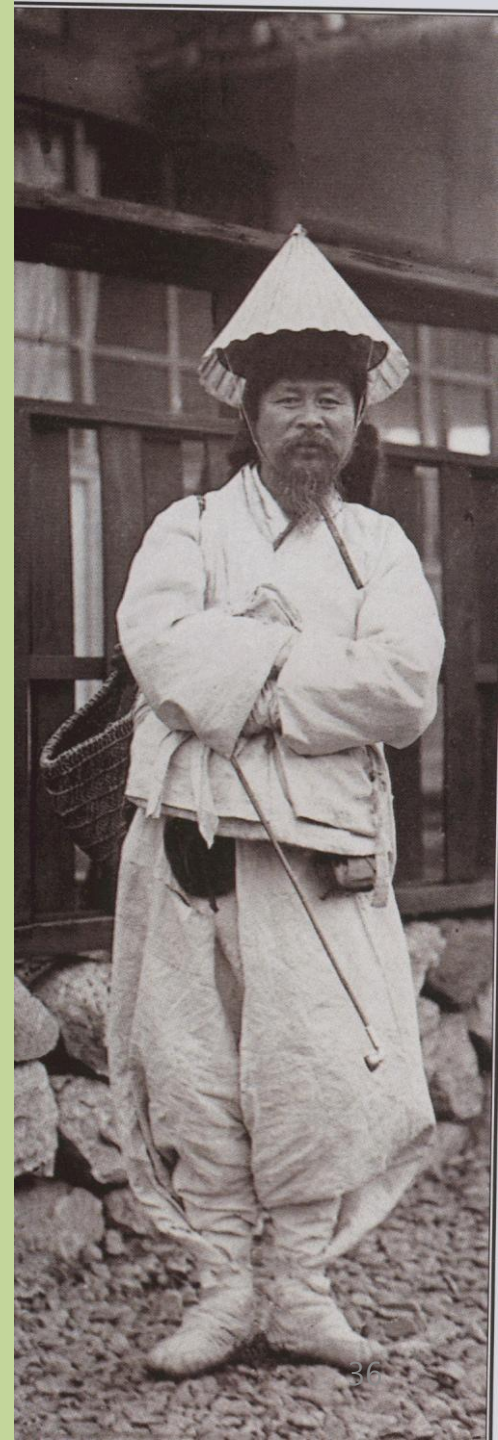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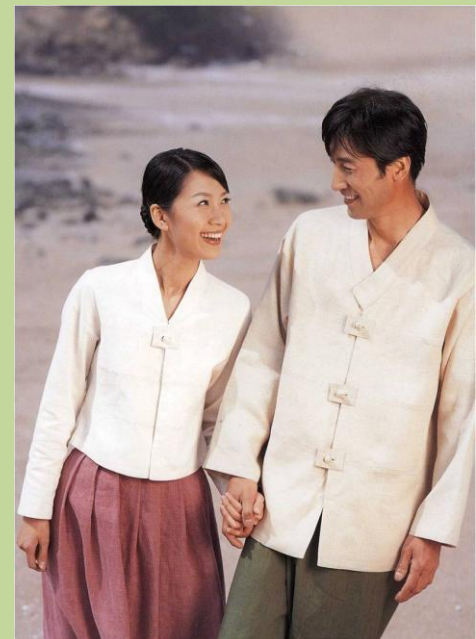


남자복식의 특성

- 역사성-영속성
- 미적 감각-중첩, 소재의 단순함, 율동감
- 기능성-기능적인 디자인
- 복식의 구조-가변성

역사성-영속성





미적 감각_증첩, 소재의 단순함, 율동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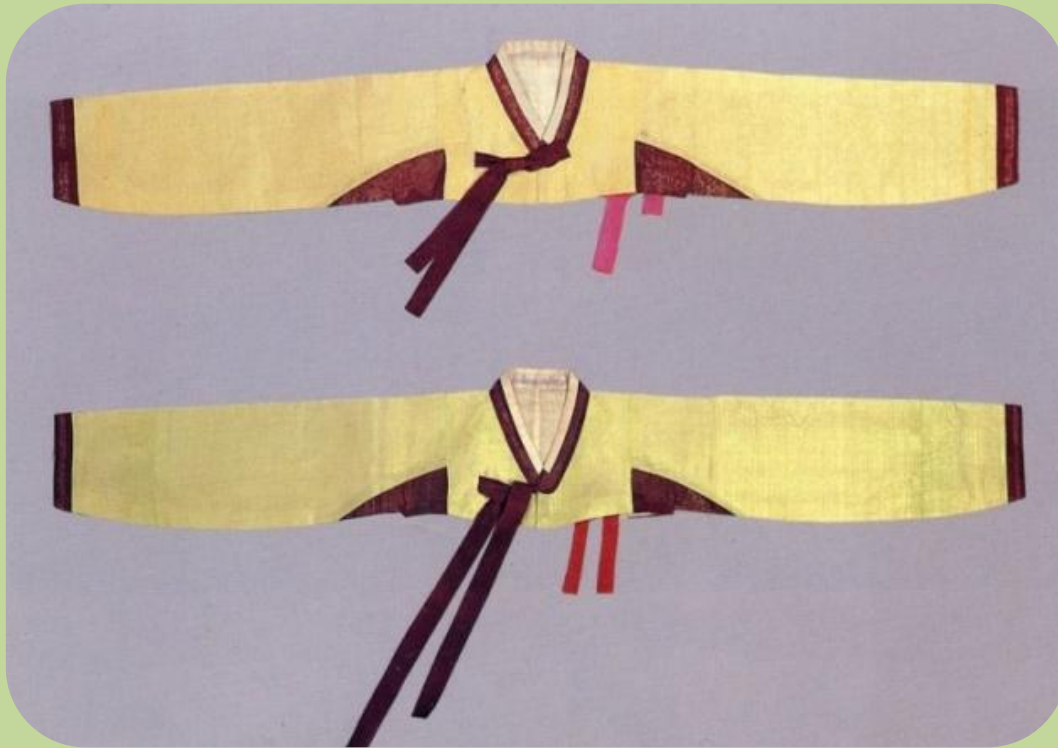








여 자 분 식



회장저고리와 거들치마

연구자. 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연구분야. 여자복식



당의



단속곳



여자복식의 특성

- 평면구조
- 재료의 미
- 절제의 아름다움
- 울동의 미



2011 S/S Women RTW **Carolina Herrera** NewYork







특수분식



두정갑주

연구자. 박가영
숭의여자대학 교수

연구분야. 특수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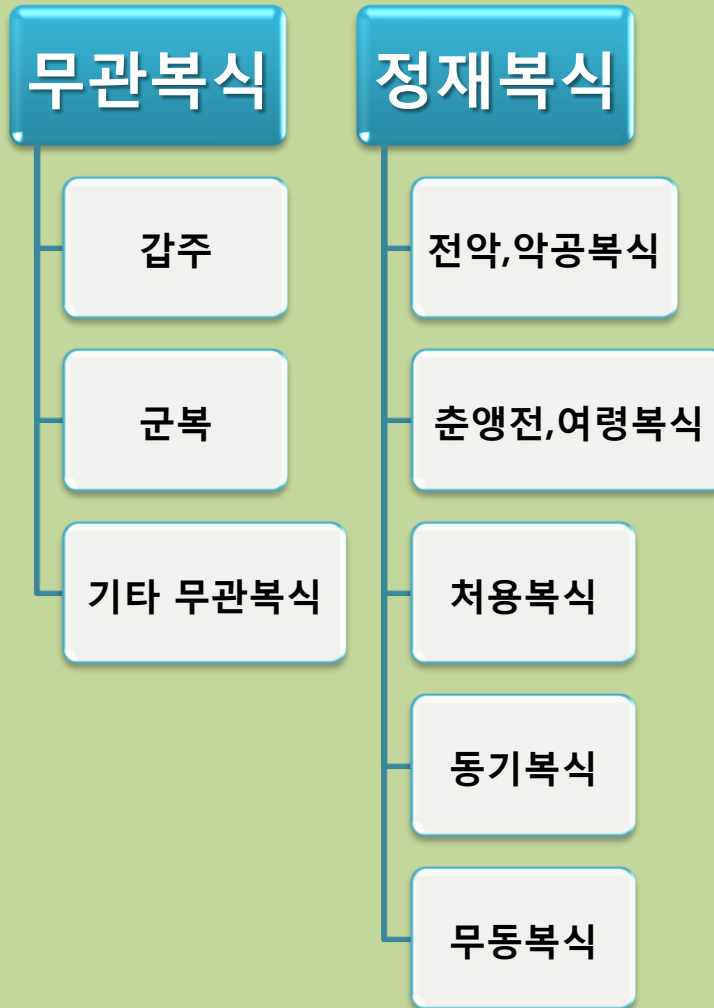
춘앵전복식



군복



특수복식의 범위와 분류



연구대상의 특징



연구진행과정 3단계

복식의 역사적 고찰 및 구조 분석



각 복식의 디자인적 특징 추출



대표디자인의 선정

대표디자인 선정 기준



구방소품



모시조각보

연구자. 유선희
(사)누비문화연구원 이사

연구분야. 규방소품

색사누비





까치 두루마기

연구자. 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분야. 규방소품

평생교육과

바람의 옷, 이영희



연구자. 김민자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분야. 현대의복



수미기법,
이상봉



장승,
최복호



1. 철제 판갑 | 鐵製 板甲

- 인체의 자유로운 해체와 재구성



2. 두정갑주 | 頭釘甲冑

- 엄중한 배열 속에 숨어있는 상징적 기호



3. 두석린갑주 | 豆錫鱗甲冑

- 삼색의 하모니가 들려주는 전쟁터의 기억



4. 군복 | 軍服

- 오방색을 한 몸에 품은 가변적 실루엣



5. 방령 | 方領

- 형식의 틀을 깨는 자유로운 호사



6. 악공복식 | 樂工服飾

- 흥·록의 대비 속에 화미함을 드러낸 악공복식



7. 춘앵전복식 | 春鶯囀服飾

- 트임과 겹침 사이로 스며나오는 봄날의 향취



8. 처용복식 | 處容服飾

- 색과 형태에 우주관을 꼭꼭 눌러담은 옷



9. 동기복식 | 童妓服飾

- 흠날리는 끈들의 붉은 단장 소리



10. 무동복식 | 舞童服飾

- 일상을 벗어난 다채로움과 참신함

철제 판갑 | 鐵製 板甲

인체의 자유로운 해체와 재구성

- 시 대 : 가야, 4세기
- 소장처 : 국립중앙박물관
- 유물명 : 傳 김해 퇴래리 판갑



고대(古代) 갑옷은 작은 직사각형 갑옷조각을 가로.세로로 연결한 찰갑(札甲;비늘갑옷)과 조금 넓은 판 모양의 조각을 연결하여 만든 판갑(板甲)으로 나뉜다. 가야의 출토유물은 수량도 풍부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나선형의 무늬를 앞.뒤.옆으로 부착한 종장판 갑옷은 독창적이면서도 우수한 조형미를 드러낸다.

- ❖ 인체의 해체와 재구성
- ❖ 직사각형, 삼각형, 반원형, 나선형 철판이 어우러진 조형성
- ❖ 부속갑옷의 사용으로 활동성을 추구



두정갑주 | 頭釘甲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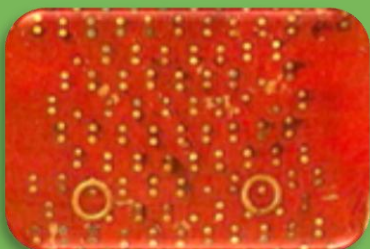
엄중한 배열 속에 숨어있는 상징적 기호

- 시 대 : 조선
- 소장처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 초기에는 작은 갑옷조각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한 찰갑(札甲)이 주를 이루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포(袍) 형태의 의복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갑옷조각[甲札]을 둥근 머리못[頭釘]으로 고정하여 제작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갑옷조각의 크기와 형태, 겹으로 드러난 두정의 배열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 ❖ 두정 배열의 규칙과 변화 : 조형성과 상징성
- ❖ 문양의 형태와 의미 : 조형성과 상징성
- ❖ 모피 트리밍 기법과 재료의 다양성
- ❖ 트임으로 인한 활동성



두석린갑주 | 豆錫鱗甲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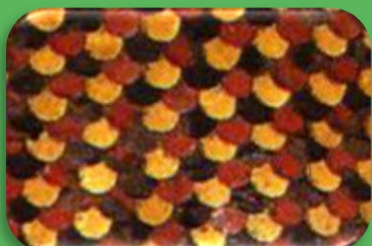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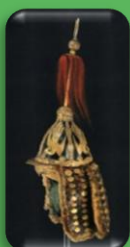
삼색의 하모니가 들려주는 전쟁터의 기억

- 시 대 : 조선
- 소장처 : 고려대학교박물관



두석린갑주는 낫쇠[豆錫]로 만든 갑옷조각에 검정, 빨강 칠을 하거나 두석 본래의 황동색을 남겨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서 붉은 색포의 바깥쪽에 고정한 갑옷이다. 세가지 색의 갑옷조각은 대비효과로 화려할 뿐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났다.

- ❖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다중감각적 디자인
- ❖ 견철(어깨의 용장식) : 장식성과 기능성
- ❖ 문양의 형태와 의미 : 조형성과 상징성
- ❖ 강렬한 색의 대비 효과
- ❖ 곡선 형태의 계속적 반복



군복 | 軍服

오방색을 한 몸에 품은 가변적 실루엣

- 시 대 : 조선, 19세기
- 소장처 : 고려대학교박물관
- 김병기(1818-1875) 유품



조선시대 군복은 전립(氈笠)을 쓰고, 바지와 저고리 위에 동다리[挾袖]를 입고 그 위에 소매 없는 조끼 형태의 전복(戰服)이나 괘자(掛子)를 입은 후 남색 전대(戰帶)를 매고 수화자(水靴子)를 신은 차림이다. 19세기 말 동다리와 전복이 합쳐져 간소화되었고, 옆트임의 단추를 묶으면 말을 타기 편한 실루엣으로 변신했다.

- ❖ 트임과 무가 달림으로 인한 활동성
- ❖ 간단한 장치로 형태적 가변성을 지닌 구조
- ❖ 다목적의 기능성
- ❖ 직물 문양과 오방색의 배색 : 장식성, 심미성



방령 | 方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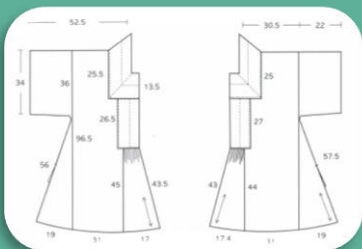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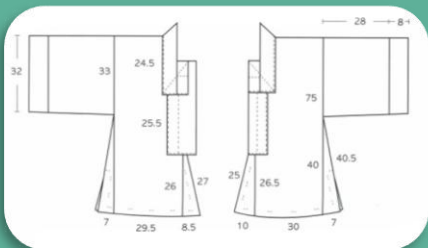
형식의 틀을 깨는 자유로운 호사

- 시 대 : 조선, 16세기
- 소장처 : 석주선기념박물관
- 신여관(1530년대 초-1580년대) 유품



임진왜란 이전에 주로 나타나는 네모난 깃이 달린 의복 유물로, 갑옷의 깃 형태와 비슷한 무관복식이다. 말을 타기 편하도록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경우가 많다. 디자인이 일정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명칭을 찾지 못했다. 직물문양이 화려한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신분과시적이며 장식적인 의복이었으리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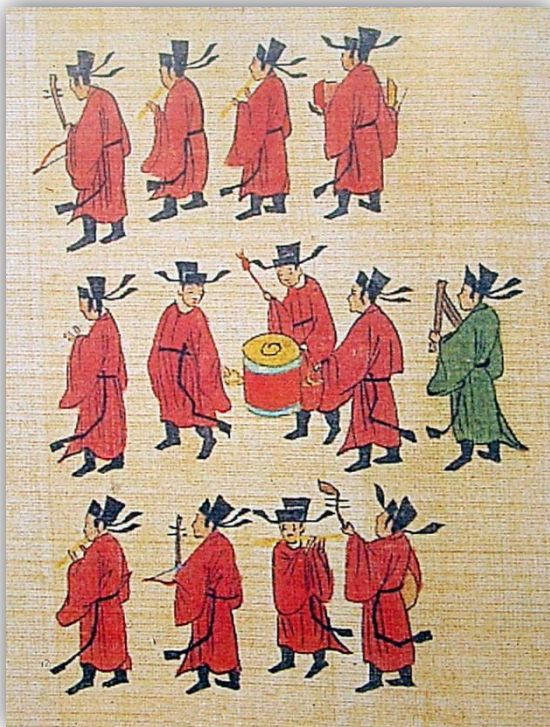
- ❖ 디자인의 변용(variation) 폭이 넓은 의복
- ❖ 갑옷을 닮은 무관의 복식
- ❖ 앞길이보다 뒷길이가 짧은 구조 : 기능성
- ❖ 화려한 직물 문양 : 장식성



악공복식 | 樂工服飾

홍·록의 대비 속에 화미함을 드러낸 악공복식

- 시 대 : 조선
- 출 처 : <기사계첩> (1720년)
- 소장처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 전기에는 악(樂)의 종류와 담당한 역할에 따라 다양한 복식으로 구분되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전악은 모라복두에 녹초삼에 은야대에 흑피화를 신고 악공은 화화복두에 황주의에 오정대에 흑화를 신었다. 홍색과 녹색을 반복하여 대비시켰고 평면과 입체를 섞은 장식 디테일도 있다. 품계가 낮은 악공이 전악보다 화려하였다.

- ❖ 품격있는 전악복식과 화미한 악공복식
- ❖ 홍색과 녹색의 보색대비를 즐긴 배색감각
- ❖ 역할에 따른 배색 방식과 내용의 변화
- ❖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조형디자인



춘앵전복식 | 春鶯囀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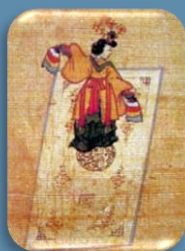
트임과 겹침 사이로 스며나오는 봄날의 향취

- 시 대 : 조선
- 출 처 : <무신진찬도병> (1848년)
- 소장처 : 국립전주박물관



여령복식은 화관을 쓰고, 남색상 위에 홍초상을 입고, 초록저고리 위에 황초삼을 입고, 가슴에 홍단금루수대를 매며, 손목에는 오색한삼을 끼고, 초록혜를 신었다. 춘앵전복식은 여령복식을 기본으로 착용한 후 팔꿈치 아래에는 홍금수구를 둘러매고, 어깨 위로 초록 하피를 걸쳐 가슴 위로 늘어뜨리는 점이 달랐다.

- ❖ 겹침과 트임이 만들어내는 형태미
- ❖ 치마에서 보이는 한국적인 곡선 감각
- ❖ 오방색·초록색·자적색의 대비 조화



처용복식 | 處容服飾

색과 형태에 우주관을 꼭꼭 눌러담은 옷

- 시 대 : 조선
- 출 처 : <무신진찬도병> (1848년)
- 소장처 : 국립전주박물관



처용복식은 사모·의·천의·길경·상·군·한삼·대·혜로 구성된다. 처용은 방위별로 있어 총5명의 처용이 각 방위를 상징하는 색의 의(衣)를 착용한다. 옷의 구성품목이 많고 오방색을 상호 교대로 사용하여 배색하며, 천원지방·음양·오행사상 등을 반영한 복식이다.

- ❖ 사상이나 철학을 표현하는 함축적 상징성
- ❖ 오방색의 교묘한 배색 원리
- ❖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디자인
- ❖ 착용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디자인



동기복식 | 童妓服飾

흘날리는 끈들의 붉은 단장 소리

- 시 대 : 조선
- 출 처 : <기축진찬도병> (1829년)
- 소장처 : 호암미술관



연화대, 선유락 등의 정재를 올리는 어린 소녀는 합립(蛤笠)을 쓰고, 붉은 비단에 금박무늬를 찍은 땡기인 유소(流蘇)와 결신(結紳)으로 장식하고 붉은 색 비단으로 만든 단의(丹衣)·상(裳)·말군(襪裙)을 입고 비단 대를 매며 비단 신[段鞋兒]을 신은 차림이다. 복식의 대부분이 붉은 색이어서 단장(丹粧)이라고도 표현하였다

- ❖ 독특한 색의 사용방식 제시
- ❖ 아이템들의 유기적 관련성
- ❖ 수많은 끈을 이용한 움직이는 선(線)의 미(美)
- ❖ 다중감각적인 복식 디자인



무동복식 | 舞童服飾

일상을 벗어난 다채로움과 참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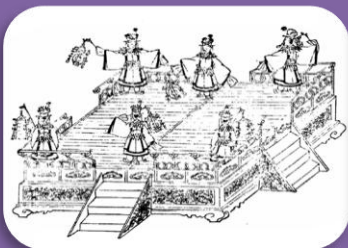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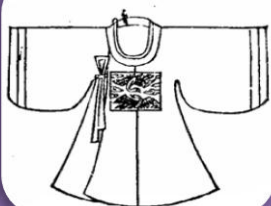
- 시 대 : 조선
- 출 처 : <임인진연도병> (1902년)
- 소장처 : 국립국악원



무동복식은 황(黃).록(綠).자(紫).남(藍).도홍(桃紅)의 다섯 가지 색 비단으로 만든 옷[各色段衣]에 흥배를 달았다. 이후 무자년(1828년)에 효명세자가 정재를 창제하면서 무동복식의 종류와 장식성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한가지 형태의 복식에 색상과 디테일만 변화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 ❖ 오간색(五間色)을 주조로 한 의외성
- ❖ 실험적이고 비일상적인 디자인
- ❖ 여성복식의 차용으로 인한 양성성(兩性性)

衣袖同色



袍蝶花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DNA 찾기

-전통 복식 미와 그의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2011, 02, 10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전통문화 가치는 문화,산업의 성장동력

II.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란

전통/한국적/ 한국적패션디자인

III. 한복의 DNA와 한국적 패션디자인

전통복식형성에 영향을준사회문화적 맥락/전통복식의 구조와
형식미/한복의 조형적특성/ 한복의 순수미와 해학미

IV.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DNA 찾기 위한 방안

I. 서론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2003,7,25)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John Naisbitt)”

:(메가트랜드 2000) 세계 경제 메가 트렌드에 관한 견해
[Made in Korea]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국문화를
성장동력으로 제시.

•신국부론 저자 “기 소르망(Guy Sorman)”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출상품이나 서비스에 문화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야 함. 한국 문화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문화 창조의 주체는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예술가, 즉 민간이 주도임을 강
조.

한국적 DNA를 통하여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미래의 충실한 예언자는 과거이다.

한국적 DNA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패션상품을
개발함으로써 [Made in Korea]라는 브랜드이미지를
형성하여 한국문화의 성장동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적 패션 디자인 이란

전통이란

- 민족 생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정신적 이념, 가치관, 정서가 여러 시대를 통하여 계승되어 하나의 결속체(문화)를 이룸
- 규범적 힘을 발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
- 다른 문화와 차별화 해주는 특수성
- 예술에서 이러한 전통성은 민족의 양식의 결정
- **변화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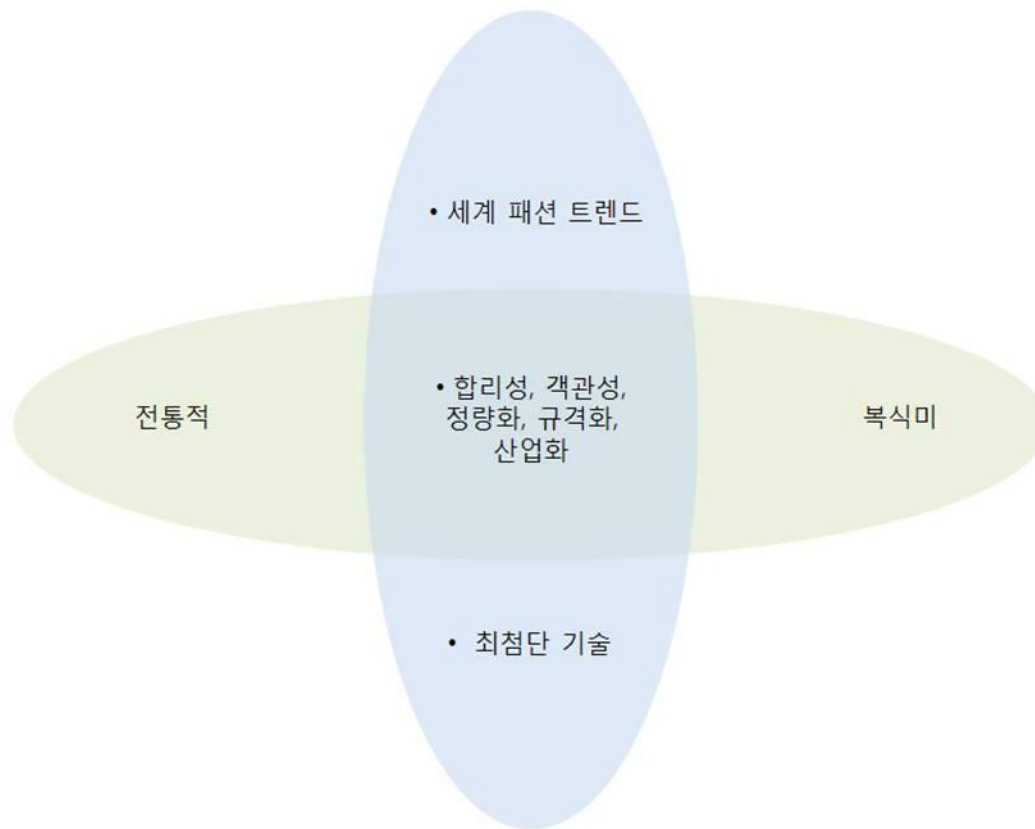
● 한국적 이란

- 한국적: 문화, 예술에서 공유하는 특수성/지속적인 정신과 기질.
- 고전: 자기 생성적 전승력의 단절.
- 민속: 자기 생성적 전승력으로 생활 속에 스며 듦.
-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의 포괄/ 주체적 수용.
-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우리'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창조해낸 문화를 의미.

한국적 패션디자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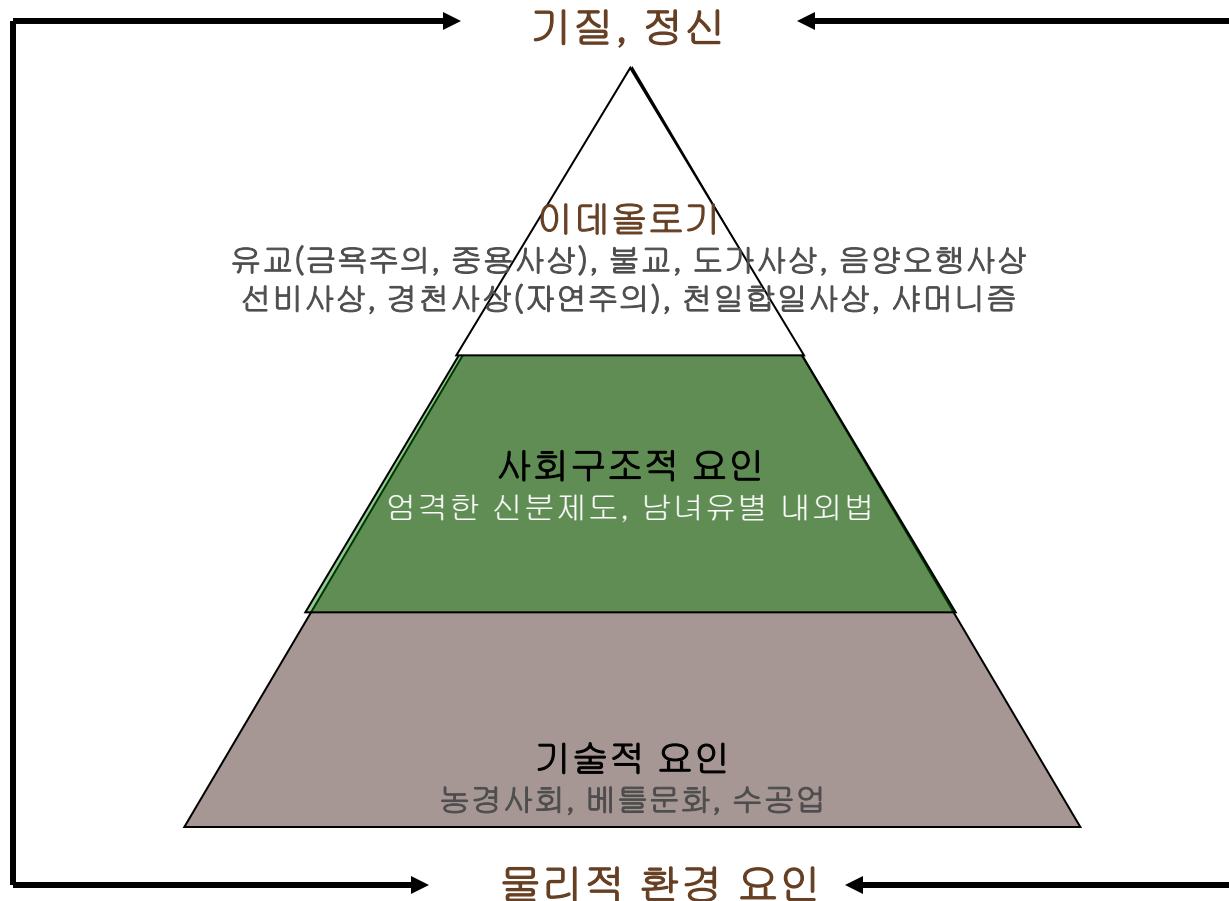
- 서구중심의 모더니스트관습에서 벗어나 자기이국화 (self-exoticization, doing something Korean)의 과정이다.
- 우리것을 찾기위해 철저히 현재성과 과거성을 해체하여 재조립시켜야 한다.
- 서구패션트렌드를 모방하는데서 벗어나 진정한 우리만의 독창성을 찾는 길이다.
- 오리엔탈리즘: 서구중심적인 사고, 에드워드 사드, 소극적인 문화, 착취의 대상, 이국적, 난폭 교활, 전제주의, 야만적, 어둠과 미지의 세계, 여성적이고 육감적, 부정적인 단어
- 아시아패션, 아시아 에스닉 룩, 한국적 패션, 일본적 패션, 한국풍, 아시아 풍 등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종/횡적 사고



III.한복의 DNA와 한국적 패션디자인

한국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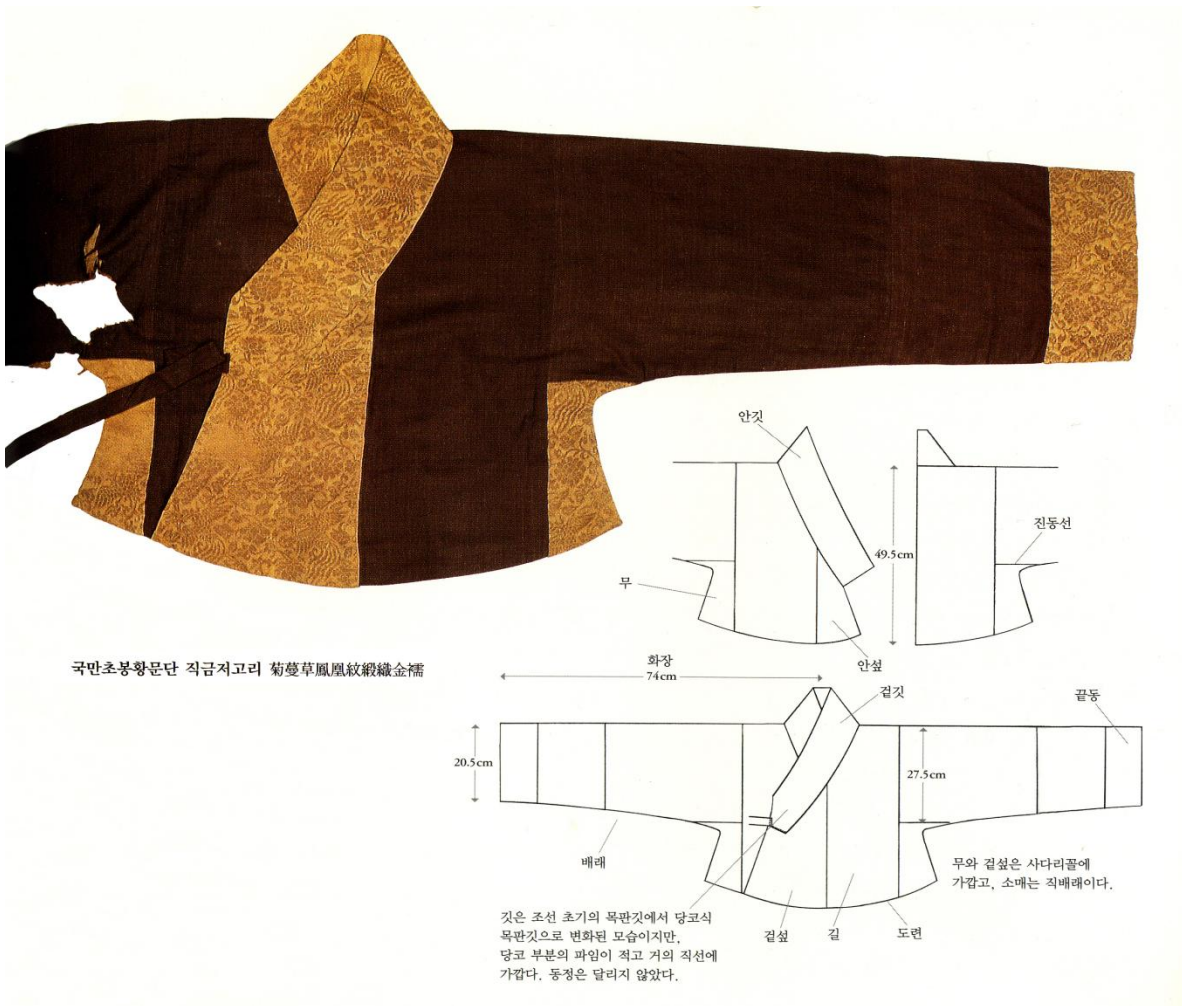


한국적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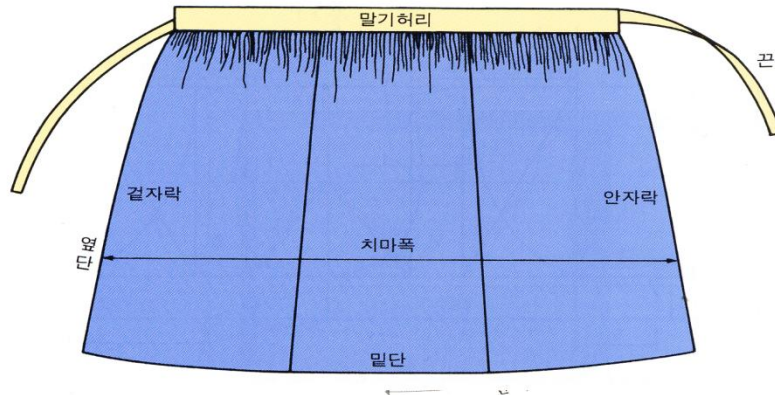
- 한 민족의 미의식, 미학사상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 우리나라의 미의식은 외적이고 감각적인 미 보다는 내면적인 심성의 미, 미와 예술을 인격성에 결부시키며, 인간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다.
- 물리적 환경(기질)과 사회문화적 환경(인습,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기술적 측면)
 - 기 질 : 북방의 유목민족과 남방의 농경민족의 결합, 사계절이 뚜렷, 산악과 평야, 반도문화, 역동적, 개방적인 동시 폐쇄적, 서정적인 다문화적 특질
 - 이데올로기: 경천사상, 우주관, 풍류사상, 민속신앙(샤머니즘), 불/ 도/ 유교
음양오행사상, 선비사상,천인합일사상 (空, 仁, 虛)
 - 사회구조: 남녀 유별 내외법, 봉건적 신분제도(상층문화와 하층문화)
 - 기술적 측면: 베톨문화(소재의 절약과 평면형의 발달), 천연염색, 수공예

한복의 구조와 형식미

• 저고리의 구조와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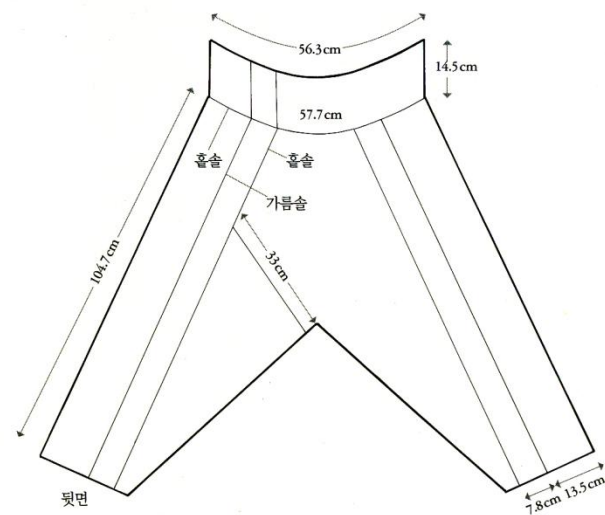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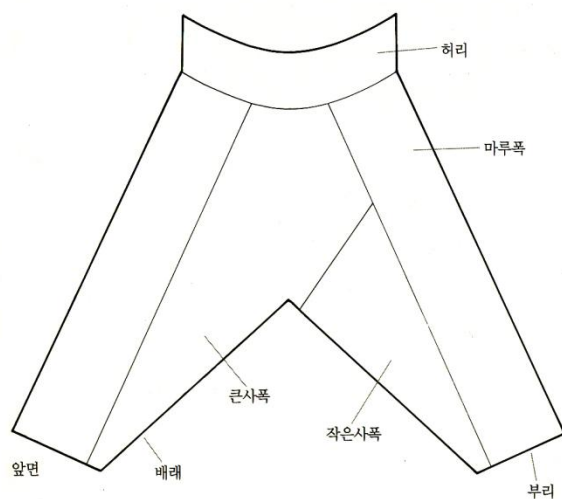
- 치마의 구조와 명칭



홍색 갑사치마 紅色甲紗裳 Skirt. Silk.

바지의 구조와 명칭

숨마지 襦袴 Padded Pants for Men. Si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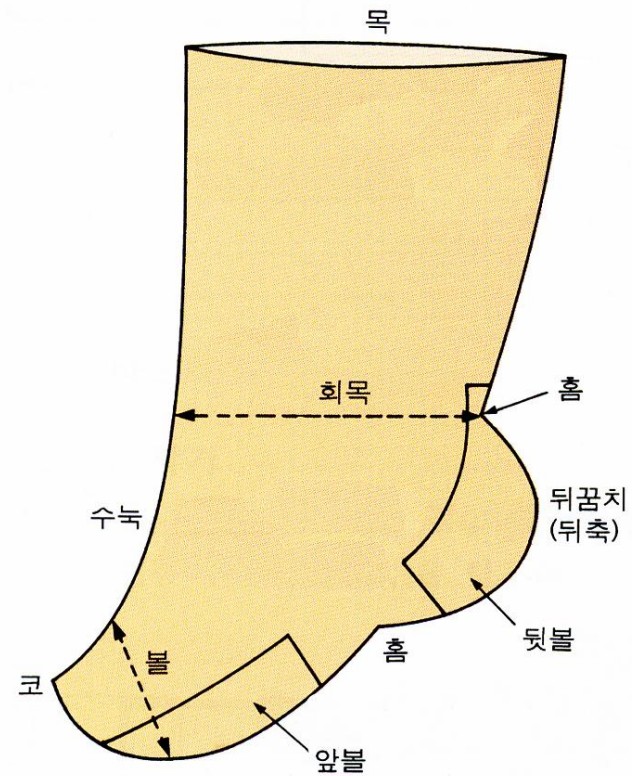


• 버선의 구조와 명칭



타래버선 縷緋襪

Quilted Socks for Children. Cotton.



버선의 형태와 부분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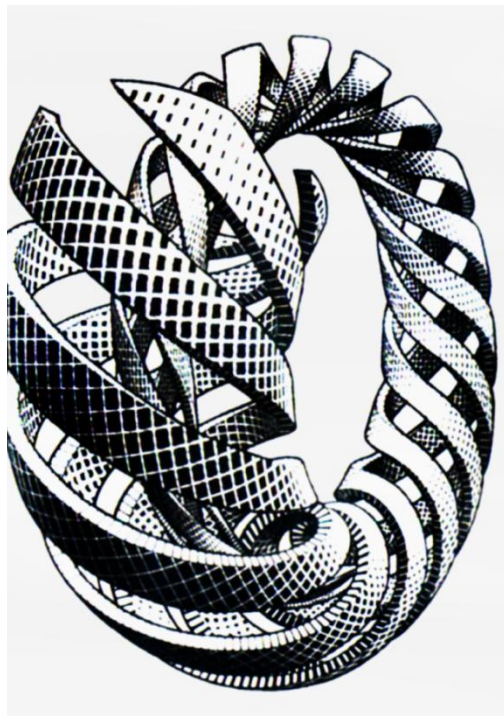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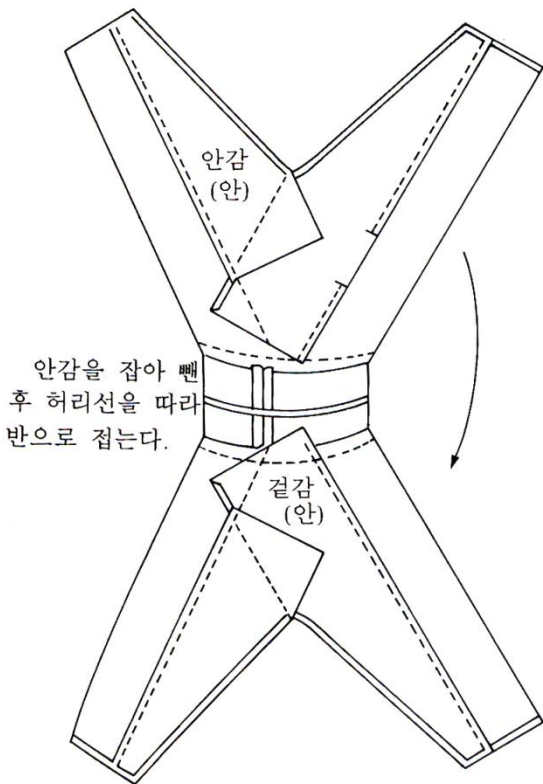
한복의 조형적 특수성

1. 무정형과 초공간성: 자유분방함, 가변성
2. 선/결의 미: 한국인의 심성, 추상미, 단순미
3. 비움/여백의 미: 탈속적인 삶, 비대칭성
4. 상징의 미: 외적형상은 내재적기의 상징
5. 중첩의 미: 유기적총체성, 단일적 통일성

한복의 조형적 특수성

• 무정형과 초 공간의 미: 자유분방,가변성

- 1.음양오행사상:기본도형[원,방,각]은 一,二,三인 동시에 음,양, 중성의 세가지 우주적인 원소이다. 이러한 사상은 한복의 평면적인 마름질에서 바느질을 거쳐 완성, 이는 도교의 우주생성설의 원리이다
- 2.인체부위에 대한 모호성, 기운생동의 미
- 3.동양의 정신을 근원으로 조형을 창조, 형상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
4. 접기(오리가미), 꼬기와 비틀기(뫼비우스의 띠)
: 한복 바지(안과 겉 구분의 모호성)
- 5.한복의 착장 변형의 용이로 열린 미를 추구
: 대상과 공간구성의 모호성(치마, 속 고쟁이, 속치마 등), 인프라패션





이영희, 바람의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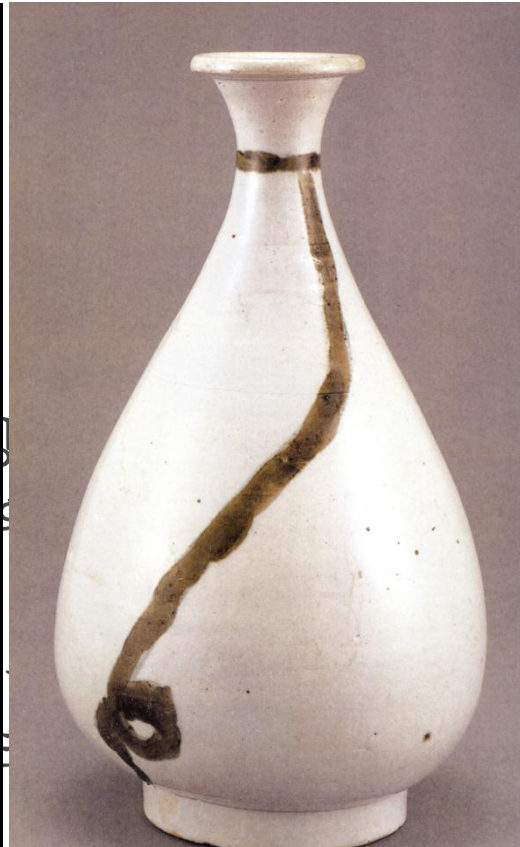
- **선, 결의 미: 한국인의 심성, 단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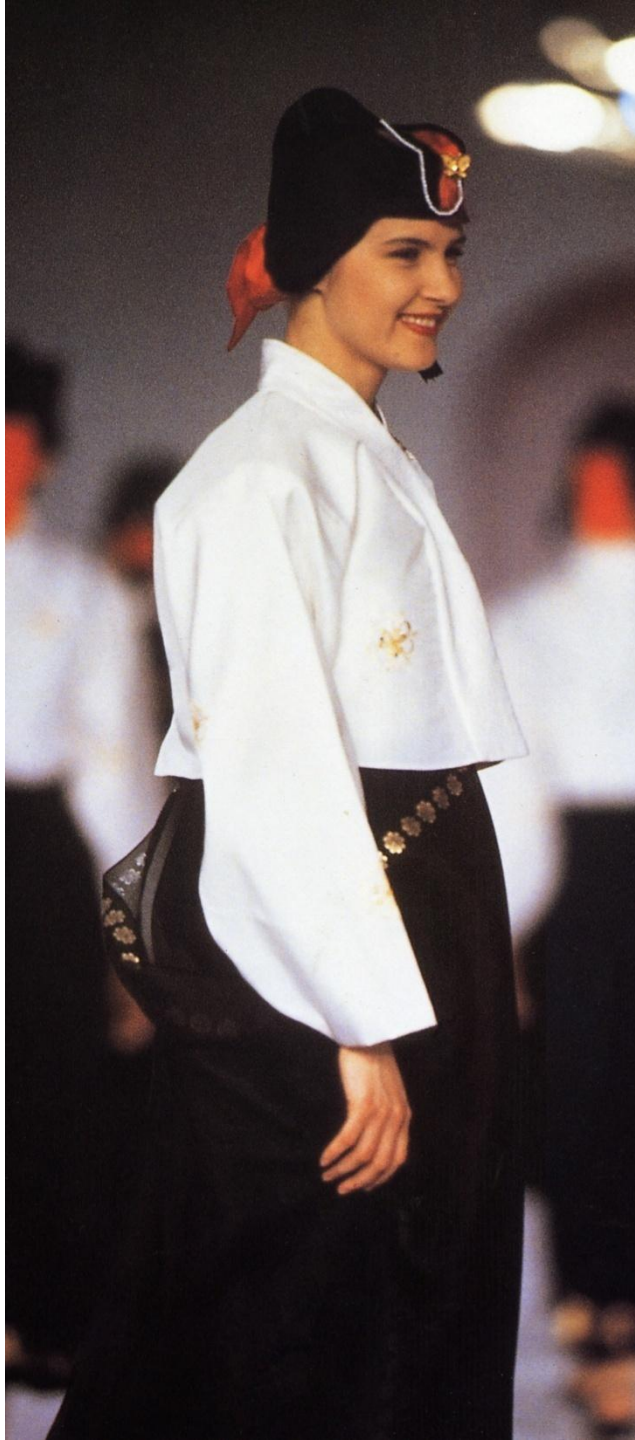
점: 비물질적, 제로/침묵과 언어를 연결/내적으로 가장 중심집중의 형태

직선: 차고 무한한 움직임, 간결한 형태

수직선: 따듯하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

대각선: 차고 따듯하고 무한한 움직임





- 비움(여백)의 미: 탈속적인 삶, 비 대칭성

- 동양적 사유체계에서 우주와의 교류를 위해 비워놓는 허와 공의 존재에서 오는 가치/탈속적인 삶을 의미.
- 비대칭적 특징; 한복의 여밈 선, 스란치마나 대란치마에서 무늬의 배치
- 백색의 선호





오른쪽: 진태옥, 왼쪽: 이신우



• 상징미

: 외적 형상은 내재적 기에 대한 상징, 不二說, 불교의 禪사상

• 아와 자연이 하나라는 신토불이 사상

• 인간의 번뇌는 이원계의 대립에서 생김, 따라서 선도 악도 끊어진 상태.

즉, 不思善, 不思惡을 추구. 이는 一이면서도 二, 二이면서도 一,
곧 이는 一이고 二가 아니다.

禪사상

: 침묵하는 가운데 내재하는 무형적 공과 허의 미. 어떠한 대상의 형상은 하나의 새로운 내재적 본질이며, 상징적인 성질/ 아와 우주의 합일사상

불이설: 一而二, 二而一, 不一而二

십장생무늬(활옷), 길상문자, 꽃, 과실, 풀, 곤충무늬, 사군자(자연의 의
인화: 선비가 지녀야 하는 품성)





● 중첩의 미(layering): 유기적총체성,단일적통일성

- 한 단위의 조형적 특성의 반복이나 겹침, 상호관입, 투명성

한옥: 공간의 켜가 여러 겹, 창살무늬 등

한복: 마름질(사각형의 반복), 봉재(곡선의 반복), 착용에서 겹쳐 입기, 무지기 속 치마 등



한복의 순수미와 해학미

- 서양화와 달리 동양문화권에서는 화선지와 먹은 하나의 물질과 기법인 동시에 정신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수묵사상

문인화

: 시간, 정신, 내연의 긴장, 무위자연, 格, 자유, 미지의 힘, 탈속적인 세계관,
무념, 수묵화 (수미sumi기법) → 소박미, 순수미

채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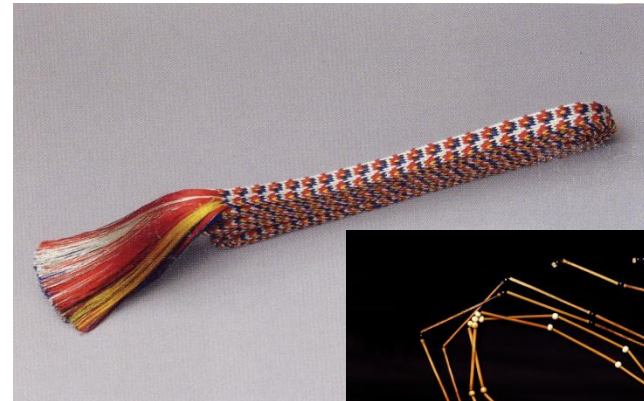
: 공간, 속세, 외연으로 확산, 삶의 이야기, 기운생동, 풍속화, 민화
→ 해학미, 골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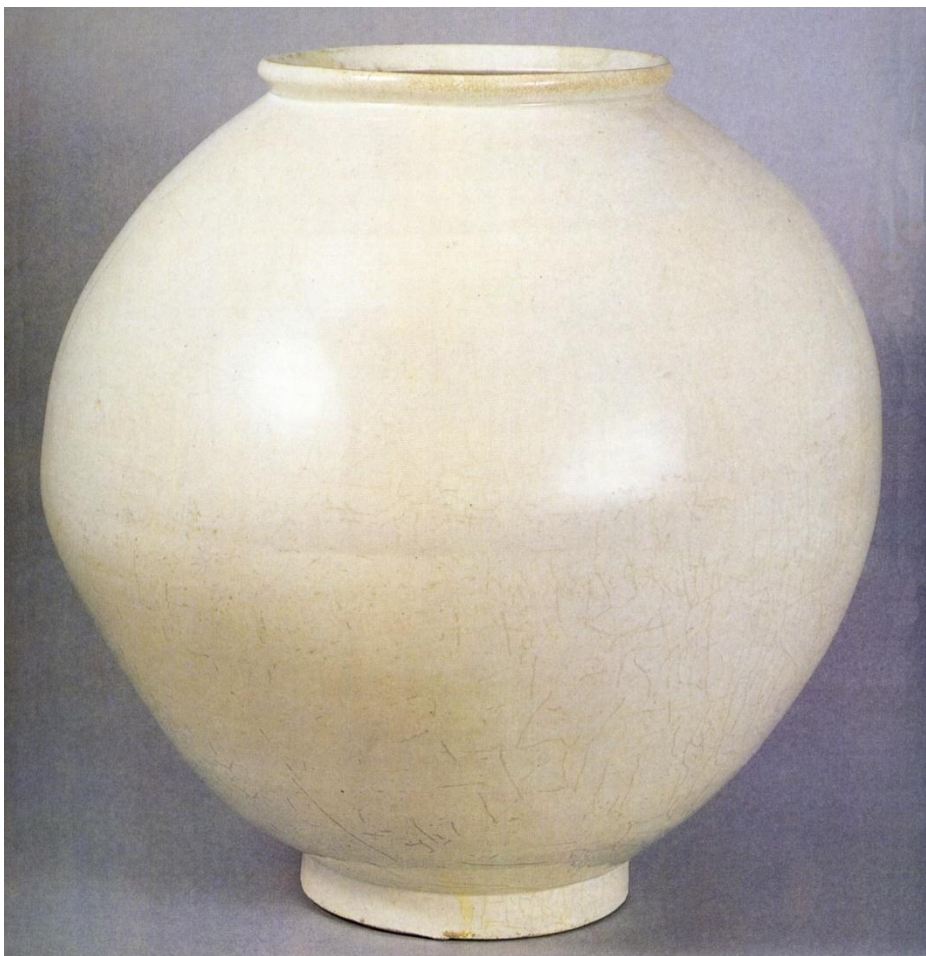
한복의 순수미: 유/불/도와 선비사상

- 맑음의 미, 순수미: 선비정신
- 중용의 정신: 이성과 감성의 균형, 청백리 사상, 간결과 절제, 수묵화
- 심의: 상의와 하의의(하늘과 땅) 연철, 십이폭(12달을 의미), 둥근 소매
(정방기:義가 풀어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함), 부승(심의의 후부의 중심을 봉합한 선: 直을 의미), 백색과 검은색의 대비(절제되고 검박한 정신)



두루마기





수미기법

이상봉, 한글 달빛위를 걷다



한복의 해학미: 샤마니즘, 무교

- 무 교: 무당(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 *신명성, 자유 분방성, 민예품
 - *무작위의 미, 비 균제성, 질박함
- 무 복: 샤만(Saman):심기가 동요된, 광기, 도취된, 나는 춤춘다.
새의 모양, 날개: 신이나 영웅의 징표, 천상과 지상의 매개
- 갈라진 형상: 뱀, 용 혹은 새의 형상-오방색



해학의 미

최복호의 장승과 색동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

- ✓ 형식적인 특성으로 형태, 색채, 소재, 장식적인 기법 등에 대한 언급
- ✓ 디자인 요소간의 배열에 의한 비 대칭성, 곡선의 미등이 언급
- ✓ 미적 특성이나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 ✓ 특히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 미비

한국적 패션디자인DNA를 찾기 위한 방안

1. 다각적인 전통미의 특수성을 활용한 패션 의류 문화상품 개발
2. 전통공예품에서 벗어나 글로벌 트렌드에 어울리는 다양한 패션상품 아이템개발: 현대화와 생활화, 산업화, 글로벌화
3.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홍보, 마켓
4. 산학협동에 의한 실제적인 인재양성
5. 한국전통복식에 대한 DB화와 보존

감사합니다!

추사와 실사구시

추사체에 나타난 파격과 고졸의 조형성 연구

발표자 김정희

☒ 차례

1. 김정희 디자인 특성
2. 대표디자인 사례 3점
3. 결론



1. 김정희 디자인 특성

- 김정희의 예술은 법고창신의 결과이다. 이것은 유학본래의 정신인 ‘온고지신(溫故知新)’과 상통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 ‘입고출신(入古出新)’의 예술적 지향이다. 이 법고와 창신의 기본정신은 옛 것을 널리 배워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추구해 내고자하는 실사구시의 방법을 통하여 예술의 근원을 탐구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김정희의 학예일치(學藝一致)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고와 창신의 기본정신은 경서나 비석 등에 대한 고증을 통해서 그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미의식을 강조한 결과다.
- 김정희의 예술론은 중국 명·청대 최신의 예술론들을 검토하여 절충 종합한 이론이다.
- 추사체의 완성은 한 화면 안에 전서와 예서의 필법과 결구로 해서와 행서가 있거나, 그 반대로 해서와 행서의 필법과 결구로 예서가 구사되는 이른바 파격적인 서체가 구사되었다는 것이다.
- 추사체의 양식적 특징은 점획의 다변성에 따른 묘미, 획의 태세(太細)·장단(長短)·고저(高低)·곡직(曲直)의 현저한 차등에 따른 대비, 전절(轉折)부분의 강조, 점획의 위치 변화에 따른 생동감이 넘치는 구성미 등인데, 이러한 특성은 김정희의 끊임없이 지속된 창신의욕에 따른 비균제미(非均齊美)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 2. 대표사례 3점

대표사례1



김정희,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64~65세경, 종이에 먹, 31.8×137.8cm, 손창근 소장.

☒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글씨는 초기 첩학(帖學)의 토대(土臺)위에 한예(漢隸) 중심의 비학의 성과가 접목되면서 장법(章法)과 서체의 내재적 변화와 점획과 결구(結構)의 변화를 거치면서 일생동안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천시절에 무르녹아난 추사체의 기괴(奇怪)와 고졸(古拙)함의 미학은 정법의 자기해체나 파괴의 결과물이다.
- 김정희의 서체를 대표할 만한 디자인으로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글씨의 조형은 전·예·해·행·초 서체가 하나의 글씨 속에 동시에 표현되었으며 중봉에 의한 파필로 빠르고 거칠면서도 박력있고, 분위가 있으면서도 활달한 기백(氣魄)을 실현하고 있다. 추사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여러 서체의 장점을 취합한 종합적인 서체’라는 평가는 김정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송절충론적 사유에 의해 오체를 종합하고자 한 것이지, 자유분방한 개성의 발현으로서 기괴함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서의 바탕에서 그 속에 오체가 모두 구현되는 ‘서체절충론’이 구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추사체 필획의 탁월한 특징은 ‘중봉(中鋒)’으로 파필(破筆)을 구사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희는 필획이 균등한 가로획의 반복에 따른 결구법을 써서 통일감을 느끼게 하는 자형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추사체는 점획의 구성이 비균제된 결구법을 선호한다. 이러한 비균제된 결구법의 선호는 한 글자 안에서 동일한 획의 의도적인 변형을 통해서 부각되고, 한 문장 안의 동일한 자를 의도적으로 상이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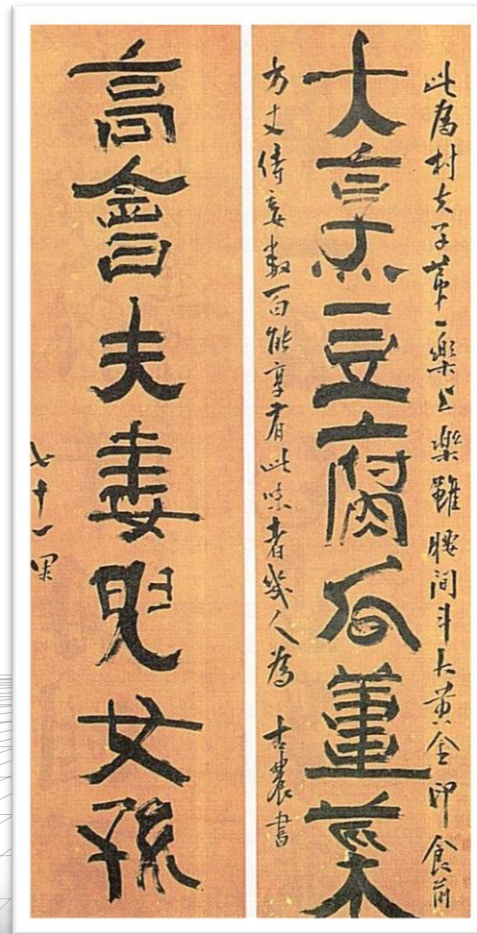


대표사례2



김정희, <판전(板殿)> 현판, 1856년(71세), 77×181cm, 봉은사.

대표사례3



김정희, <대팽두부(大烹豆腐)>, 1856년(71세), 129.5×31.9cm, 간송미술관.

☒ <판전>, <대팽두부>

- 김정희의 서체에서 한국디자인의 요소가 두드러진 작품 <판전>과 <대팽두부>글씨는 고아한 멋의 세계인 ‘평담(平淡)’과 ‘고졸미(古拙美)’의 학문적 존고정신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그 자연스러움과 꾸밈없음은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생기는 미감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속에서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형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서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격과 인품이 작품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한 유학의 근본정신인 ‘문자향·서권기’가 응집된 서체라고 할 수 있다.
- 부분적으로 ‘과’할 수 있지만 전체가 어우러져서는 오히려 매우 평담한 자연성을 연출하고 있다. 절제 있는 간략함의 극치는 순수하고 진지한 ‘깊음’의 뜻을 표현 한 것이다. 또한 <판전 (板殿)>>글씨는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로 예술이 평범성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잘 쓰겠다는 의지를 갖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로 드러나 허화로움과 고졸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졸이란 ‘졸이현고(拙而見古)’를 말하는데, 이는 바로 “졸박함 가운데 예스러움을 보여주기”이다. 글씨의 골격에는 역사적 연륜조차 느끼게 하는 옛 비문의 졸(拙)함이 뼈 속까지 배어 있다. 김정희의 추사체는 엄청난 기교이면서도 그 기교가 드러나지 않고 그저 천연스럽고 순박하게만 보이는 ‘무기교의 기교’이다.
- 김정희가 만년에 보여주는 <대팽두부(大烹豆腐)>는 순수하고 소박하기에 평온할 뿐인 군자나 선인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른 붓질과 사물의 기괴함은 인간 내면의 담박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평담의 소박미이다. 삶을 초탈한 경지에서 무욕(無慾), 무심(無心)의 시문을 간결하면서도 담담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김정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제 분수를 지키며 질박하여 겉과 속이 하나 되는 학예일치의 경지로써 명예와 이익에 매이지 않는 초탈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즉 내면의 도덕적 바탕이 적절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소박하고 질박한 천연스러운 자연으로 나아가 편안한 조화를 이룩하였다고 하겠다. 그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인습의 굴레에 집착함 없이 자유자재의 ‘야일’의 품성으로 일어난 흥취를 그의 서체에서 익살의 세계로 보여준다. 서예에서 익살의 미는 비균제와 참치의 미로 나타나는데 그의 작품에서 점획과 결구의 일탈로 표현되었다.





3. 결론

- 18-19세기의 변화양상 속에 서화는 현실주의적 재현은 현저히 쇠퇴한다. 18, 19세기의 경화세족의 고동서화 취미는 단순한 취미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19세기 예술창작을 규정하는 거창한 근거로 작용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발생시켜 서화에 대한 수요가 민간 수요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서화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곧 그림의 수요의 증폭과 맞물려 화가의 수가 급증하고 그것의 창작을 하나의 진지한 취미로 변화되어 서화에 대한 가치가 현격하게 높아진다.

- 서화는 상품적 성격이 짙어졌고 급기야 예술품의 거래를 담당하는 예술품 상인과 예술품을 판매하는 특정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예술품 시장이 형성된다. 경화세족의 생활과 고동서화의 유행은 현실과 예술의 연관을 분리하여 예술의 독자성 내지는 자율성을 얻게 하는데 근거가 된다. 고동서화 취미는 19세기 주로 작용하여 예술 창작의 편향성을 강요하게 된다.

- 18세기 이래 발달했던 감상지학은 19세기에 와서 예술과 현실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예술의 자율성의 확보와 예술의 탈 현실화 경향이라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김정희는 18세기 이래의 감상지학을 수렴, 비판하고 완원과 옹방강 등 청대 일류의 안목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류의 '감상지학(鑑賞之學: 예술비평학)'을 정교한 미학의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킨다. 그의 감상지학은 단순한 감상지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술창작을 좌우하는 설득력 있는 미학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김정희의 예술적 영감은 작가가 객관세계 예술의 탈 현실화를 배경으로 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 김정희의 서예론에서 기존 연구들에 의해 가장 주목된 부분은 금석학과 관련된 고증학적 측면이다. 조선의 금석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완원(阮元, 1764-1849)의 금석학 연구 업적에 크게 의지하지만 김정희의 학문은 단순히 청대 고증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리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경험에서 출발하는 참된 학문 즉,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청대학술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인다.

- 김정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송절충론적 사유에 의해 오체를 종합한 예술의 창작론은 서예론에서는 남북서파론을 수용하여 북비(北碑)를 우선하는 비학파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비(漢碑)의 고졸미(古拙美)를 창작의 중요한 조건으로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필법에 앞서 묵법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 추사체의 파격(破格)과 고졸(古拙)은 농현미(弄絃美)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그가 중국양식에서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흔듺’을 허용한 한국인의 정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사체의 괴이함과 결구의 특이함에 장법마저도 괴이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장법은 매우 자연스러워 오히려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그의 평담의 미이다. 또한 미학적으로 순수하고 고박한 원초적인 미에 바탕을 둔 것은 한국민족의 핏속에 흐르는 무속적인 요소가 추사의 필묵으로 모질고 굳세게 삶을 헤쳐 가는 샤먼적 민족혼의 전달이 서체에서 파격과 고졸미로 한국예술의 정신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 김정희의 서체를 대표할 만한 디자인으로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대팽두부(大烹豆腐)>, <판전(板殿)>을 선정하였다. 동양예술에서는 인생관과 예술관이 비슷한데, 김정희는 그의 인생·학문·예술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예술은 ‘멋’이 있다. 이는 격식을 가추면서도 격식을 뛰어넘는 초격미이다. 멋의 형태적 특질이 ‘불균제성’, ‘원숙성’, ‘완릉성’등을 말할 때 그의 <잔서완석루>, <대팽두부>, <판전>글씨는 그의 은근과 끈기로 탄생된 것이다.
- 김정희는 조선이라는 자국의 대표 작가를 넘어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작가이다. 동양예술에서 최고의 작품은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그의 예술작품은 소박하고, 친근감있고,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달관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이었다. 김정희의 독창성은 개성이 고상한 정도까지 표현된다. 그 고상함은 절제, 절도된 상태이다. 오늘날 ‘하면된다’는 개성의 무절제적 창작에서 오히려 방종의 창작으로 보이며 얇고 얇은 창작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 김정희의 예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디자인DNA심화연구

민 화

-문자도와 책가도에 나타난
디자인요소-

발표자: 정효심

: 민화(民畵)는 어떤 그림인가?

- ‘壽福康寧富貴多男’의 의미를 표현한 그림
- 서민적 욕구가 반영된 그림
- 해학과 풍자, 장식성과 실용성

: 문자도 / 책가도

- ▶ 효제문자도 < 孝悌忠信禮義廉恥 >
- ▶ 비백혁화 飛白革畵 : 칼리그라프
- ▶ 책가도 :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 현대적 조형성

- 미의식과 미적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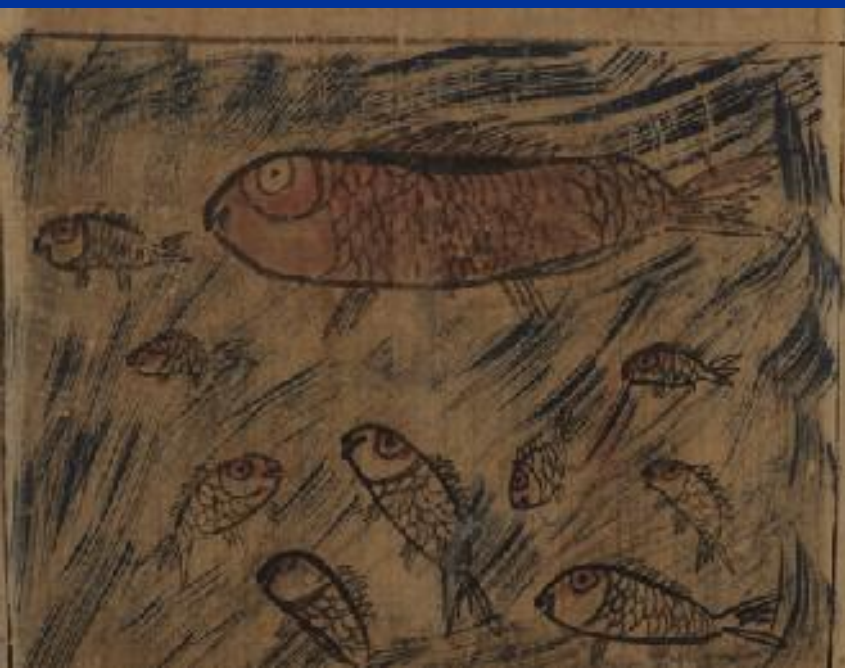
- ▶ 질박함, 순수함, 순진함
- ▶ 익살스러움에서 나오는
해학과 풍자
- ▶ 강렬한 색채표현
- ▶ 장식성
- ▶ 실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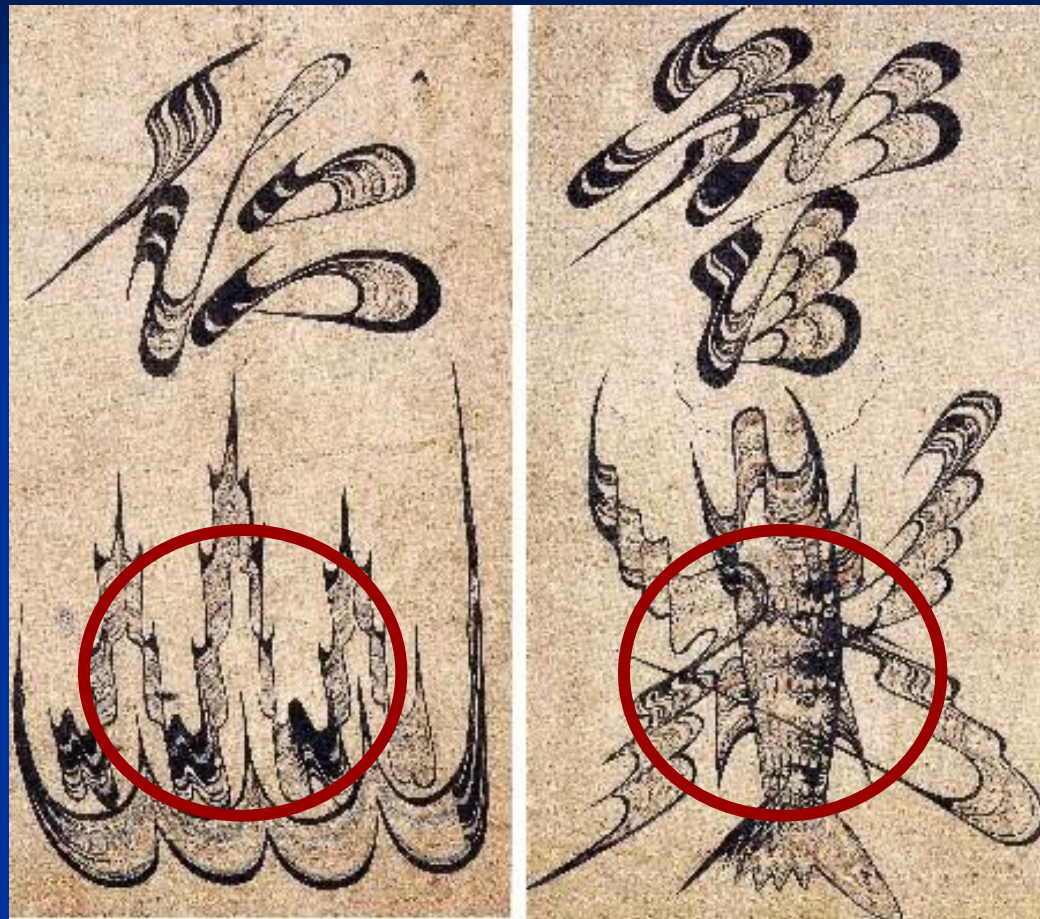
- 조형적 특징

- ▶ 다시점 多視點
- ▶ 역원근법
- ▶ 동시적 표현
- ▶ 비례관계무시
- ▶ 색채효과의 극대화
- ▶ 평면화
- ▶ 대칭 나열형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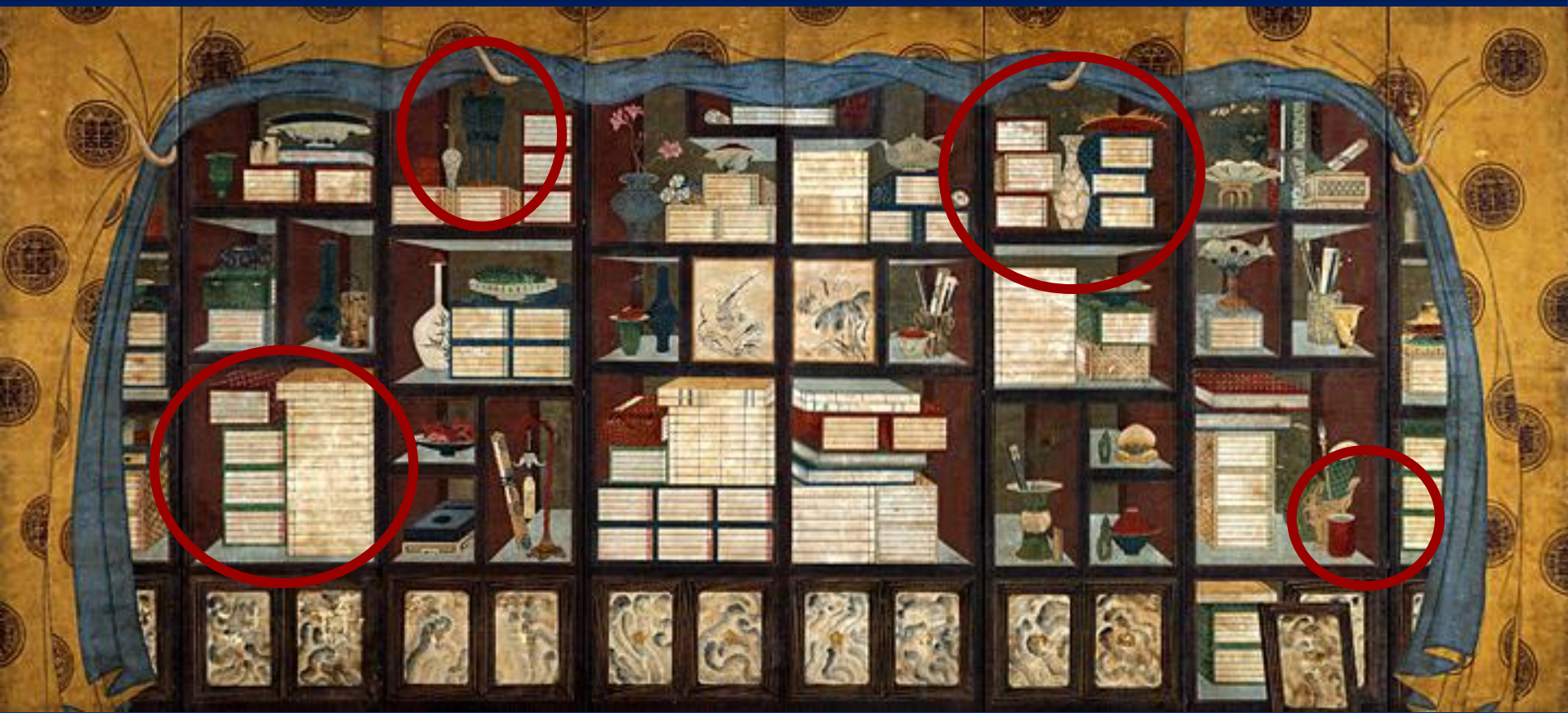


<제주도문자도 8폭 병풍> , 조선민화박물관소장





<비백-仁山, 智水>, 선문대학교박물관소장



장한중, <책가도병>, 경기도박물관소장

- 결 론 -

- 적극적 수용방법: 내적DNA와 외적DNA

내적 DNA : 질박함, 순수함, 순진함, 해학과 익살,
자연과 합일이 가져다 준 미의식

외적 DNA : 내적 DNA를 바탕으로 한 민화의 독
특한 조형성

한국근대미술의 Design DNA와 그 원형

- 전일주의와 그 시각성-

1. 한국근대미술의 디자인 DNA로서 전일주의
2. 대표사례
3. 결론

발제자: 조경진

한국근대미술의 디자인 DNA로서 전일주의

김복영에 따르면, **전일주의**는 “우리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자연주의적 특성이며, 만들지 않고 꾸미지 않으며, 불완전하나 넉넉함을 잃지 않는 외관의 특성을 심층에서 생성하고 견인하는 기능자”이며 정신문화의 원천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국문화예술의 정신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전일주의가 한국미술의 ‘정신적 유전자’ 내지는 ‘원형의식’이라고 할 때, 그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전일주의는 “전체란 모든 부분들을 감싸 안으면서도 그것들에 앞서기 보다는 그것들의 와중에 내재한다는 원리”이며, “전체와 부분을 동일시하고 하나로 이해하는 정신”이다.

1. 전일주의의 시각성 : 비표상적 이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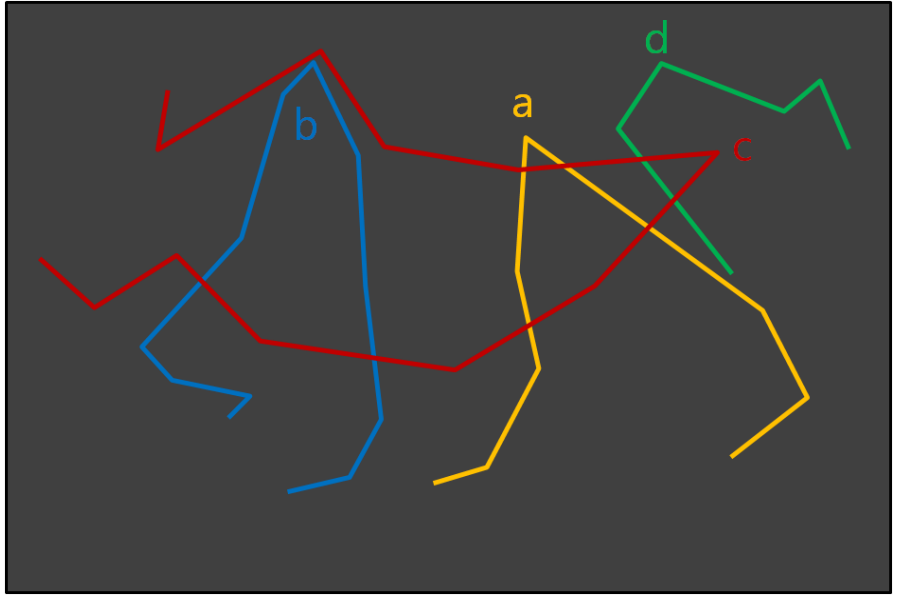
이 시각은 주체와 자연, 그리고 현상과 실재, 정신과 신체가 전일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사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 끊임없는 생성의 활동일 때, 비표상적 이면시는 바로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세계를 바라본다. 이 세계는 객관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으로 표상되지 않으며, 마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낀다고 할 때처럼 하나의 느낌으로서만 어렴풋이 예감되며 직관되는 세계이다

2. 전일주의 형식적 특성 : 역동적 게슈탈트

전일주의의 형식적 특징은 부분들이 집단화해서 단순한 하나의 전체를 지향하는 형식적 구조를 띠지만, 동시에 부분들 간, 혹은 부분과 전체 간의 틈새나 일탈, 혹은 여백이라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서, 부분들이 여유없이 하나로 통일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분들이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되, 전체가 부분들을 앞서 규정하지 않으며, 부분과 부분들, 그리고 부분과 전체 사이의 틈새를 허용하는 것, 즉 부분과 전체의 역동적 관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전일주의가 시각적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로 구조화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전체를 조화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게슈탈트지만, 부분의 일탈을 적극 허용한다는 점에서 바로 역동적 게슈탈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 사례

1. 이중섭, <흰소>1, 1953년 경, 종이에 유채, 30×41.7cm
2. 이응노, <군상(群像)>, 1988, 한지에 수묵, 68x100cm.
3. 박수근, <모자>, 1961, 캔버스에 유화, 45.5x38cm



이중섭, <흰소>1, 1953년 경, 종이에 유채, 30×41.7cm

이중섭의 <흰소>

는 주체와 대상으로서의 소가 신체와 정신의 교감을 통해 전일적으로 영기어 있는 상태를 시각화함으로서 전일적 응시의 시선을 잘 보여주는가 하면, 반복되는 사선 조합의 패턴들과 그것들의 일탈적 변형을 통해 단순구조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가족 유사성에 바탕한 부분적인 근친적 일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체의 형식을 구조화함으로써 전일주의의 시각성과 형식을 성안해 내고 있다. 한국미술의 전통적인 특성인 독특한 음악적 리듬감은 바로 이러한 단순한 몇 개 패턴과 그 패턴이나 어휘와 근친적 함수관계에 있는 패턴이나 시각적 어휘의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규칙성과 탈규칙성의 적절한 안배에서 나온다.



이응노, <군상(群像)>, 1988, 한지에 수묵, 68x100cm.

이응노의 <군상>

은 필자가 말한 역동적 게슈탈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부분과 전체가 끊임없는 변증법적 생성의 순환고리 속에서 지각된다. 즉 인간 군상 전체는 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형상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무한한 구조적 가능성 속에서 유동적으로 조직화된다는 점에서 부분과 전체의 상호귀속과 상호일치라는 전 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박수근, <모자>, 1961, 캔버스에 유화, 45.5x38cm



김홍도 풍속화의 일부분



김환기, <론도>, 1938, 캔버스에 유채, 61x72cm

박수근의 <모자>는

대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디자인적인 간결함으로 간취해 내는데 있어 탁월함으로 보여주며,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상호적이고 전일적인 관계로 해석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형식에 있어서도 어휘의 단순성과 애매성, 그리고 비균제성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부분의 일탈을 허용하면서도 전체를 넉넉하게 조직화하는 한국적 조형원리를 잘 실현해 내고 있다.

결론

전일주의는 주체와 객체, 인간 주체와 자연, 정신과 물질, 의식과 신체, 현상과 실재, 표면과 이면, 있음과 없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부분과 전체, 형상과 배경, 중심과 주변 등의 이분법적 관계항들을 대립이나 분리가 아닌 상호귀속과 상호합일의 관계에서 보도록 하는 양식적 원리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한국 전통의 세계관인 내재적 일원론의 관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전일주의가 견인할 때, 주체는 자연을 객체로서 타자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연의 비표상적 이면, 즉 합리적 체계와 개념적 틀로서는 포착되지 않는 비표상적 실재(기, 정기, 신기, 혹은 기운과 같은 표상불가능한 실재)를 신체적 느낌으로서 포착하려고 한다. 이를 전일적 응시 내지 비표상적 이면시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전일주의의 시각적 형식에서 부분적 요소들은 전체를 조화롭게 이루면서도 개별성을 잃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하나의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분은 전체의 틀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고 다소간 여유와 일탈의 성질이 부여된다. 물론 그 일탈과 여유는 전체로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이루어진다. 전체가 부분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것으로 보이고, 미완성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탈과 여유는 일종의 이산성과 비결정성을 성안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산성과 비결정성은 작가나 시대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지만, 한국미술에서 나타나는 넉넉함의 특징을 나타나게 한다. 이산성과 비결정성이 더 강조되어 역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산성과 비결정성이 약화되고 전체적 조화가 더 중시되면 다소간 정적이고 단순한 형식이 산출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중섭이나 이응노가 역동적이라면, 박수근과 김환기가 더 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와 부분이 상호귀속하는 상태로서 전일주의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역동성이나 정적이나 하는 것은 전일주의의 큰 틀에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 근대의 예술가들은 공통적으로 자연과의 전일적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 겸재와 단원으로 대표되는 진경풍속 내지 산수화의 전통은 중국의 전통 산수화와 차별점을 한국의 진경 속에서 찾으려 했고, 일제시대 향토색 논쟁을 중심으로 일어난 조선미술론이 추구하고 있던 '조선심'도 한국적 자연과 풍토를 한국적 방식으로 그려내는 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한국의 근대미술 전반을 아울러 볼 때, 한국의 근대미술에는 공통적으로 한국적 미감에 대한 자각적 의식을 계기로 한국성을 지향하는 일면이 있고, 이 한국적 정체성을 자연이나 대상과의 전일적 어우러짐의 느낌을 신체와 정신의 융일적 상태에서 포착하려 한다는 특징이 있다.

검재와 진경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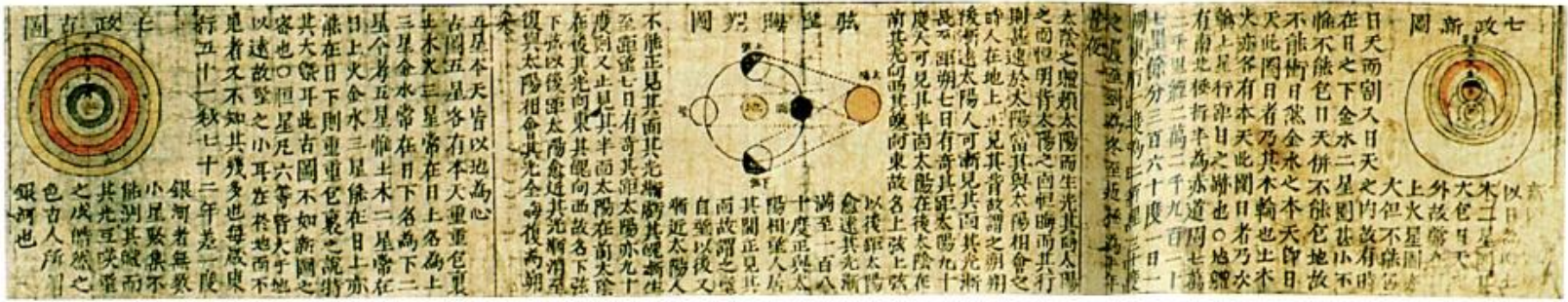
우주의 구조와 원리를 조선의 산수로 풀어내다

-구도와 시점을 통해 본 검재 정선의 예술세계

심화연구자: 이현경

1. 조선후기 세계관과 정선의 사상적 배경

- 1 양란(兩亂) 이후 사회 재건 및 유동적인 사회에 대처하려는 사상계의 치열한 모색 - 조선 성리학의 발전
- 2 조선후기 사회를 주도했던 경화사족(京華士族)의 경험적 세계관
 - 1 노론(老論) 중 낙론(洛論)계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 2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에토스-근대적 시선의 시발점
 - 3 경화사족들의 기행사경(紀行寫景)과 정선과의 교류
- 3 서학(西學)에 따른 자연지식의 변화와 상수학(象數學)적 우주론의 대입
 - 1 정선의 관상감(觀象監) 천문학(天文學) 겸교수(兼教授) 출사(出土)
 - 2 정선의 후원자이자 동료였던 낙론계 지식인들의 명물도수(名物度數) 학풍
 - 3 정선의 경학(經學)-선천학(先天學), 희역(羲易)과 같은 상수학적 관심



<훈천전도>(18세기, 규장각 소장)에서 티코브라헤 우주 구조론(태양계 구조론, 오른쪽), 달의 위상 변화 원리(가운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구조론(왼쪽)을 소개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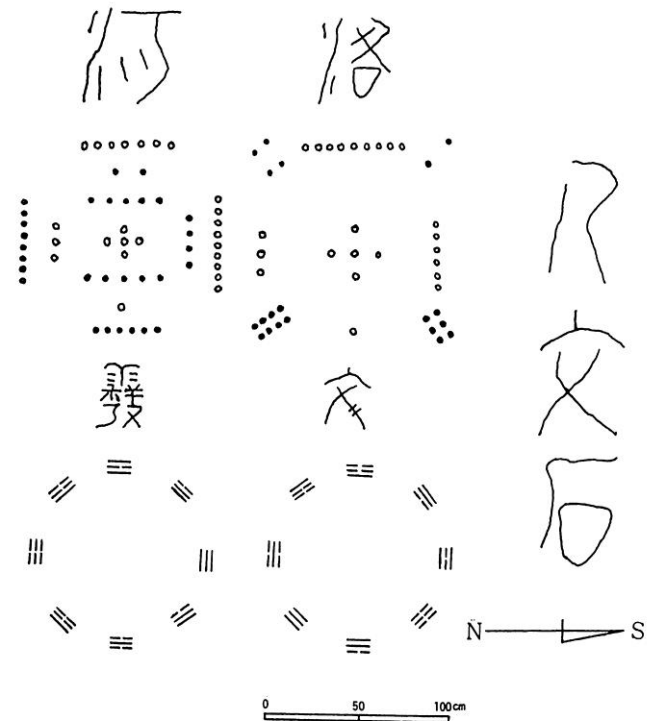


<곤여전도>, 목판본인 페르비스트의 원도(1674)를 1860년에 重刊, 8곡병풍, 146×400cm, 숭실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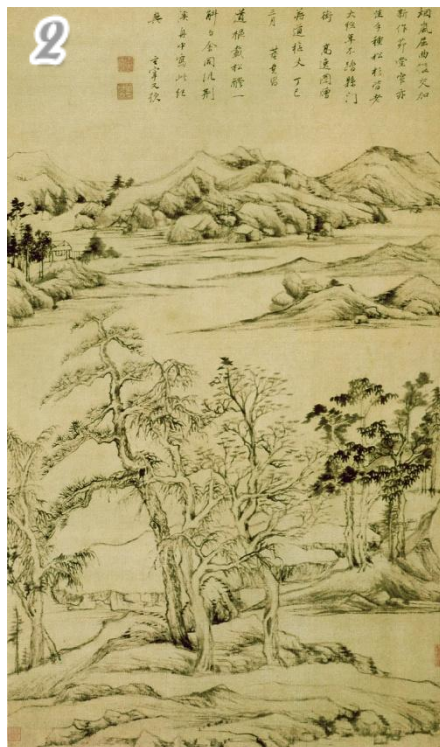


←김석문, <皇極九天圖>(제2도), 『易學二十四圖解』, 1726

김수증, <華陰洞精舍人文石 그림>→



2. 정선의 진경산수화의 회화적 배경



- 1.倪瓚, <幽寒松>, 원, 紙本墨筆, 59.7×50.4公分, 中國 北京故宮博物院
2. 동기창, <高逸圖>, 명, 紙本水墨, 89.5×51.6 中國 北京故宮博物院
3. 정선, <雪景山水>, 《四季山水圖帖》, 1719년, 견본수목, 30×53.3cm, 호림박물관



1. 소운중, <太平山水圖>, 태평산수도』, 1648년, 판화, 20×27.8cm
2. <燕磯>, 『名山圖』, 명대, 판화
3. 정선, <錦城平沙>, 《京郊名勝帖》, 1740-41, 견본채색, 23×29.2cm, 간송미술관



<개성 북쪽 천마산 자락 오조천 상류에 걸린 박연폭포>, 폭포 밑의沼, 姑母潭

정선, <朴淵瀑>, 지본수묵, 119.4×51.9cm, 개인소장



『해내기관』 권6, <쌍봉사>부분



정선, <叢石亭>부분, 《金剛山八幅景》, 33.8×21.2cm,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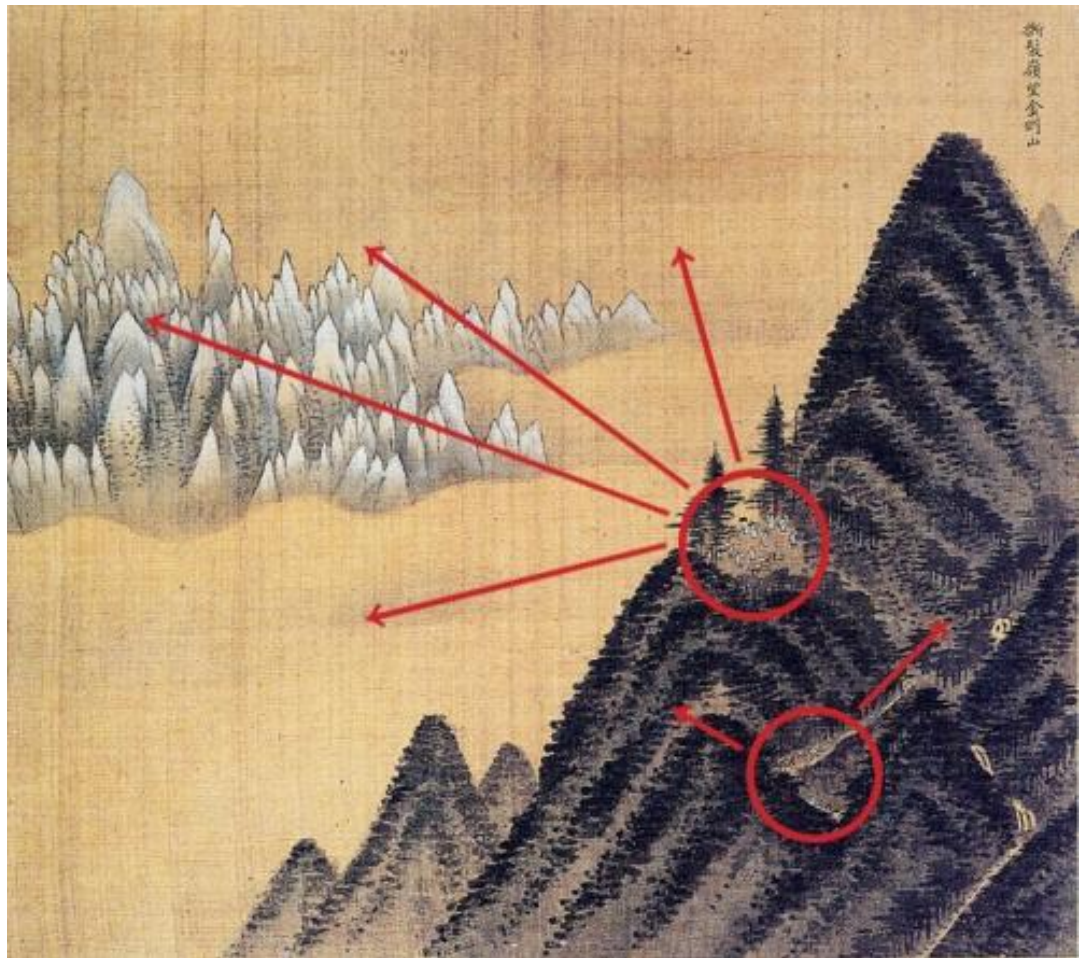
정선, <朴淵瀑>부분, 지본수묵, 119.4×51.9cm, 개인소장



정선, <瓮遷>, 25×19.2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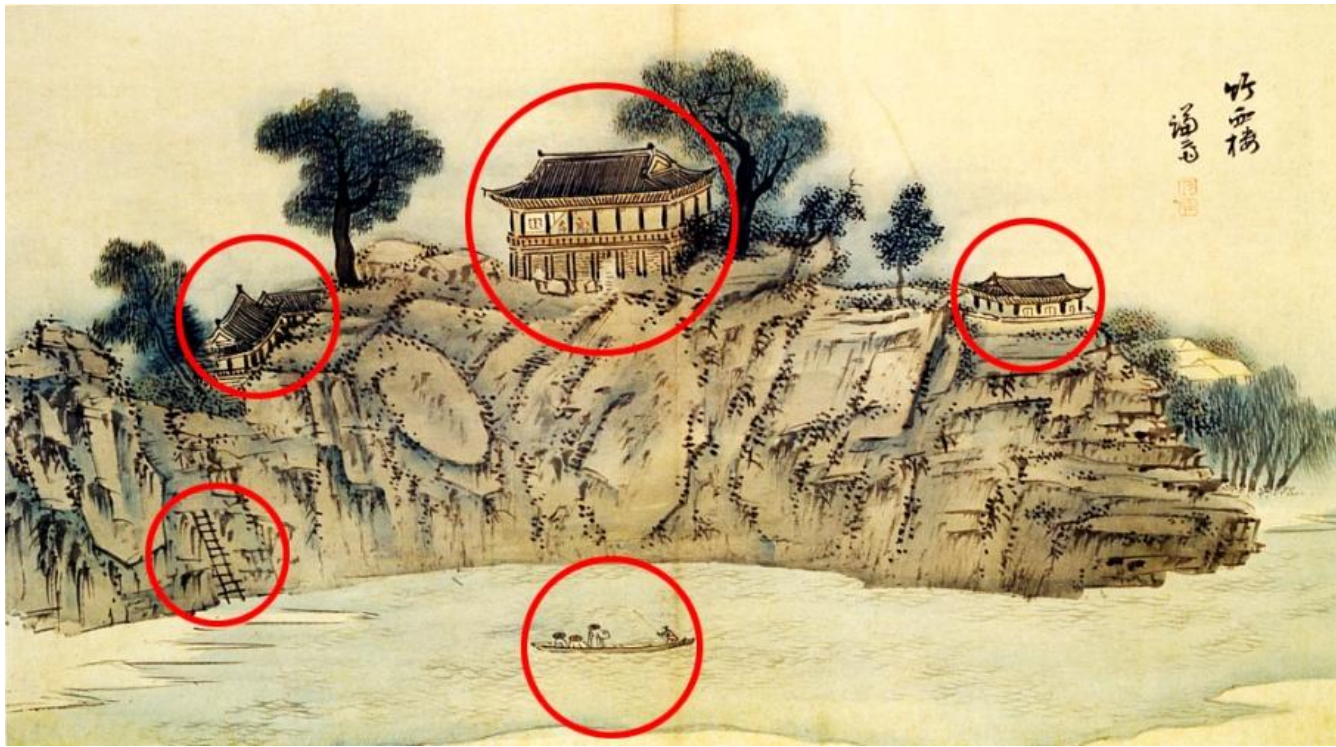


김홍도, <甕遷>, 《금강사군첩》, 30×43.7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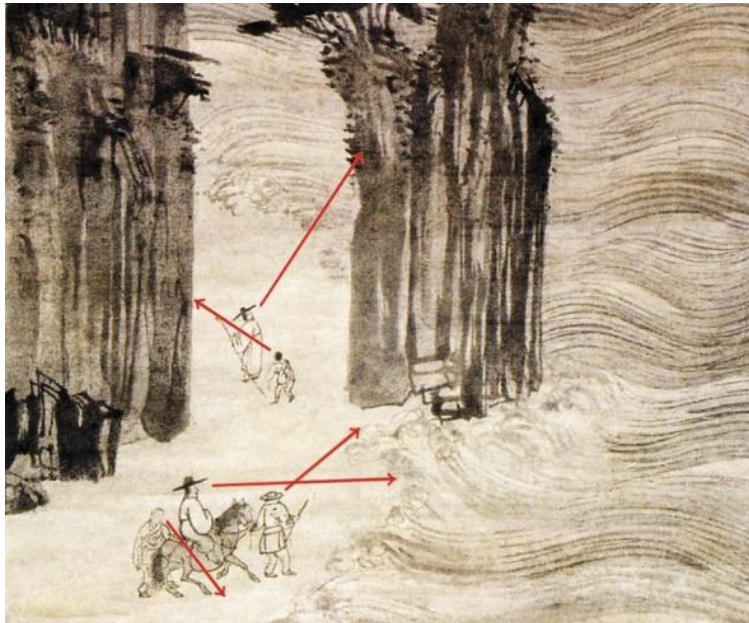


정선, <萬瀑洞>, 《謙玄神品帖》, 건본담채, 33.2×22cm, 서울대학교박물관

정선, <斷髮嶺望金剛>, 《辛卯年楓岳圖帖》, 1711, 본담채, 34.3×38.9cm, 국립중앙박물관



정선, <竹西樓>, 지본
채색, 57.8×32.3cm,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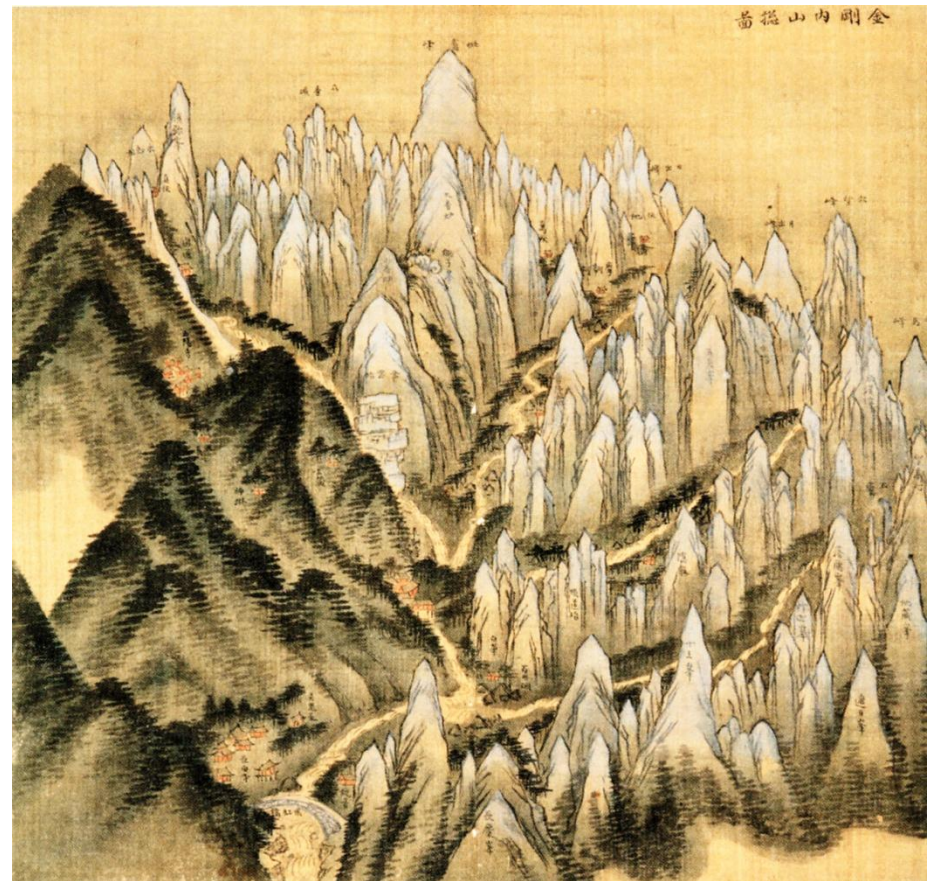
정선, <通川門岩>부분, 지본수묵,
53.8×131.8cm, 간송미술관

정선의 진경산수화 100점에 묘사된 조망 시점과 조망행동

구분	조망행동	모식도	포착된 조망점	조망시점	조망 횟수
1	올려보다		길, 교량, 정, 누, 각, 대, 너럭바위, 산기슭, 바위 절벽, 폭포주변, 숲	앙시 (고원법)	47
2	내려보다		길, 교량, 정, 누, 각, 당, 대, 언덕, 너럭바위, 산중턱, 산등성, 산정상, 바위 절벽, 폭포주변	부감시 (심원법)	77
3	바라보다		길, 교량, 정, 누, 각, 당, 대, 언덕, 너럭바위, 산모퉁이, 산기슭, 산중턱, 산등성, 산정상, 바위절벽, 폭포주변, 개울가, 나루, 숲, 집	파노라마	192
4	둘러보다		교량, 정, 누, 각, 당, 대, 언덕, 너럭바위, 산모퉁이, 산등성, 산정상, 바위절벽, 폭포주변, 나루, 배 위	이동 시점	78
5	언뜻보다 지나쳐보다		길, 산기슭, 배 위		63
6	넘어보다		길, 교량, 정, 누, 각, 당, 산기슭, 산정상, 집		30
7	사이로 보다		길, 교량, 정, 누, 각, 당, 대, 너럭바위, 산모퉁이, 산기슭, 산중턱, 산등성, 산정상, 바위절벽, 폭포주변, 숲, 집 배 위		91
8	마주보다		길, 교량, 정, 누, 각, 당, 대, 언덕, 너럭바위, 산기슭, 산중턱, 산등성, 산정상, 바위절벽, 폭포주변, 나루, 숲, 집, 배 위	대면시 (평원법)	111
각 조망점에 따른 다양한 조망행동의 1작품 당 평균 조망횟수= 6.89개≒ 약 7지점					합=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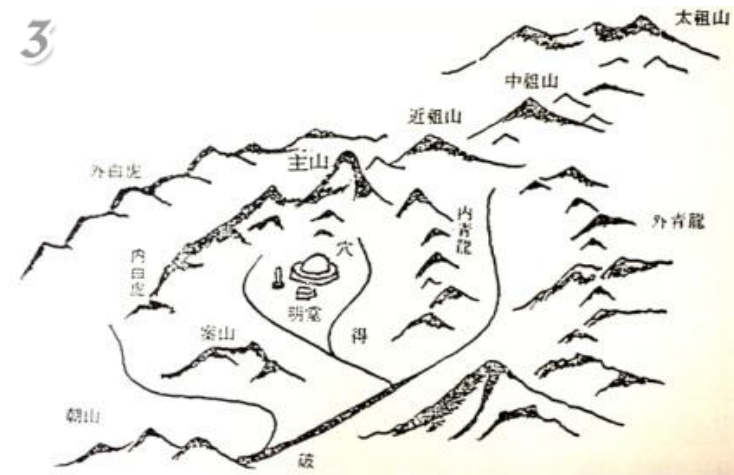
*이 표는 강영조, 배미경, 「경재 전선의 산수화에 나타난 조망행동-진경산수화 100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Vol.30, No.5, 2002, 8,10쪽에서 표3, 표4를 인용하여 재편집하고, 평균 조망 횟수를 계산한 것임

3. 조선적 우주론의 顯現, <金剛全圖>



정선, <金剛內山摠圖>, 《신묘년풍악도첩》, 1711, 비단에 엮은 색, 국립중앙박물관

정선, <金剛全圖>, 국보 217호, 지본담채, 130.8×94.0cm, 삼성미술관 LE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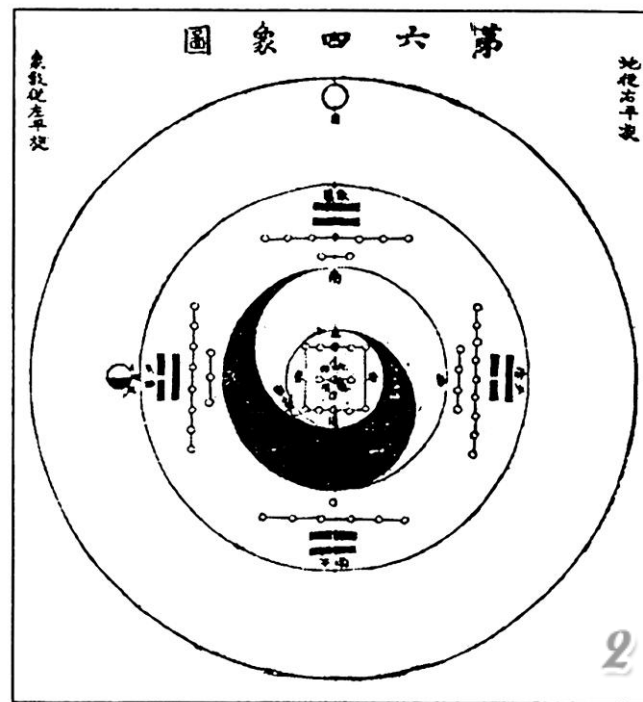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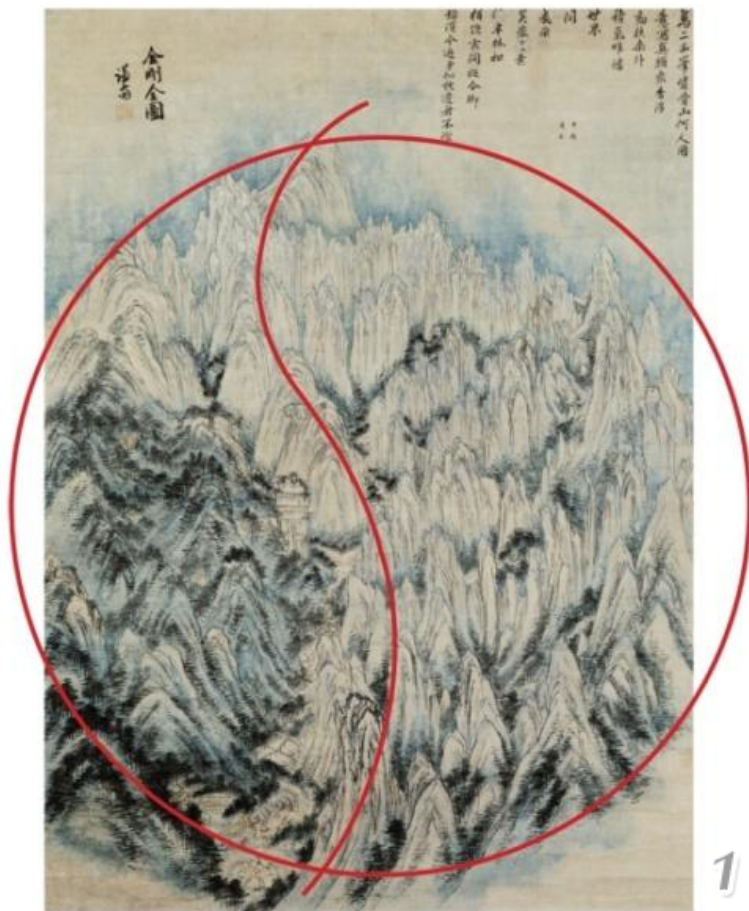
1. 필자미상, <金剛山四大刹全圖>, 1889, 목판본, 105×69.5c, 영남대학교박물관
2. 필자미상, <江陵五臺山地圖>부분, 19세기, 채색필사본, 95×56.3cm, 영남대학교박물관
3. <主山과 그를 둘러싼 명당의 풍수지리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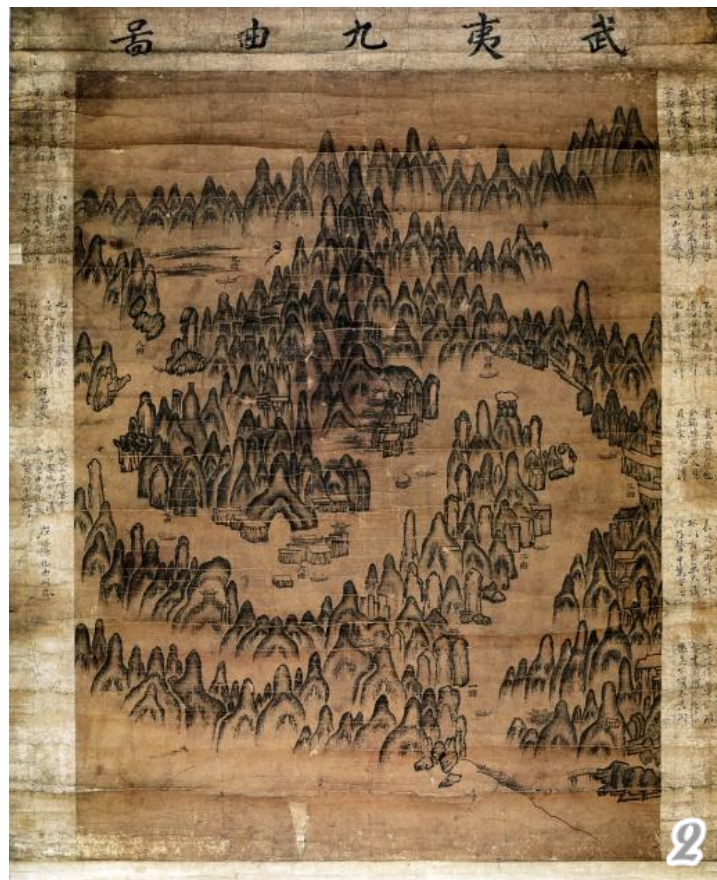
정선, <義禁府>, 1729, 지본담채,
4.6×31.6cm, 일암컬렉션



한시각, <七寶山全景>, 《北關酬唱錄》,
17세기, 견본채색, 30×46.5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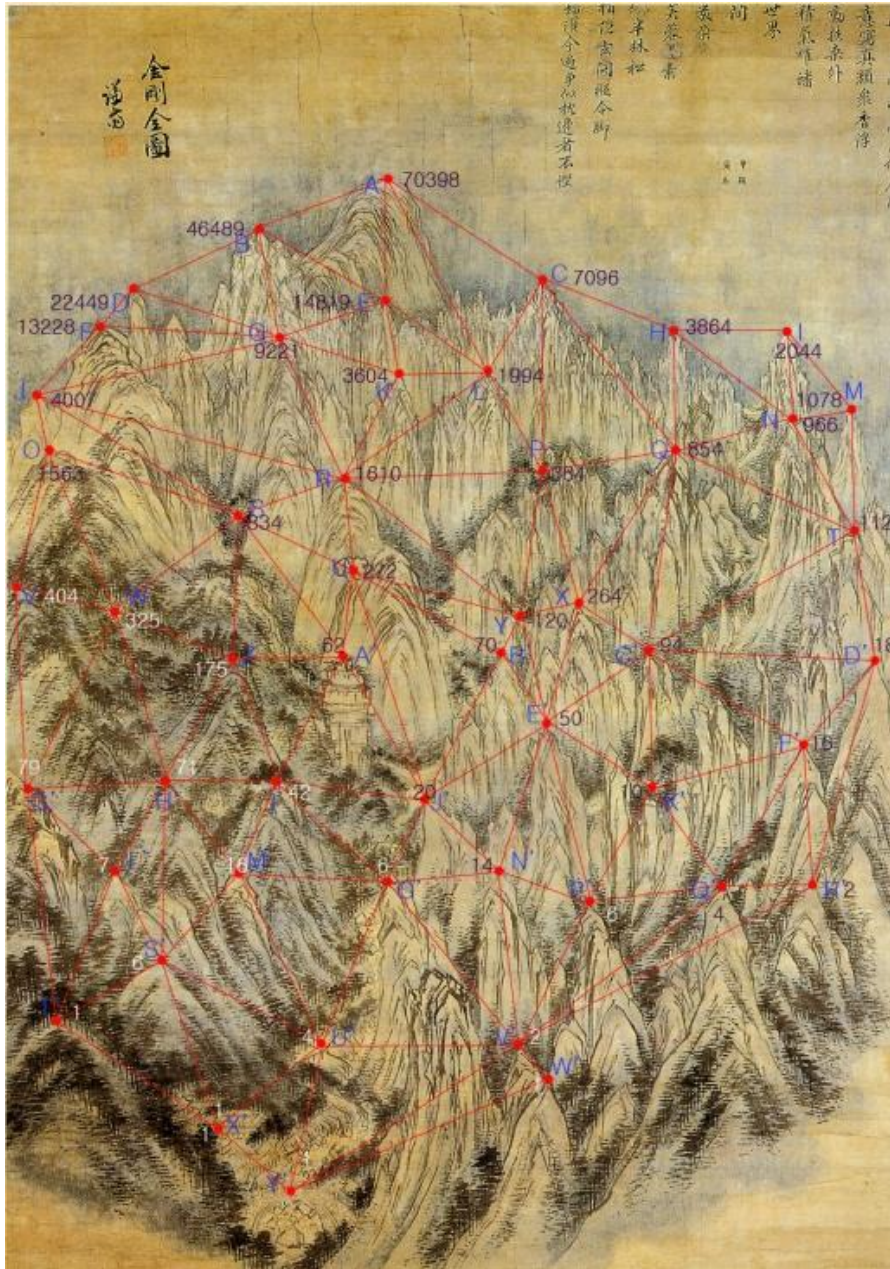


1. <金剛全圖> 속의 태극 곡선
2. 김석문, <四象圖>(제6도),
『易學二十四圖解』, 1726
3. <八卦의 방위 배열과 太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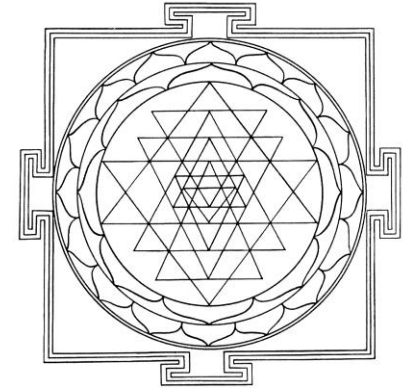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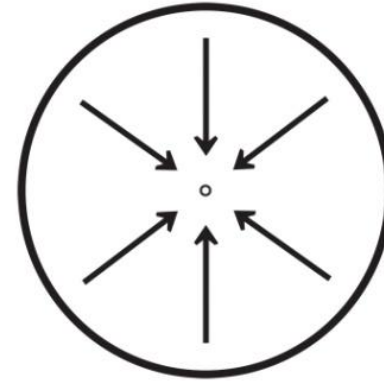


1. 傳 정선, <武夷九曲圖>, 지본담채, 62.5×49cm,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2. 필자미상, <武夷九曲圖>, 17세기, 지본담채, 112.5×3.3cm, 호림박물관
3. 필자미상, <武夷九曲圖>, 지본, 97×45cm, 최효삼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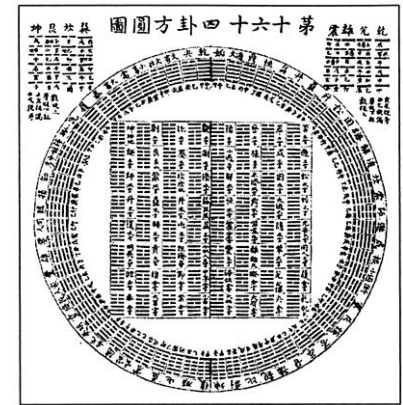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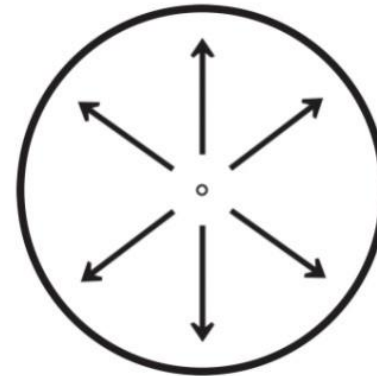
<금강전도>의 조망시점과 조망 행위의 경우의 수



서양과 동양의 원형 공간



<구심형(신성의 위계 공간)>



<발산형(세속의 평등 공간)>

<불교적 만다라>↑↑

김석문,

<六十四卦方圓圖>(제10도),

『易學二十四圖解』, 1726↑

4. 천지의 운행을 형이상학적 원리로 풀어낸 산수, <仁王霽色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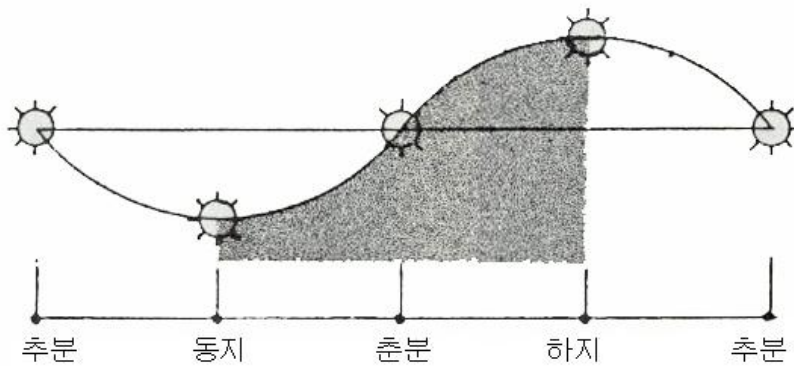
정선, <인왕제색도>, 1751년, 국보 제216호, 지본수묵, 79.2×138.2cm, 삼성미술관 LE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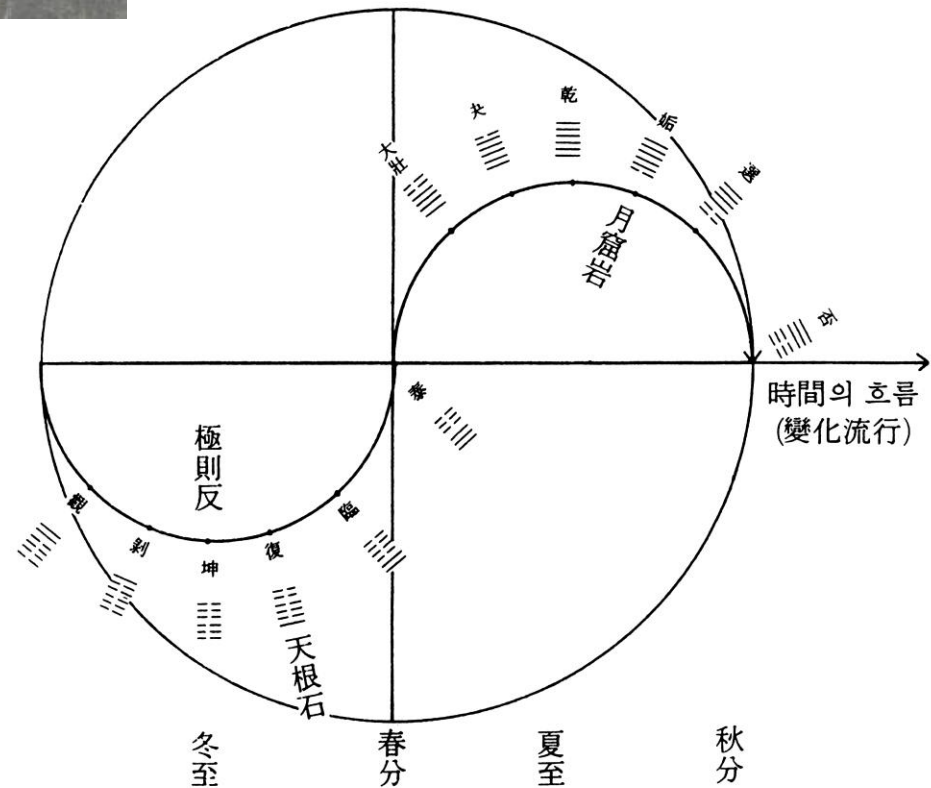
<인왕제색도의 산세에 따른 태극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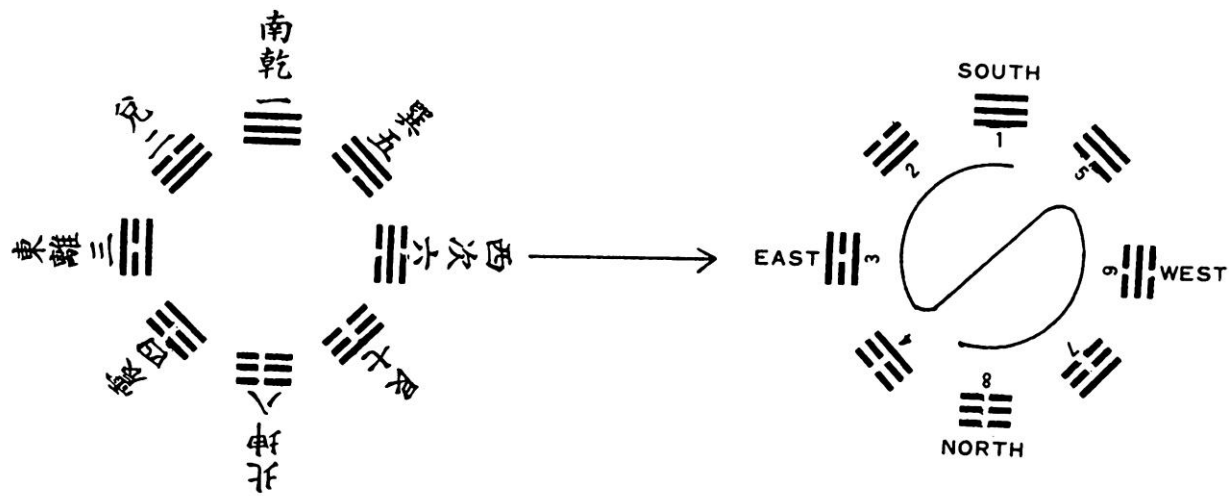
<12개월 陰陽消息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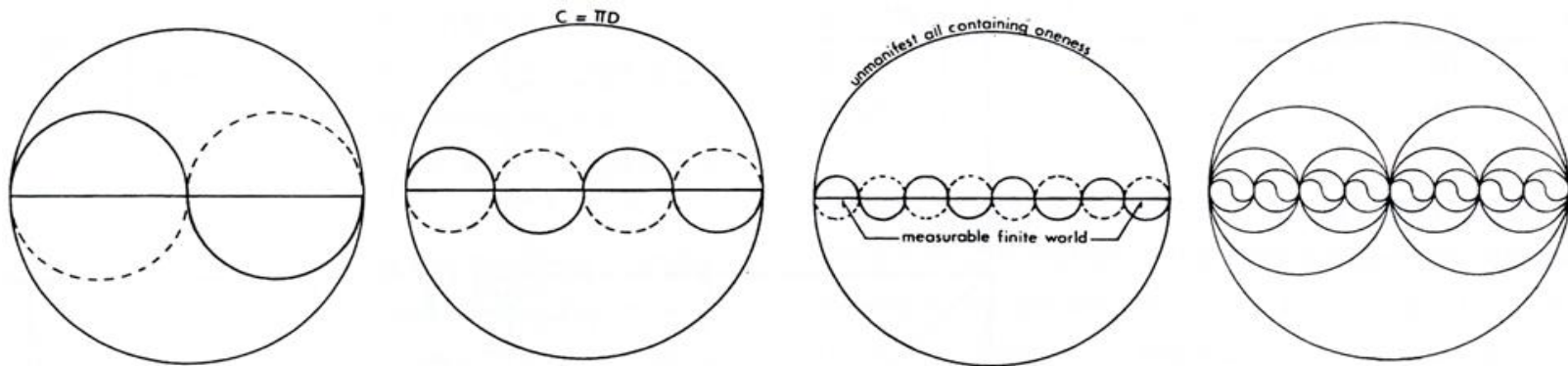
<계절의 순환에 따른 황도 곡선>

태양熱의 증감
↑
↓





<복희팔괘를 방위 체계에 맞춰 배열한 도상>



<태극도에 나타난 陰陽相錯의 교대 원리>

5. 정선 작품을 통해 본 한국 디자인의 특성

- 1 자연만물을 유기체적 순환구조로 바라보는 시각
- 2 物象의 興趣를 우주 원리로 파악한 內的 視點
- 3 자연스러운 陰陽相錯에 따른 조화미
- 4 靜中動, 動中靜의 교대 원리에 따른 회화적 표현
- 5 球心과 發散을 수용하는 全知的 視點



2011 한국디자인DNA 세미나

- 한국디자인DNA발굴사업 ; 단원의 풍속화 -

2011. 2. 10.

주최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DNA발굴추진단

단원 풍속화에 담긴 조형미, '단원다움'

변 청 자

미술학 박사, 미술비평 / 한국조형디자인학회 사무국장

연구과정



- ‘21세기에 왜 다시 풍속화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단원 풍속화에서의 한국적 디자인DNA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라는 과정적 문제를 시대성과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
- 단원 풍속화에서 도출한 디자인DNA를 ‘아름다움’에서의 ‘-다움’과 융합된 ‘단원다움’으로 개념화하고, ‘단원다움’이 잘 드러난 대표디자인 작품을 선정

‘21세기에 왜 다시 풍속화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가?’

-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달라진 관점의 차이

Modernism

- 문화 : 창조적 활동
- 창조 : 없던 것[無]이 생겨나는[有] 것

Post-modernism

- 문화 : 생산과 소비 활동
- 창조 : 기존에 있던 것(old)을 다르게 (new) 인식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것

절대적 새로움의 창출> 상대적 새로움의 재생산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물질이나 형식의 발견을 통한 산업적 생산에 주목했으나, 모더니즘 이후 사회에서는 기존의 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재생산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새로움의 창출 내지는 재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움의 생산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운 문화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새로움이란 비교의 문제 내지는 해석의 문제가 된다.

디자인DNA는 문화재생산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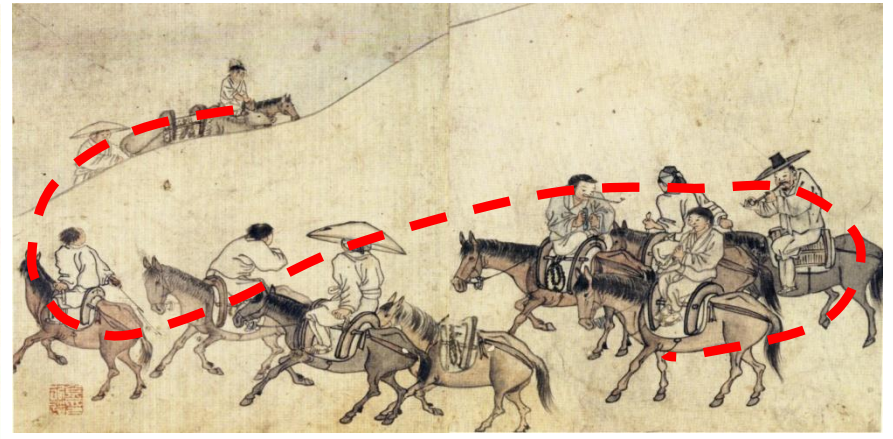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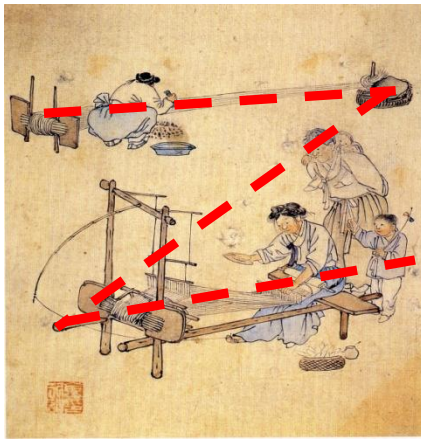
‘단원다움’이란?

- 배경삭제를 통한 관람자 중심의 시각과 현재성
- 화면 구도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 칼리그래피적 운필 묘사를 통한 감성적 표현
- 과학적 관찰과 과감한 변형이 중첩된 해학의 코드화

• 배경악제를 통한 관람자 중심의 시각과 현재성



- 화면 구도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 칼리그래피적 운필 묘사를 통한 감성적 표현



- 과학적 관찰과 과감한 변형이 중첩된 해학의 코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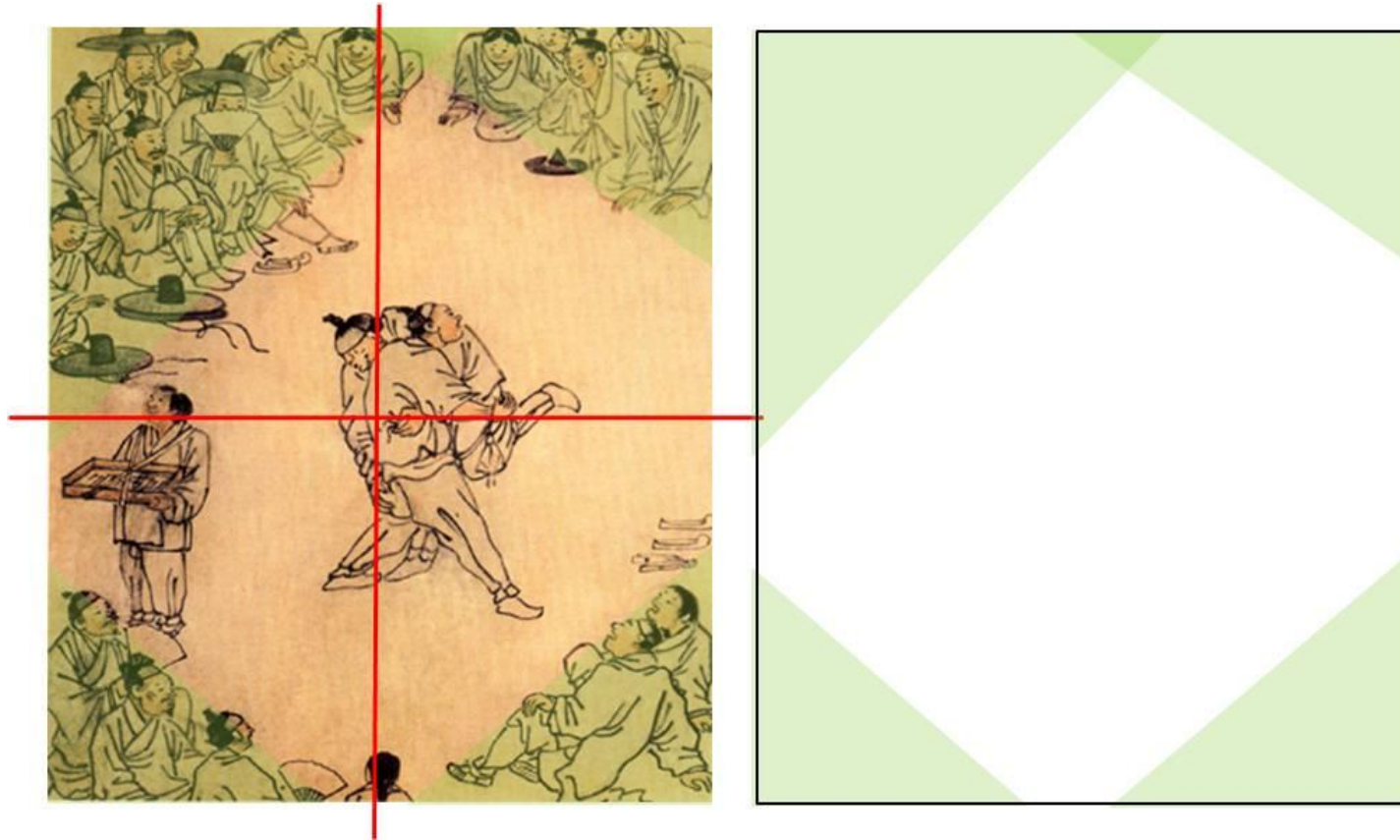


대표사례 01



- 단원 풍속화 뿐 아니라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명사로 불림
- 대용적 측면에서 한국의 전통풍습인 씨름을 소재로 다룸

김홍도, <씨름>, 18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담채, 27x22.5cm,
보물 제527호 『풍속화첩』에 수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형식적 측면에서
 - 넉넉하고 여유로운 화면구성과 화면 집중 효과
 - 배경을 제거함으로써 여백의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 | 특정 시간이 아닌 '현재성'을 구현
 - | 비움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채움을 경험하게 하는 역설적 공간으로 활용

대표사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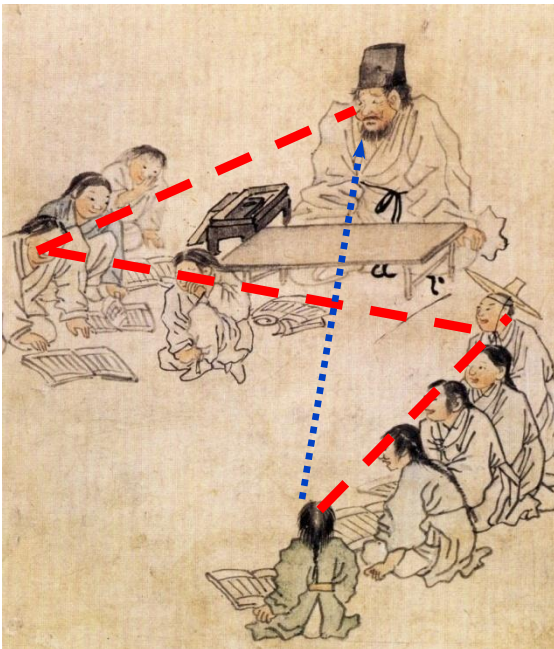
- 단원 풍속화 뿐 아니라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명사로 불림
- 내용적 측면에서 서당에서의 흔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다룸

김홍도, <서당>, 18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담채, 27x22.5cm,
보물 제527호 『풍속화첩』에 수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형식적 측면에서

- 인물의 배치와 시선의 흐름이라는 두 관점을 복합적으로 적용
- 시선의 흐름을 따라 완결되는 스토리텔링 완성
- 전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감법으로 표현
- 신분에 따른 위치와 복식을 차별화하면서도 한 화면 안에 배치하여 당시의 사회상인 신분제와 반상의 구별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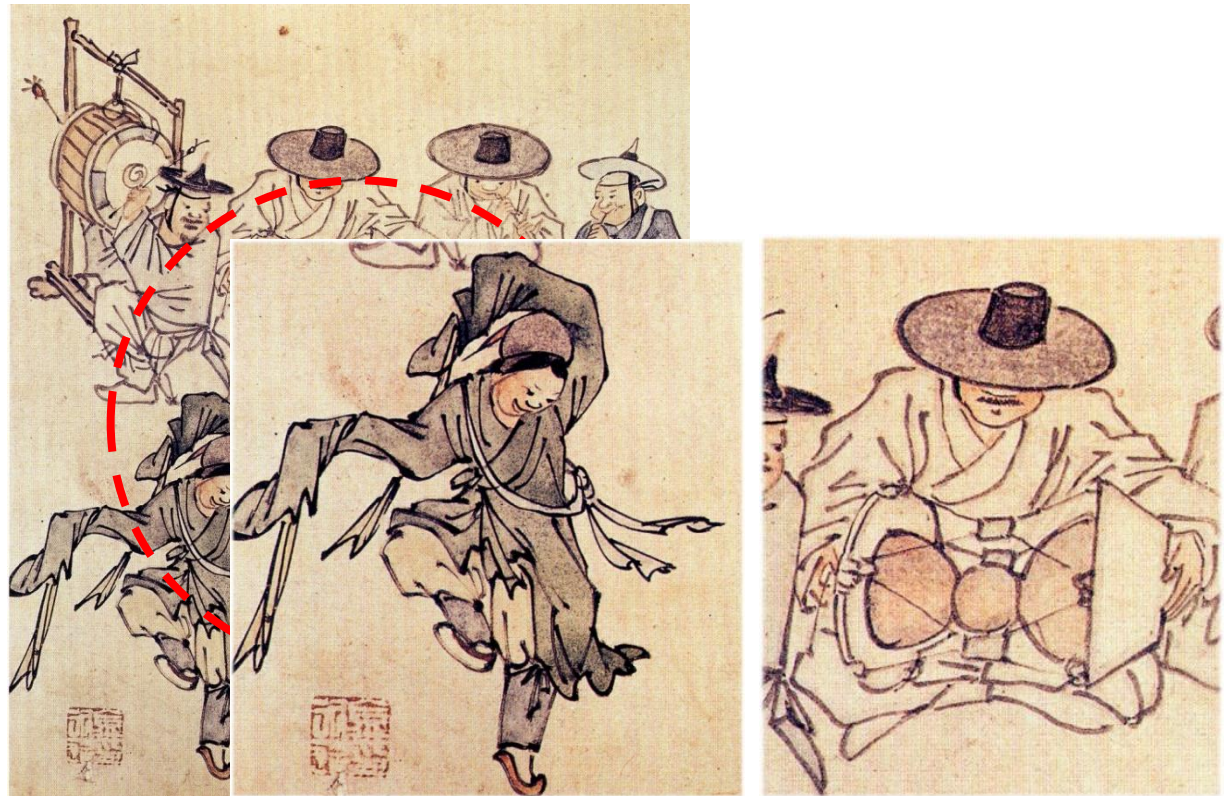
<씨름>에서 설명한 바와 이 그림에서도 배경은 그리지 않았으며, 배경의 삭제를 통해 공간적으로 영원한 현재성을 획득하고 있다. 동시에 인물의 배치와 시선의 흐름에 따라 인식되는 화면 구도로 인해 멈춰버린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즉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생성시키는 하나의 동영상처럼 경험된다는 점에서 현대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이야기 공간이자 관람객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참여를 유발한다.

대표사례 03

- 단원 풍속화 뿐 아니라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명사로 불림
- 내용적 측면에서 악공의 가락에 맞춰 춤추고 있는 무동의 모습을 소재로 함



김홍도, <무동>, 18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담채, 27x22.5cm,
보물 제527호 『풍속화첩』에 수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형식적 측면에서

- 원형구도를 통해 음악적 리듬감 표현
- 윤필과 먹의 농담, 인물들의 얼굴 각도의 차이를 이용해 평면적인 화면에 3차원의 공간감을 형성
- 과학적이 고찰과 세밀한 관찰을 통해 간결한 화면 속에서도 풍부한 이야기와 다양한 감정을 전달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수히 많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창조적 새로움’을 실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예술가가 되었으며, 그들이 만든 것이 곧 예술작품이 되었다.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가 자신의 예술적 유전자를 십분 발휘하여 현실세계의 기물器物과 생각들을 독특한 화면을 통해 작품으로 구현하였듯이 예술가는 자신이 보유한 심미안審美眼과 미의식美意識이라는 정신적DNA를 독특한 기술技術로 전환하여 특별한 물질物質로 승화昇華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예술품藝術品’이나 ‘명품名品’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감사합니다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지리도

심화연구자 김경균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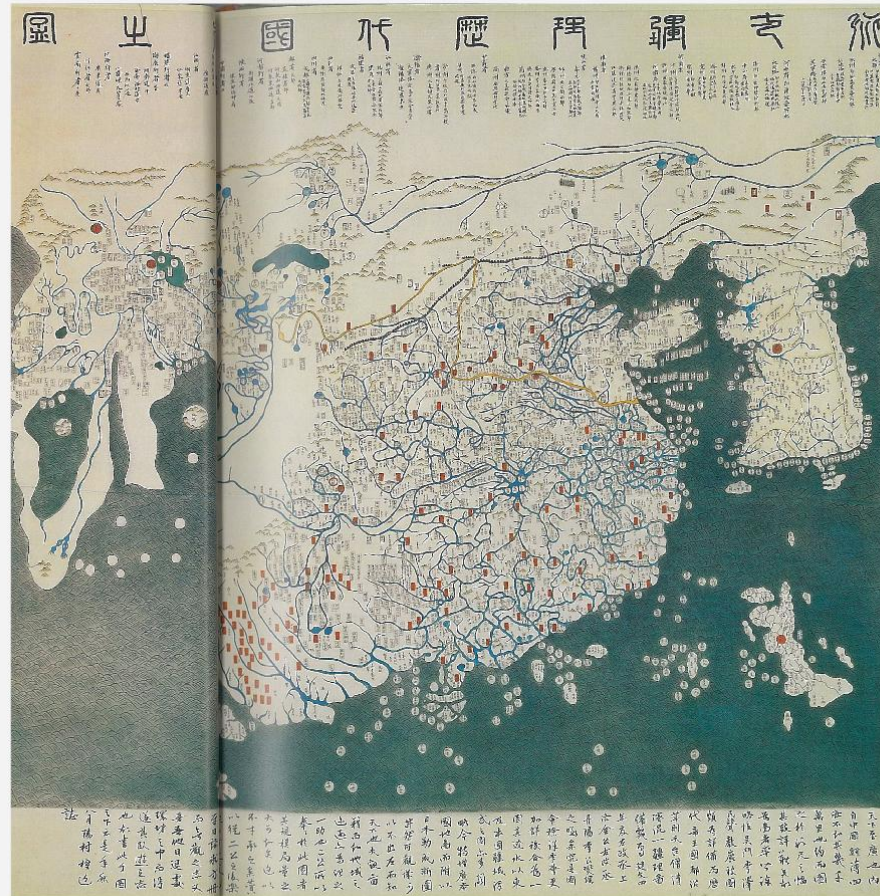
제1부 | 연구개요

- 1장 연구배경
- 2장 연구목적
- 3장 연구범위 및 방법
- 4장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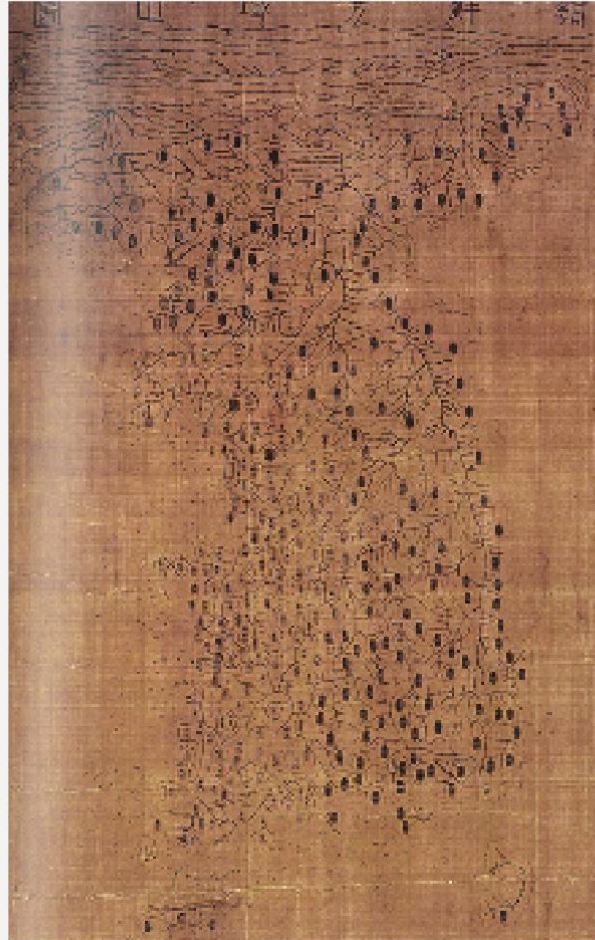
제2부 | 디자인 DNA 연구

- 1장 조선시대 이전의 지도 분류 및 특징
 - 1절 삼국시대의 지도
 - 2절 고려시대의 지도
- 2장 조선시대 지도의 시대적 분류와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1절 혼일강리역대국지도
 - 2절 조선방역지도
 - 3절 동국지도
 - 4절 천하도
 - 5절 천상열차분야지도
 - 6절 도성도
 - 7절 수선전도
 - 8절 청구도
 - 9절 여지전도
 - 10절 대동여지도
 - 11절 지구전후도
 - 12절 정읍현 군현도
 - 13절 광주평장동도
 - 14절 울릉도외도

제3부 | 후기



〈그림1〉 『혼일강리역대국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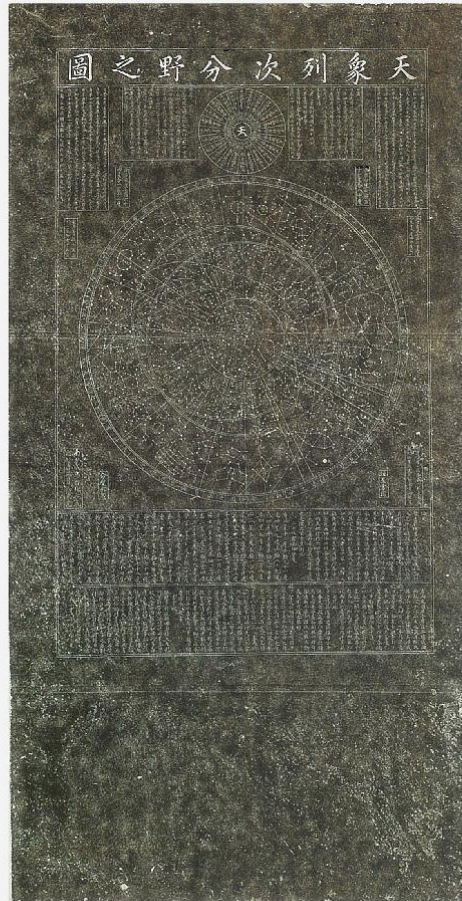
〈그림2〉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그림3〉 『동국지도東國地圖』



〈그림4〉 『천하도天下圖』



〈그림5〉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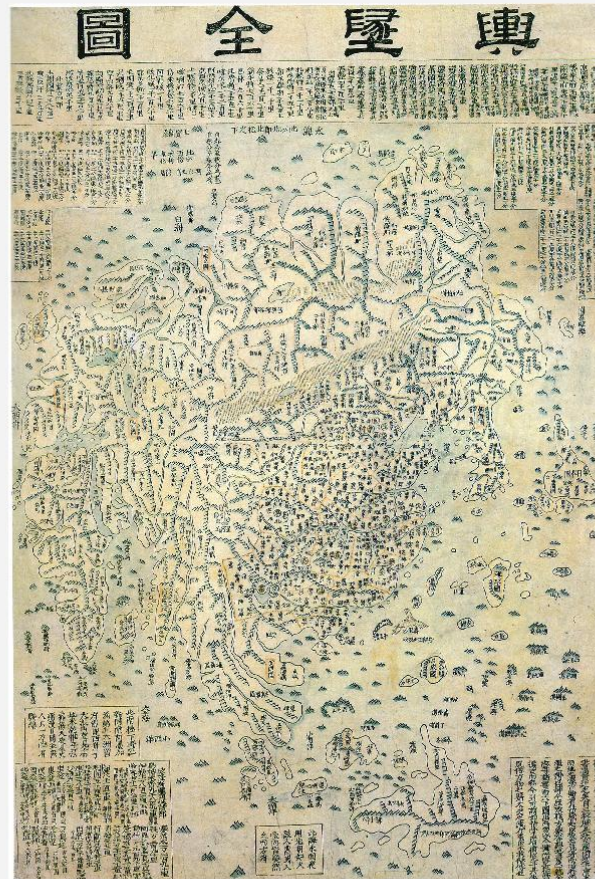
〈그림6〉 『도성도都城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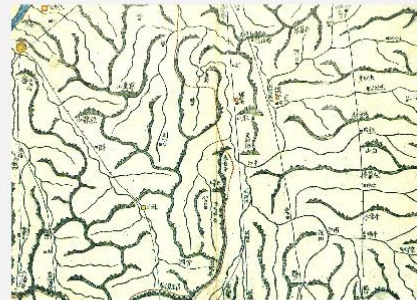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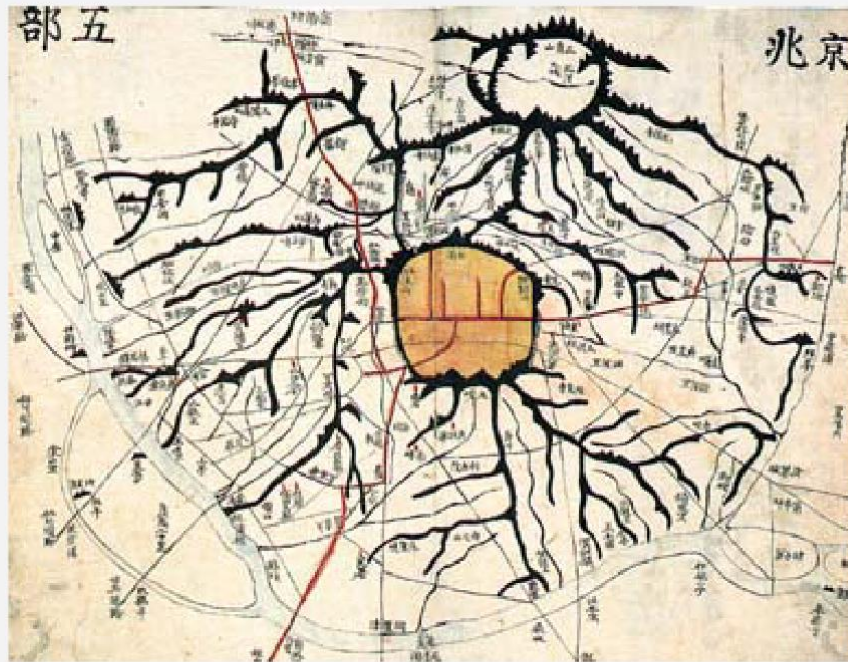
〈그림7〉 『수선전도수선전』



〈그림8〉 『청구도靑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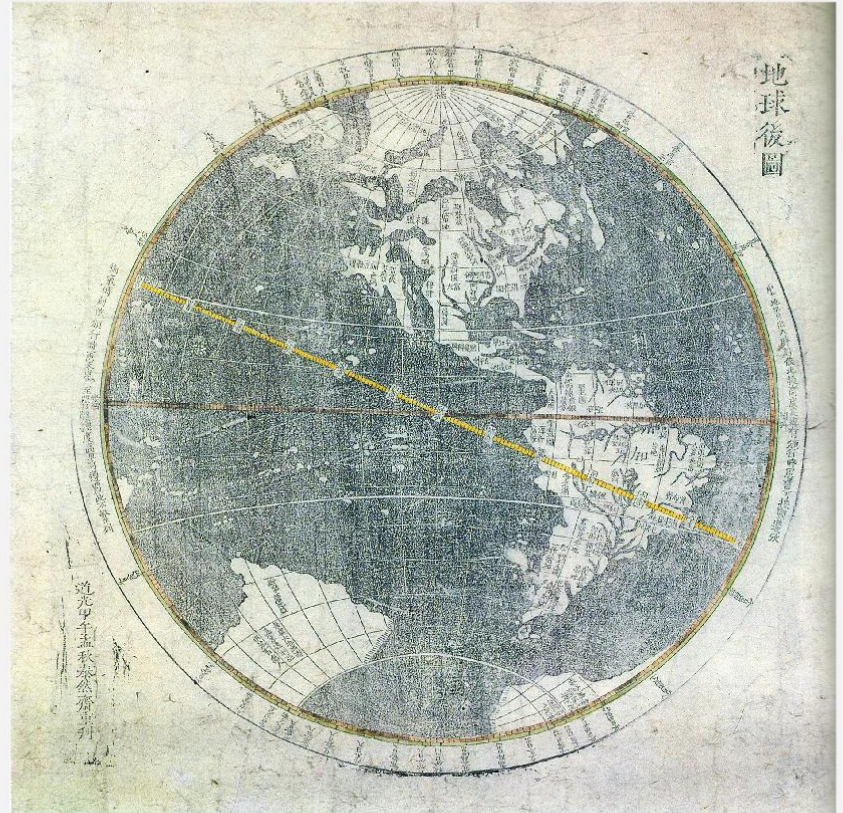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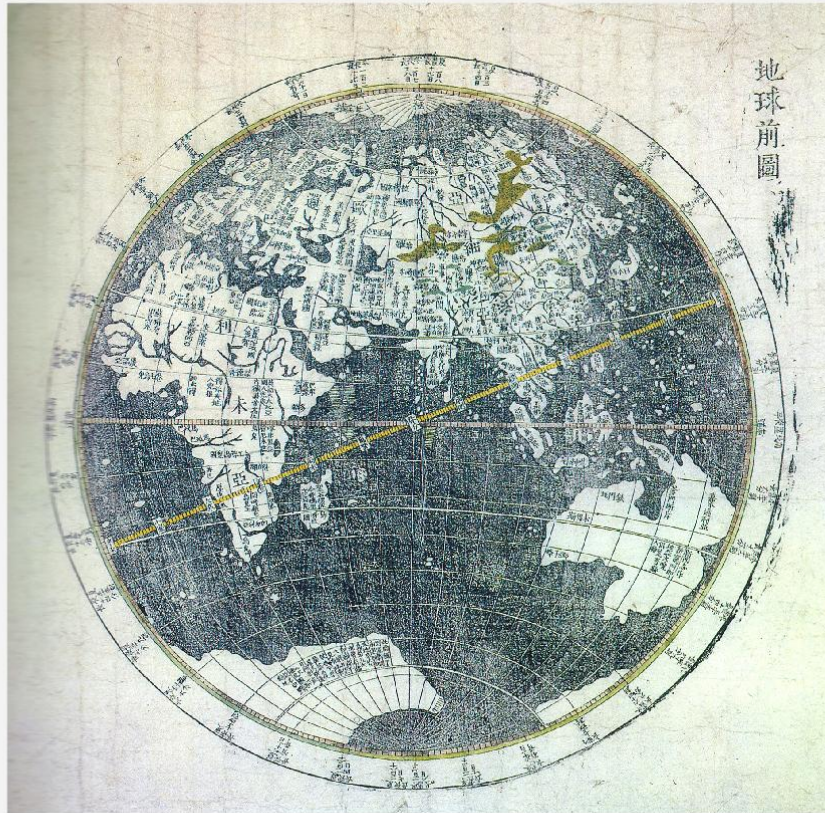


〈그림9〉 『여지전도輿地全圖』



地 圖 標					
牧所	倉庫	驛站	鎮堡	城池	營衛
圖	■	①	□	城山	○
牧場屬	城有	城有	城有	城有	營在邑治則無標
道 路					
直	二	三	四	烽 燧	
	▲	●	○	始奉陵號書圖內	
	城有	城有	城有		
		舊邑址			

〈그림10〉 『천하도天下圖』



〈그림11〉 『지구전후도』



〈그림12〉 『정읍현 군현지도』



〈그림14〉 『울릉도 외도』

한국디자인 DNA 심화연구

행실도 行實圖

연구 발표자 · 신 동 천

行實圖

행실도가 다른 서적들과 다르게

책의 이름 끝에 ‘서(書)’, ‘록(錄)’, ‘사(史)’ 등을 붙이지 않고 ‘도(圖)’라고 이름 붙인 것은,
글 보다는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1431년(세종 13)
선정삼강행실도(選定三綱行實圖)	1490년(성종 21)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1514년(중종 9)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1518년(중종 13), 1730년(영조 6)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년(광해군 9)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797년(정조 21), 1859년(철종 10)

오륜행실도

삼강행실도

孝子

부위자강(父爲子綱)

忠臣

군위신강(君爲臣綱)

烈女

부위부강(夫爲婦綱)

兄弟

장유유서(長幼有序)

朋友

붕우유신(朋友有信)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1431년(세종 13)

‘선정’삼강행실도(‘選定’三綱行實圖)

1490년(성종 21)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1514년(중종 9)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1518년(중종 13), 1730년(영조 6)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년(광해군 9)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797년(정조 21), 1859년(철종 10)

대표 디자인 추천 1.

三綱行實圖

孝子

三綱行實

대표 디자인 설명

- 목판본
- 설순 외 지음
- 김영한 소장 (대전 대덕구 중리동 165-1)
- 문화재자료 제19호
- 1431년(세종 13)에 처음 편찬되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편집. 이 책은 세조의 명을 받아 편집한 것을 1511년(중종 6)에 한자로 된 글을 한글로 풀이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

대표 디자인으로서 가치

- 지식정보 전달 매체로서 그림 중심의 책을 처음으로 편찬
- 편찬 기획 단계부터 목판본으로 대량 제작할 것을 계획
- 도덕적·윤리적 ‘사람 경영’을 위한 유교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활용

대표 디자인 추천 2.

五倫行實圖

忠臣

五倫行實

일신
15
17
2

대표 디자인 설명

— 활자본

— 5권 4책

— 호암미술관 소장

— 1797년(정조 21) 왕명에 따라 세종 대부터 전해지고 있는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의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하여 간행

— 내용은 삼강인 부위자강(父爲子綱)·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부강(夫爲婦綱)에

오륜 중 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을 포함시켜 150인의 행적을

선별해 간행. 그림은 김홍도(金弘道)가 담당

대표 디자인으로서 가치

- 본문에 한글을 포함시켜 일반 백성들의 지식정보 습득을 위해 배려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야기를 다수 포함시켜 자주적 성향을 배가시킴
-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해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다수 포함시킴
- 보다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전의 많은 이야기를 선별해 편집

대표 디자인 추천 3.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王祥剖氷

王祥剖冰



三綱行實孝子圖

三祥。琅邪人。蚤喪母。繼母朱氏不慈。數譖之。由是失愛於父。每使掃除牛下。祥愈恭謹。父母有疾。衣不解帶。湯藥必親嘗。母嘗欲生魚。時天寒水凍。祥解衣。將剖冰求之。冰忽自解。雙鯉躍出。母又思黃雀炙。復有黃雀數十飛入其幕。有丹柰結實。母命守之。每風雨。輒抱樹而泣。母歿居喪毀瘠。杖而後起。後仕於朝。官至三公。

王祥誠孝真堪羨。承順親顏志不回。不獨剖冰雙鯉出。還看黃雀自飛來。鄉里驚嗟孝感深。皇天報應表純心。白頭重作三公貴。行誼尤為世所欽。

晉有王祥。生魚母嗜。天寒冰凍。綱釣難致。解衣卧冰。自躍雙鯉。懇懇孝誠。奚止此耳。抱柰夜跣。羅雀朝饋。後拜三公。名標青史。

王祥剖冰

晉



王祥琅琊人蚤喪母繼母朱氏不慈數譖之由是失
愛於父每使掃除牛下祥愈恭謹父母有疾衣不解
帶湯藥必親嘗母嘗欲生魚時天寒冰凍祥解衣將
剖冰求之冰忽自解雙鯉躍出母又思黃雀炙復有
黃雀數十飛入其幕有丹柰結實母命守之每風雨
輒抱樹而泣母歿居喪毀瘁杖而後起後仕於朝官
至三公

詩王祥誠孝眞堪羨承順親顏志不回不獨剖冰
雙鯉出還看黃雀自飛來 鄉里驚嗟孝感深皇
天報應表純心白頭重作三公貴行誼尤爲世所

欽

贊晉有王祥生魚母嗜天寒川凍網釣難致解衣
臥冰自躍雙鯉懇懇孝誠奚止此耳抱柰夜號羅
雀朝饋後拜三公名標青史

왕상은딘나라낭야사름이니일즉어미를여히
고게모주시스랑티아니하여스로참소하니일
로말미암아아비게스랑을일허미양마구를츠
라하되상이더옥공순하더라부외병이이시매
오시셔를그르디아니하고탕약을बाट드러친히
맛보고어미산고기를먹고저하디날이치위를

王祥剖冰 晉



五命丁實圖

卷一

孝子

三十四

王祥剖冰 晉



三綱行實孝子圖

九五

대표 디자인 설명

— ‘왕상부빙’은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시간에 따른 화풍과 표현 기법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대표 디자인으로서 가치

『삼강행실도』

- 그림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름표 형식을 취함
- 서사적 그림 표현법은 스토리 전개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오륜행실도』

- 자발적으로 독서를 즐기고 정보를 전달하는 유교 교화서의 역할
- 그림의 목적이 서사적 설명보다 명확한 상황 설명을 위한 것으로 전환
- 설명 중심의 그림에서 예술적 표현 중심으로 변화 (소장가치)
- 한글을 병기해 일반 백성들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

결론

『행실도』의 한국디자인 DNA로서 가치는,

『행실도』의 한국디자인 DNA로서 가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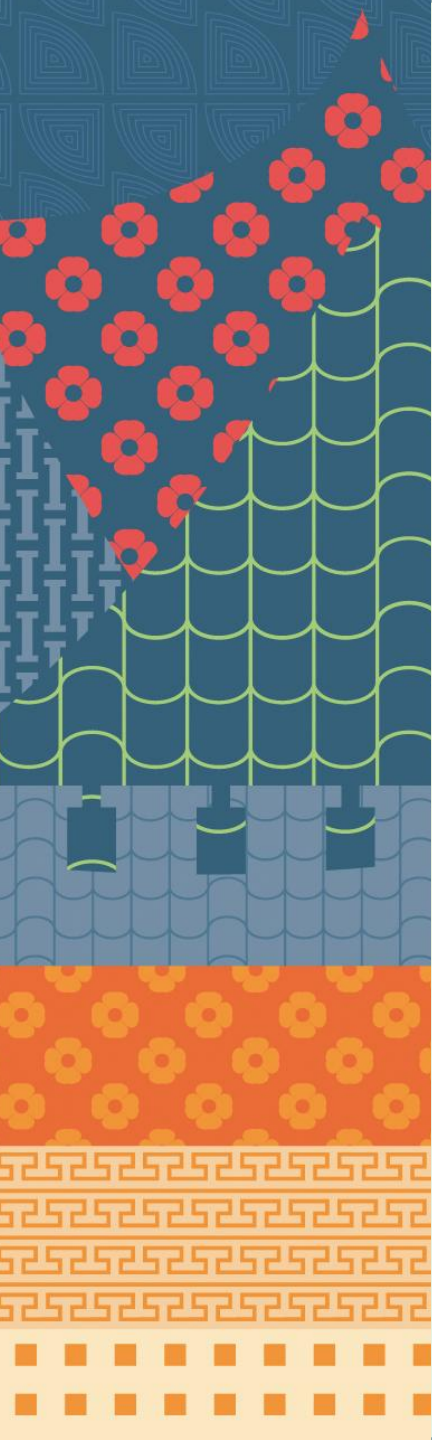
일부 상위 계층만을 위한 책이 아니었다.

『행실도』의 한국디자인 DNA로서 가치는,

일부 상위 계층만을 위한 책이 아니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계획되었다.

『행실도』의 한국디자인 DNA로서 가치는,

일부 상위 계층만을 위한 책이 아니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계획되었다.
시대 흐름에 맞춰 편집하고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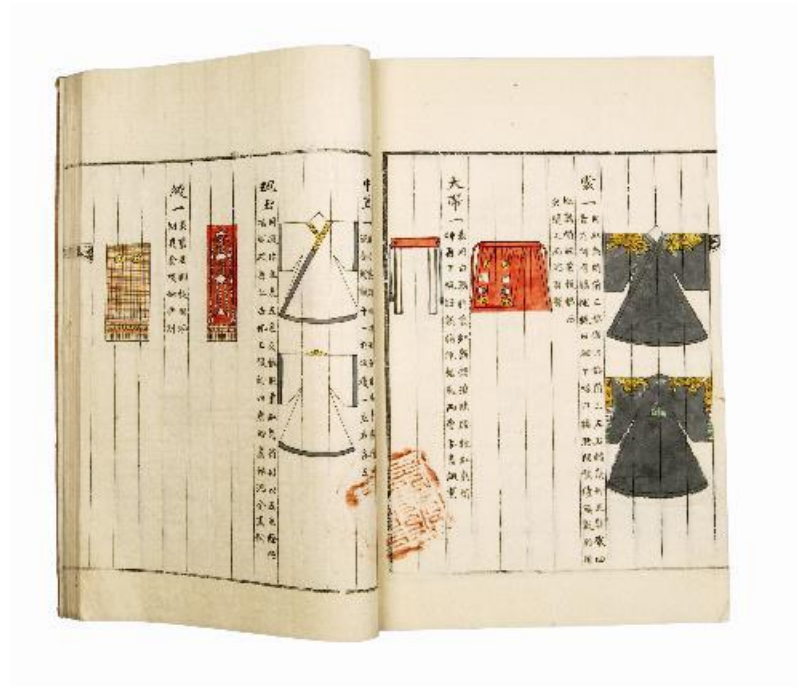
조선왕조 의궤

한국디자인 DNA 발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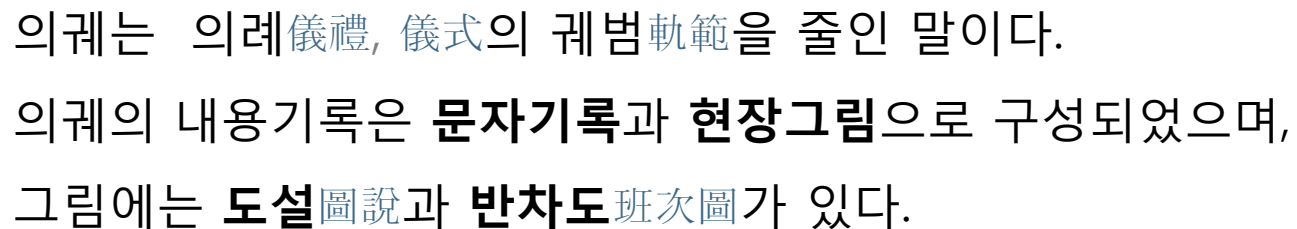
2011. 02.10

발표자

이동연 _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 세계 유일의 독자적인 **기록 문화**이다.
- 왕의 통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유교 정치**의 소산이다.
- 조선왕조 **600년의 생활상**의 **Visual Oriented** 기록이다.
- 기록 과정과 제작 과정의 체계를 갖춘 **기록 시스템**이다.
- 오늘날의 영화의 콘티와 같이 콘텐츠 요소와 과정이 낱낱이 표현된 기록이다.



```

graph TD
    A[의제] --> B[도감 I]
    A --> C[도감 II]
    A --> D[도감 N]
    B --> E[도청 I]
    C --> F[도청 II]
    D --> G[도청 N]
    E --> H[일방]
    E --> I[이방]
    E --> J[삼방]
    E --> K[별공작]
    F --> L[일방]
    F --> M[이방]
    F --> N[삼방]
    F --> O[별공작]
    G --> P[일방]
    G --> Q[이방]
    G --> R[삼방]
    G --> S[별공작]
    H --> T1[의제 I-1]
    I --> T2[의제 I-2]
    J --> T3[의제 I-3]
    K --> T4[의제 I-4]
    L --> T5[의제 II-1]
    M --> T6[의제 II-2]
    N --> T7[의제 II-3]
    O --> T8[의제 II-4]
    P --> T9[의제 N-1]
    Q --> T10[의제 N-2]
    R --> T11[의제 N-3]
    S --> T12[의제 N-4]
    T1 --> U[의제]
    T2 --> U
    T3 --> U
    T4 --> U
    T5 --> U
    T6 --> U
    T7 --> U
    T8 --> U
    T9 --> U
    T10 --> U
    T11 --> U
    T12 --> U
  
```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judicial review process (의제) initi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 It branches into three parallel tracks (I, II, and N). Each track involves a '도감' (Prosecutor General) and a '도청' (Prosecutor). The process then moves to a series of '의제' (Agenda) items, categorized by '일방' (One Party), '이방' (Two Parties), '삼방' (Three Parties), and '별공작' (Special Operation). The agenda items are further detailed with specific legal actions and outcomes, such as '교명 깔개 의복 상탁' (Courtroom attire storage) and '가마 의장' (Courtroom attire).

의궤에 기록된 오례(五禮)의 내용

길례(吉禮)	왕실 각종 제사
가례(嘉禮)	왕실 혼례(婚禮), 책봉(冊封; 왕세자 책봉 또는 왕비책봉 등), 존호(尊號), 왕세자 입학(入學), 조하(朝賀), 진연(進宴), 진찬(進饌), 양로연(養老宴) 등
빈례(賓禮)	외국 사신 접대 등
군례(軍禮)	활쏘기(大射禮), 강무(講武), 나례(儼禮) 등
흉례(凶禮)	장례(葬禮), 부묘(祔廟; 신주를 종묘에 모심) 등

□ 의궤는, 대략 **630여종**, 책 수는 **3천5백여 책** (동일한 건이 상당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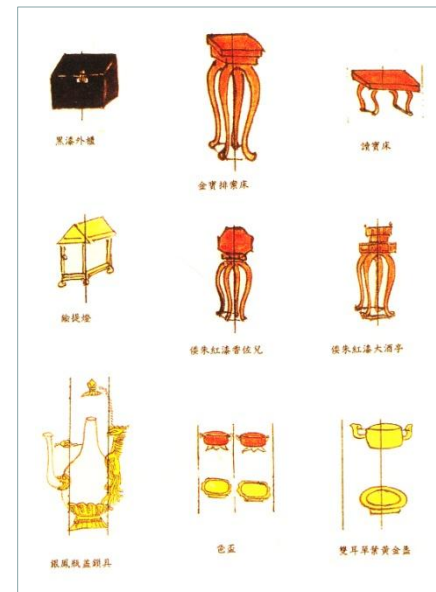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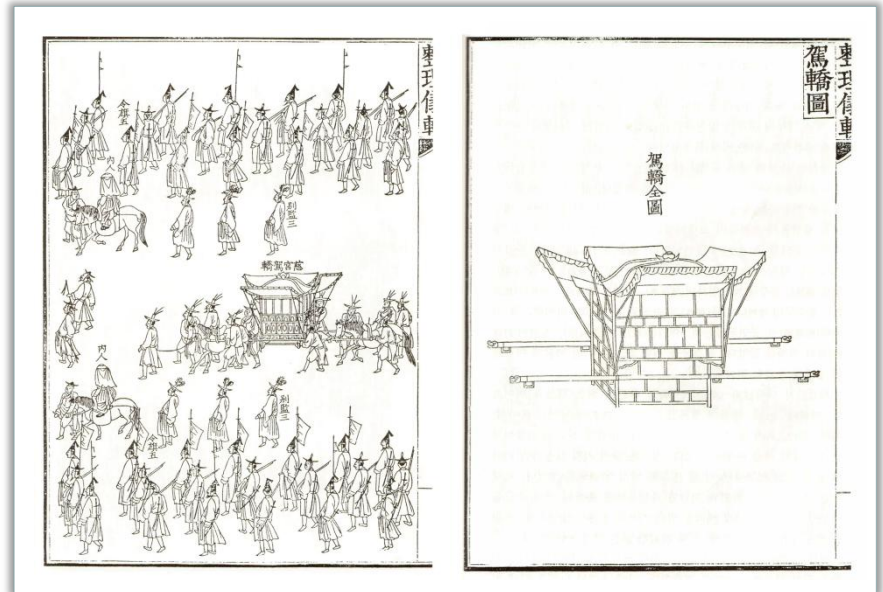
서울대 규장각 : 546여종, 2천7백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 287종 356건

프랑스파리국립도서관 191종 297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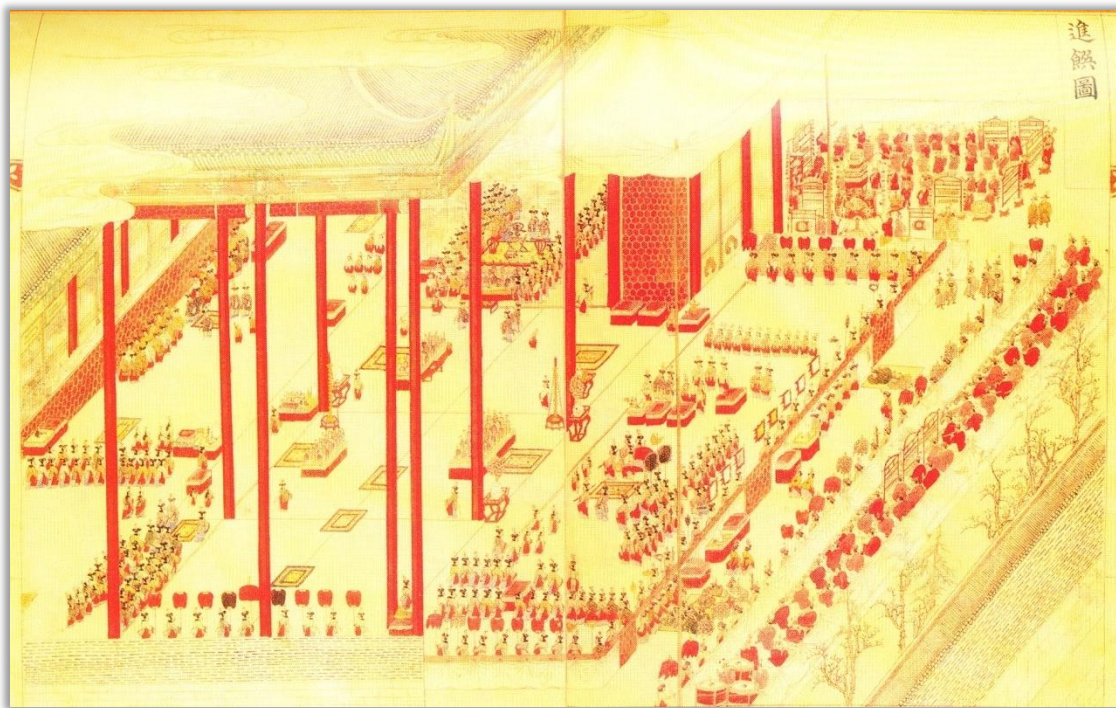


- 태실과 태실비 도설
- 정종대왕 태실과 태실비
- 백자 내외호(백자 태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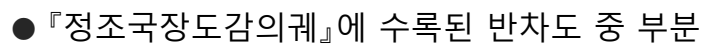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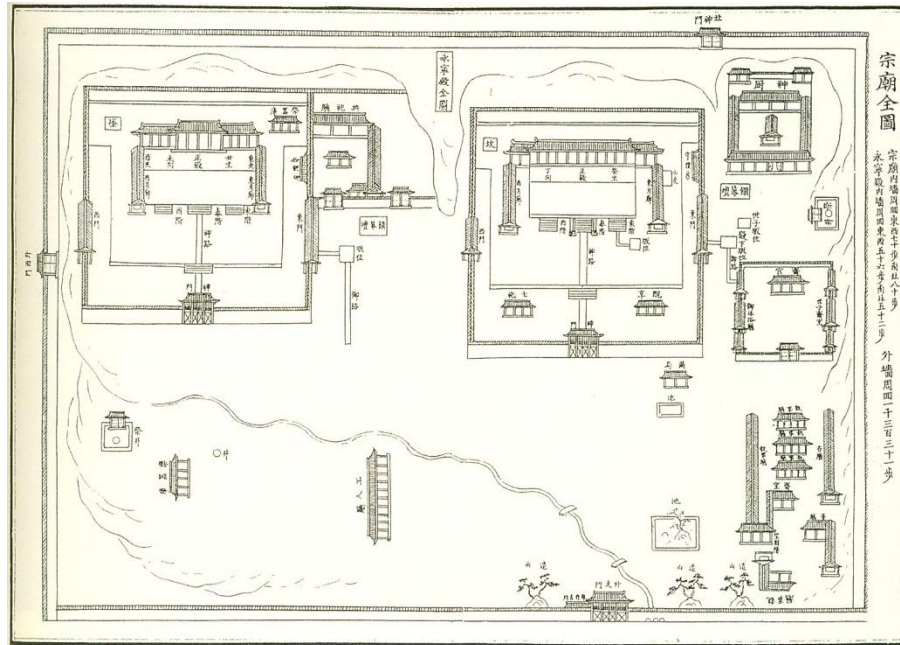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에 수록된

- 반차도, 영조의 가마 부분
- 반차도, 장순후의 가마행렬과 가교도 도설
- 각종탁자와 술병, 술잔의 기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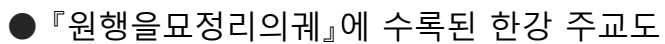
- 『임인진연도』 진연도
- 『기사진표리진찬의궐』
창경궁 경춘전 진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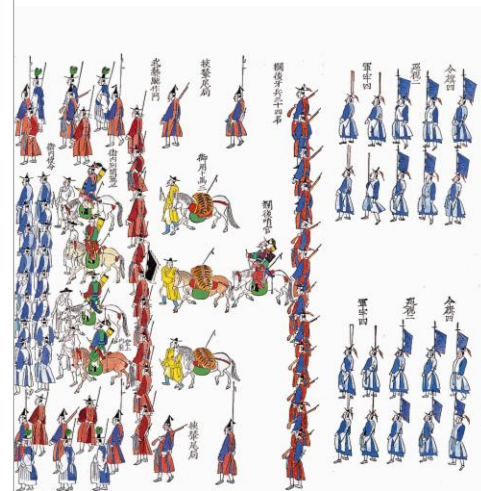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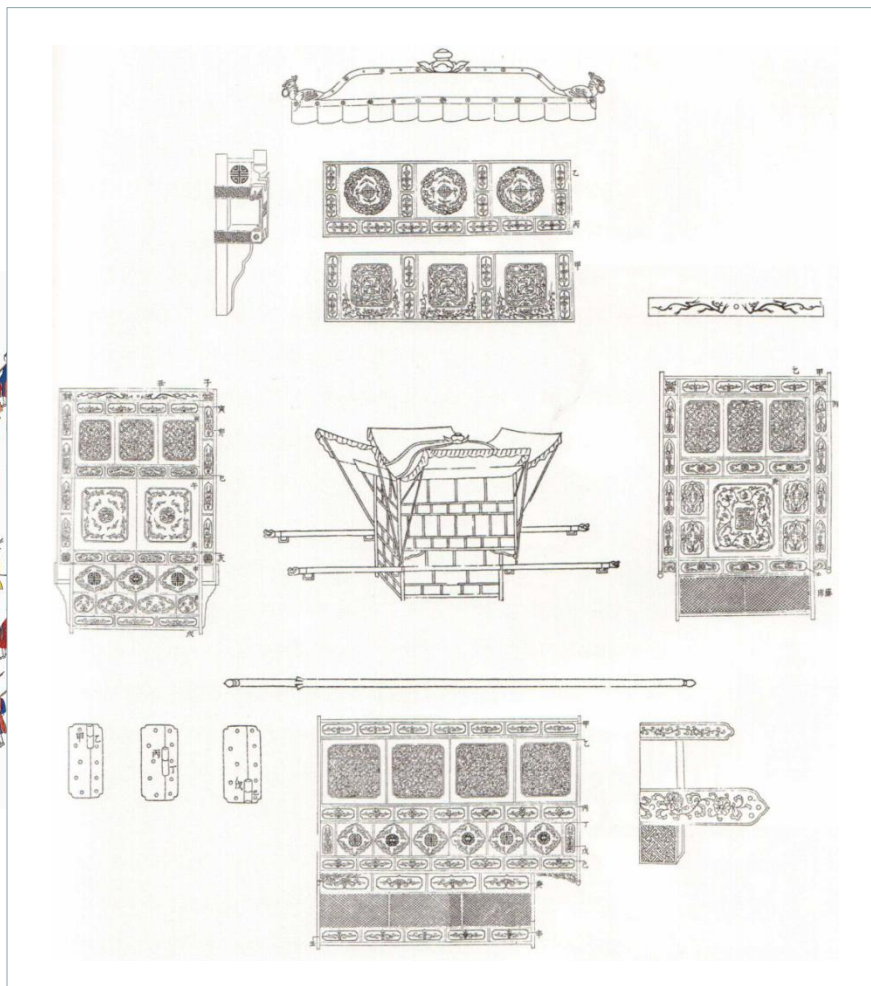




- 『종묘의궤』에 수록된 종묘전도
- 『사직서의궤』에서 인용한 제례 시 국왕과 왕세자의 복장
- 종묘의례 재현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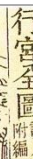






-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수록된 반차도 (혜경궁 홍씨가 탄 가교 부분)





- 화성행궁전도 도설
- 4대문 도설과 현대의 재건 모습



대표디자인 의궤 목록							
	왕실문화분야	오례	의궤명	대표성	포괄성	독창성	표현성
1	탄생	길례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	●	△	●	○
2	결혼	가례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	●	○	●
3	제사	길례	종묘의궤	●	△	○	●
			사직서의궤	○	△	●	○
4	죽음	흉례	정조국장도감의궤	●	○	○	○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	△	○	○
5	행차	길례	원행을묘정리의궤	●	●	●	●
6	건축	길례 (군례)	화성성역의궤	●	○	●	●
7	활쏘기	(군례)	대사례의궤	●	○	●	○
8	궁중 잔치	길례 빈례	원행을묘정리의궤	●	●	●	●
			헌종무신진찬의궤	●	○	○	○
			기사진표리진찬의궤	●	○	●	●
			경모궁의궤	○	●	○	○
9	악기	길례, 빈례	경모궁의궤	●	●	○	○

● : 매우 그러하다 / ○ : 그러하다 / △ : 다소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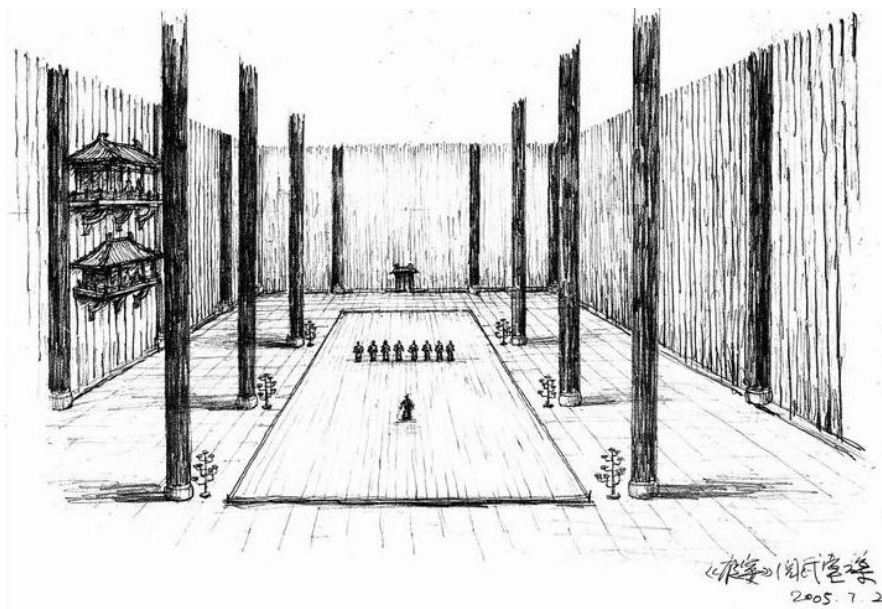






● 2005년 11월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 야연(夜宴: The Night Banquet, 2006) - 밤의 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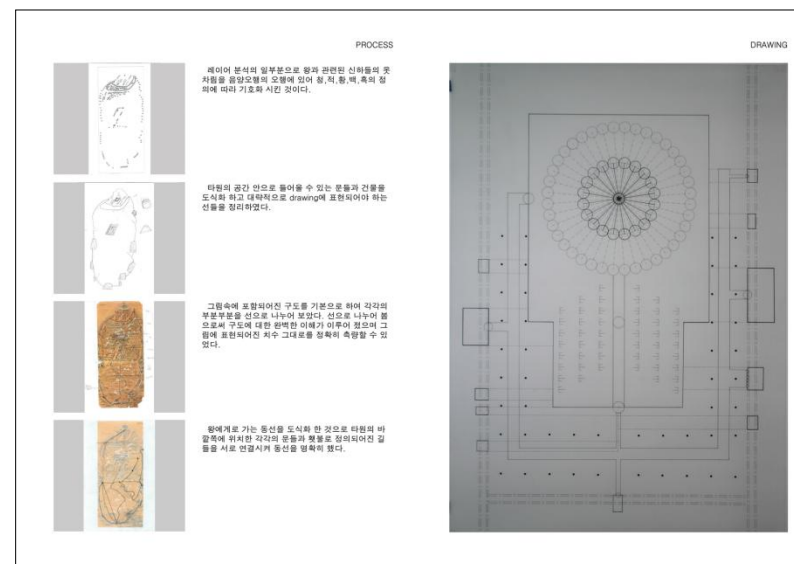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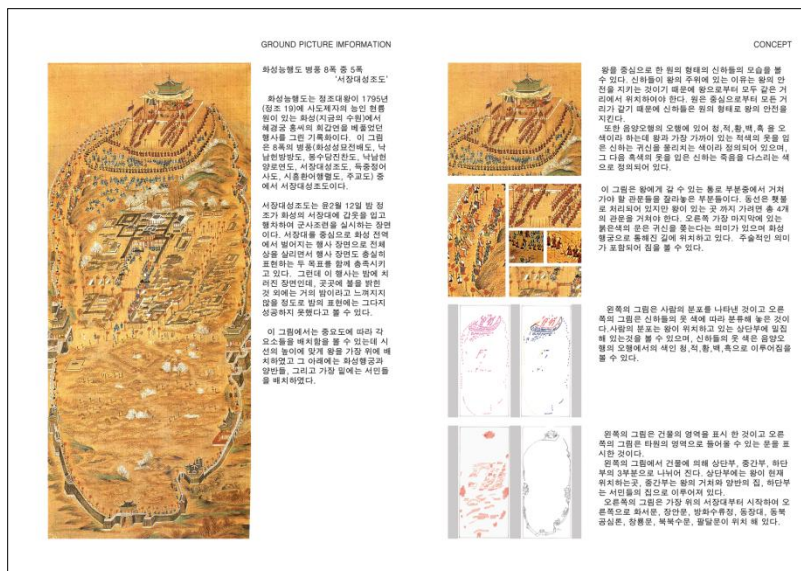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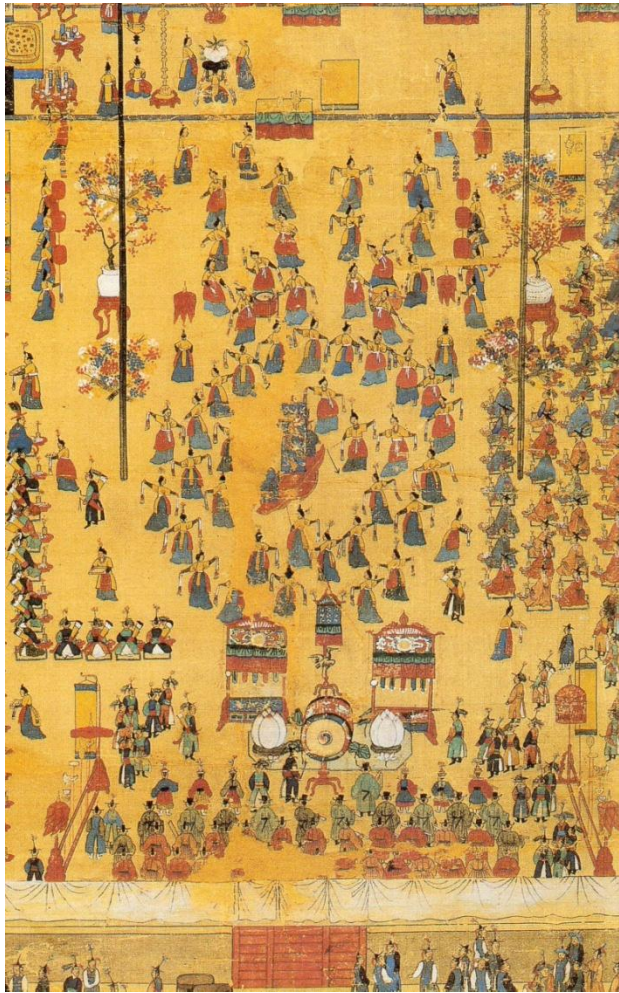
● 왕의 남자(20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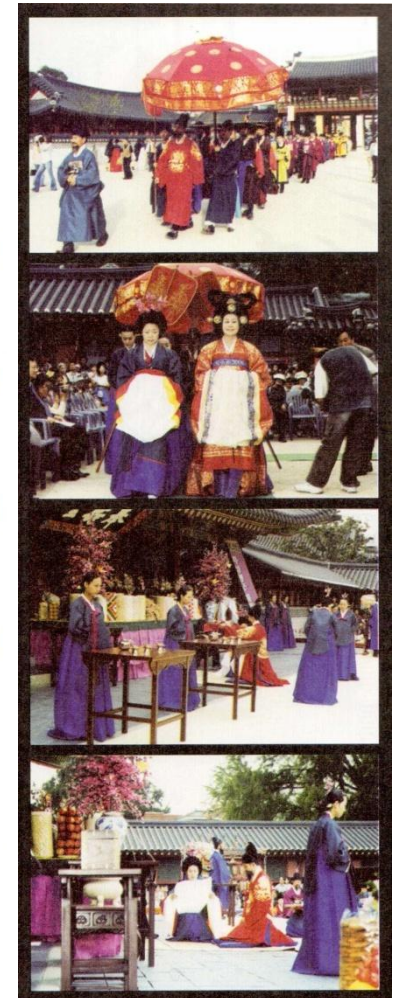
● 궁중연례악 '왕조의 꿈, 태평서곡'

● 의궤를 소재로 한 디자인 교육의 예





[궁중잔치에 쓰인 기물과 복식]



- <화성능행도>에 있는 봉수당에서의 혜경궁홍씨의 회갑연 모습
-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수록된 기물과 복식
-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인용한 혜경궁 홍씨 진찬연 재연행사





우리나라의 유·무형의 문화유산(문화원형_Archetype)속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DNA¹를 추출하고 체계화하는 한편, 문화DNA 구성체계로부터 창의적 실체인 문화디자인상품²을 생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통합기술³을 필요하며 비로소 문화유산으로부터 추출한 문화원형이 담겨있는(한국의 문화DNA가 내재되어 있는) 디자인 상품이 생산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문화DNA : DNA는 생물의 유전자(Gene)를 구성하는 고분자화합물로 어떠한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로서의 유전자 정보단위를 말함. 본문에서의 문화DNA는 문화원형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문화구성인자(MEME)와 요인, 맥락 등의 문화구성 정보단위를 '문화DNA'로 칭한다.

2 문화디자인상품 : 문화DNA를 가지고 파생시킬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파생상품으로 문화적 독창성, 시장경쟁력, 산업 생산적 효율성을 갖춘 모든 유형, 무형의 실체 즉, 일상생활제품, 글로벌한 관광 상품, 공공디자인제품, 문화축제 및 행사 등을 포함한다.

3 통합기술 : 인문사회, 예술, 디자인, 감성등과 이공학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기술을 말한다.

문리학_연구체계 기본논리



Ruler _자로 재다

문화유산으로부터 문화콘텐츠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



Sieve _체로 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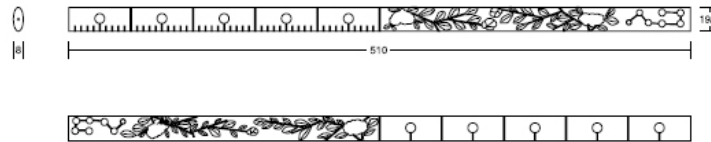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Meme)를 추출하고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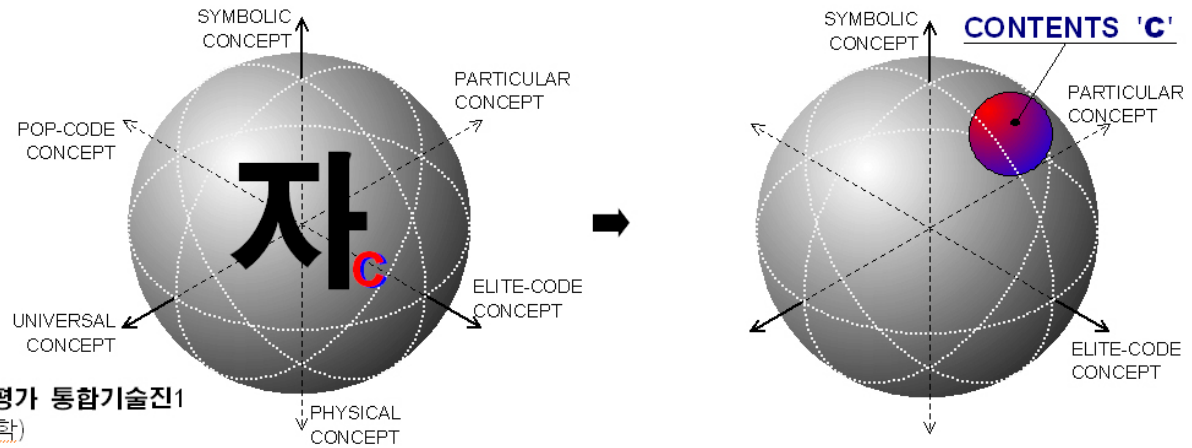
Mold _틀에 부어 만들다

평가된 문화콘텐츠와 추출된 문화구성요소간의
공식화를 통해 문화DNA를 생성하는 일

문리학_연구체계_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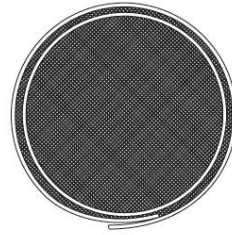
[과업1] 문화원형으로부터 '문화콘텐츠로서의 잠재력', 즉 '작품성(문화적 독창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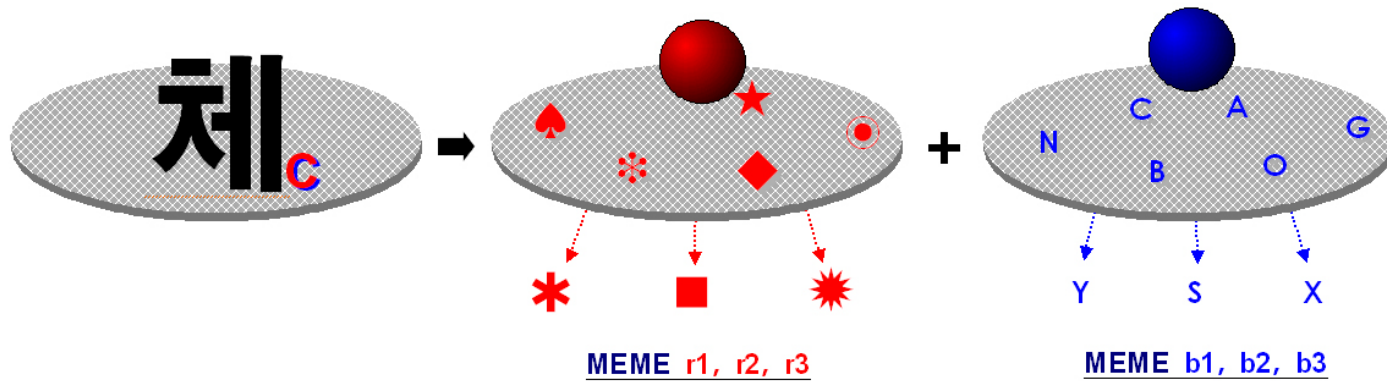
By 문화콘텐츠의 작품성평가 통합기술진1
(주축: 인문학 + 조형학)



문리학_연구체계_2단계



[과업2] 작품성이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인, 즉 '문화콘텐츠 구성요소들과 그 맥락'을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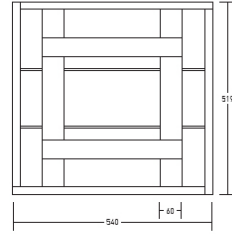


By 콘텐츠의 작품성 구성요소(MEME)추출 통합기술진1 (주축: 인문학 + 조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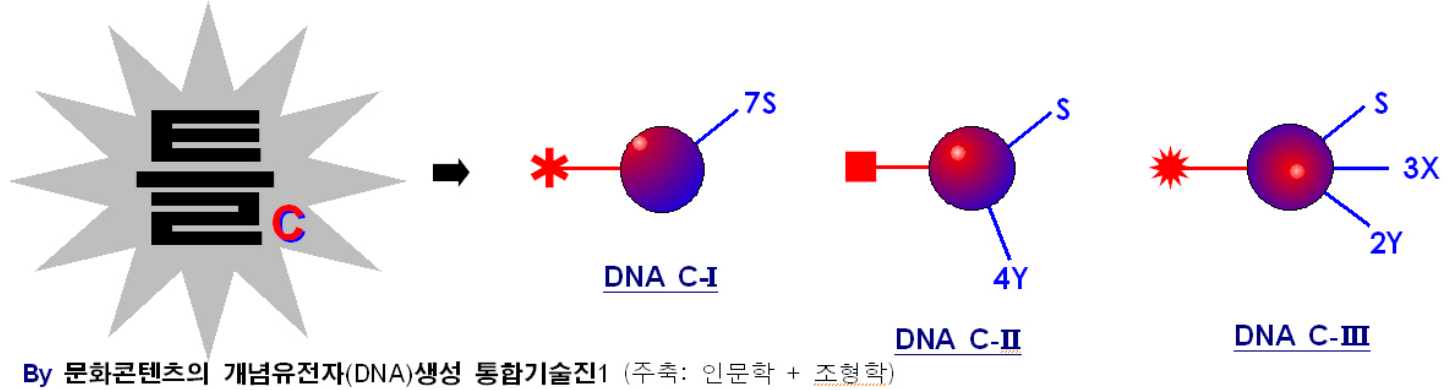


Meme ; 문화구성요소로 생물체의 유전자처럼 재현, 모방을 되풀이하는 사회 관습,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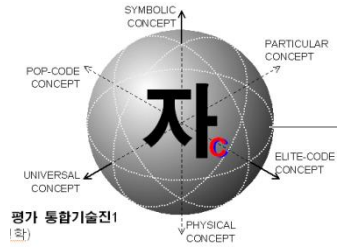
문리학_연구체계_3단계



[과업3] 작품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콘텐츠와 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식,
즉 '문화유전자의 표준개념'을 생성



문리각_연구체계에 의한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예시



체

틀

